

한·중관계의 미래 :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韩中关系的未来 : 关于韩国与中国青年对
韩中关系的认识与作用强化方案

- 일시 : 2011.9.22 (목) 오후 2시 - 6시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비파홀
-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日期 : 2011年9月22日 (星期四) 下午2时-6时
- 地点 : 首尔教育文化会馆 本馆3楼 琵琶厅

진행 순서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 개회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환영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4:10~15:20	◇ 사 회 ■ 한국과 중국 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조사 ■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 지정 토론	장수현(중국학회장/광운대 교수) 윤철경·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鄭繼永/상해 복단대학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15:20~15:40	Coffee Break	
15:40~17:00	■ 중국의 험한정서 실태 및 대 한국 호감도 증진방안 ◇ 지정 토론 ■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강화방안 ◇ 지정 토론	尹海洁/하얼빈공과대학교 교수 조문영/연세대 교수 박승준/인천대학교교수 송진호/한국 YMCA 기획실장
17:00~17:30	종합 토 론	
17:30	폐 회	

按部就班

13:30-14:00	登 錄	
14:00~14:10	開 會 ■ 開會辭 ■ 歡迎辭	李在然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長) 朴振根 (經濟·人文社會研究會理事長)
14:10-15:20	◇ 司會 ■ 韩国与中国青年对对方国家的认识与态度比较调查 ■ 中国青年对韩半岛统一的展望与对韩中关系的认识 ◇ 指定 討論	張秀賢 (中國學會長)/光云大 教授 尹徹慶·吴海燮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郑继永 (上海复旦大学国际关系专业教) 李熙玉 (成均館大 教授)
15:20-15:40	Coffee Break	
15:40~17:00	■ 中国大学生的对韩态度及增进友好的方案 ◇ 指定 討論 ■ 关于加强青年在促进韩中关系方面作用的方案 ◇ 指定 討論	尹海洁 (哈爾濱工科大 教授) 赵文英 (延世大 教授) 朴勝俊 (仁川大教授) 宋 震 鎬 (韓國 YMCA 企劃室長)
17:00~17:30	綜 合 討 論	
17:30	閉 會	

목 차

제1부

- 한국과 중국 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조사 3
- 韩中青年对对方国家的认识及态度调查结果分析(摘要) 51

-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71
- 中国青年对韩半岛统一的展望与对韩中关系的认识 113
- 지정토론 149

제2부

- 중국의 험한정서 실태 및 대 한국 호감도 증진방안 155
- 中国大学生的对韩态度及增进友好的方案 175
- 지정토론 193

-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강화방안 197
- 지정토론 211

1부

- 한국과 중국 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조사
윤철경·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郑继永/상해 복단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한국과 중국 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조사

윤철경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징

이 연구는 『한·중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양국간 청소년교류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사 대상은 대중국 및 대한민국 인식과 태도에 관하여 양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총 2000 여명을 전문가와 연구진이 양 국가의 지역과 학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유의적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징

		한국		중국		전체	
		N	%	N	%	N	%
성	남자	506	50.0	483	48.2	989	49.1
	여자	507	50.0	520	51.8	1027	50.9
연령	10대	224	22.1	157	15.7	381	18.9
	20대	688	67.9	829	82.7	1517	75.2
	30대이상	101	10.0	17	1.7	118	5.9
신분	대학생	763	75.3	746	74.4	1509	74.9
	대학원생	250	24.7	257	25.6	507	25.1
소득 수준	상	62	6.1	28	2.8	90	4.5
	중	836	82.3	701	69.9	1537	76.2
	하	115	11.4	274	27.3	389	19.3
거주	북경	-	-	226	22.5	226	11.2

지역	상해	-	-	197	19.6	197	9.8
	천진	-	-	190	18.9	190	9.4
	광주	-	-	199	19.8	199	9.9
	하얼빈	-	-	191	19.0	191	9.5
	서울	213	21.0	-	-	213	10.6
	부산	199	19.6	-	-	199	9.9
	대구	200	19.7	-	-	200	9.9
	대전	196	19.3	-	-	196	9.7
	광주	205	20.2	-	-	205	10.2
계		1013	100.0	1003	100.0	2016	100.0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 중국은 5개 대학으로 북경대, 천진대, 하얼빈 공과대학, 광저우 중산대학, 상해 복단대학교 대학생과 연구생(대학원생) 총 1003명을 설문조사 하였다. 한국의 경우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부산동아대학교, 대구 경북대학교, 대전 충남대학교, 광주 전남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013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표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은 한국이 남·녀 각각 50%이고, 중국은 남자 48.2%와 여자 51.8%로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10~30대 중 가장 많은 20대에서 한국은 67.9%인 반면, 중국은 82.7%로 다소 비교되는 수치이다. 또한 30대 이상의 경우는 한국이 10.0%에 비해 중국은 1.7%에 불과하였다. 신분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 모두 대학생과 대학원생 비율이 75%대 25%의 비율로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응답자 스스로 느끼는 소득수준은 한국의 경우 상·중·하 중 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1.4%에 비해, 중국은 27.3%라고 응답하여 상당히 비교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제2절 한·중 조사결과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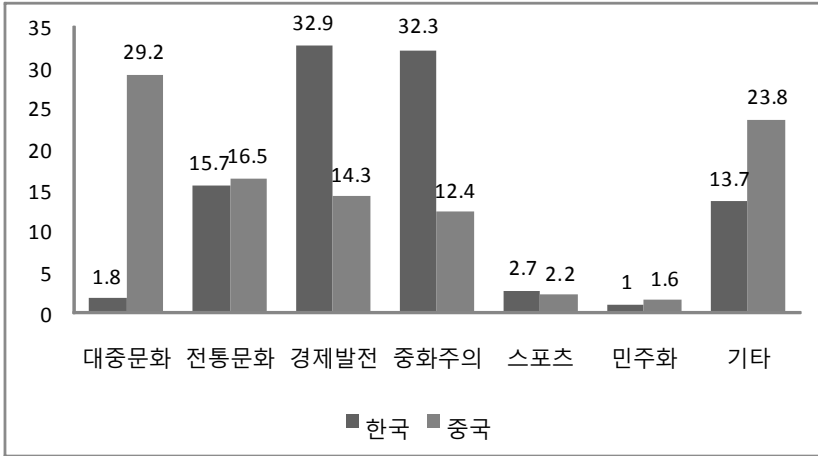
1.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와 관심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와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혹은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표2-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청소년들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가장 강한 이미지는 경제발전(32.9%)과 중화주의(32.3%)였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대중문화(1.8%)와 민주화(1.0)이다. 반면, 한국에 대한 느낌에 대해 가장 많은 중국의 청소년들이 대중문화(29.2%)라고 응답한 점이 매우 인상 깊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내 한류와 청소년들이 주를 이루는 K-POP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그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1>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대중 문화	전통 문화	경제 발전	중화주의· 분단국가	스포츠	민주화	기타	계
한 국	빈도(N)	18	159	333	327	27	10	139	1013
	백분율(%)	1.8	15.7	32.9	32.3	2.7	1.0	13.7	100.0
중 국	빈도(N)	261	148	128	111	20	14	213	895
	백분율(%)	29.2	16.5	14.3	12.4	2.2	1.6	2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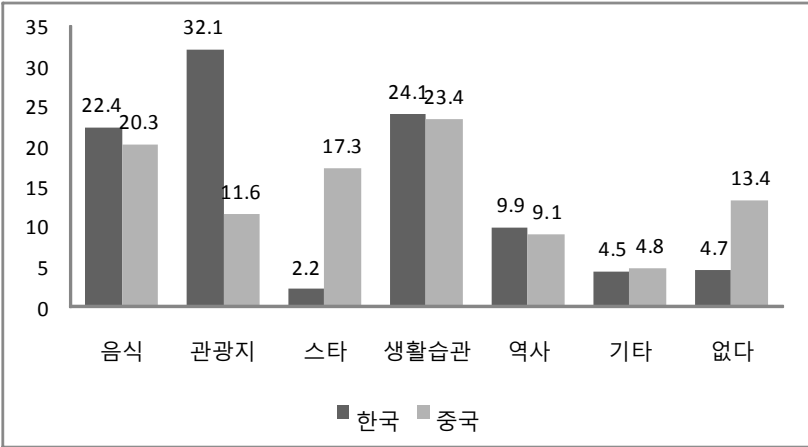


[그림 2-1]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다음으로 상대국에 대한 관심분야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중국의 관광지(32.1%), 생활습관(24.1%), 음식(22.4%)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 역시 한국의 생활습관(23.4%)과 음식(20.7%)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표2-2>에서 나타난 조사결과에서 다소 의미 있는 내용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중국의 관광지에 매우 높은 관심이 있는 반면, 대중스타(2.2%)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의 대중스타(17.3%)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비해, 한국의 관광지에 대한 관심(11.6%)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표하고 있다.

<표 2-2> 상대국에 대한 관심분야

		음식	관광지	스타	생활 습관	역사	기타	없다	계
한 국	빈도(N)	226	325	22	244	100	46	48	1011
	백분율(%)	22.4	32.1	2.2	24.1	9.9	4.5	4.7	100.0
중 국	빈도(N)	187	107	107	215	84	44	123	919
	백분율(%)	20.3	11.6	17.3	23.4	9.1	4.8	1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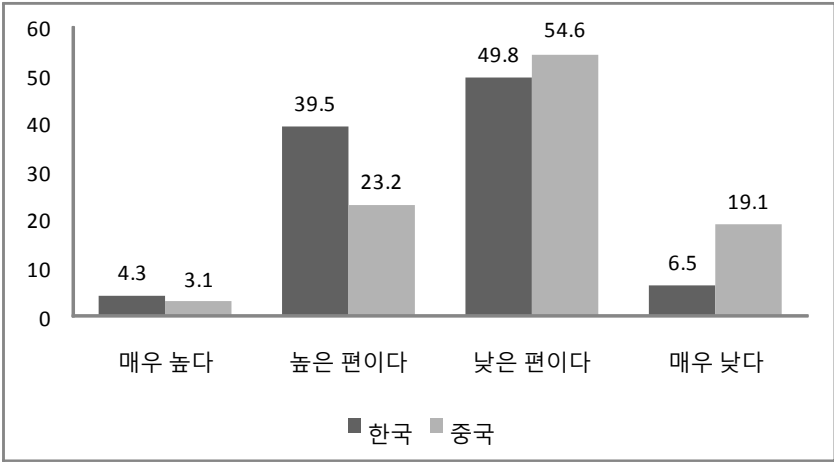


[그림 2-2] 상대국에 대한 관심분야

전반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관심도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 중 중국에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3%인데 비해, 중국의 청소년들은 26.3%만이 한국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들은 6.5%였으나, 중국 청소년들의 19.1%가 한국에 대해 매우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양국관계 증진과 청소년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3>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계
한국	빈도(N)	43	399	503	66	1011
	백분율(%)	4.3	39.5	49.8	6.5	100.0
중국	빈도(N)	31	232	546	191	1000
	백분율(%)	3.1	23.2	54.6	1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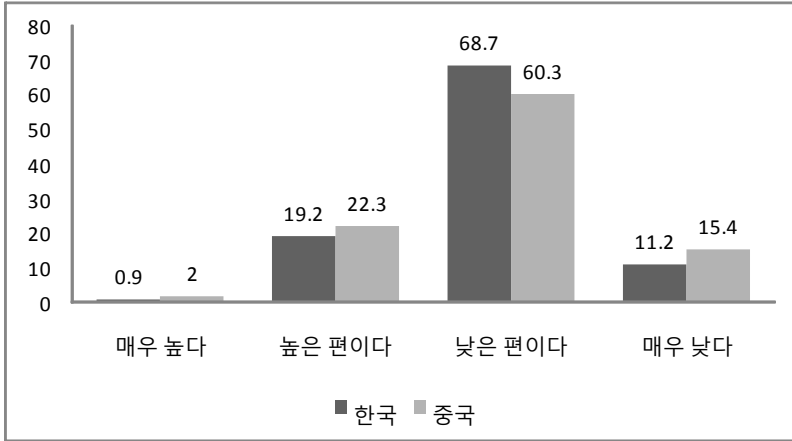


[그림 2-3]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상대국에 대한 이해수준에 관한 질문에 <표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 한국 청소년(21.2%)이 한국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 중국 청소년(24.3%)보다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2-4> 상대국에 대한 이해수준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계
한국	빈도(N)	9	193	691	113	1006
	백분율(%)	.9	19.2	68.7	11.2	100.0
중국	빈도(N)	20	220	595	152	987
	백분율(%)	2.0	22.3	60.3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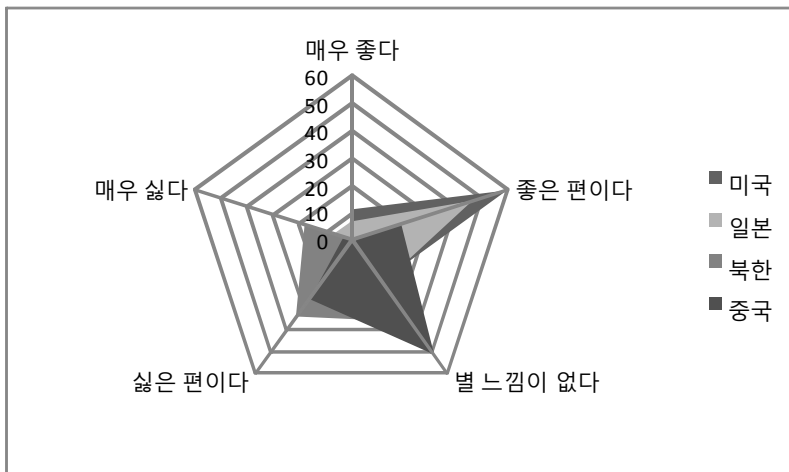
[그림 2-4] 상대국에 대한 이해수준

2.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혹은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북한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표2-5>과 <표2-6>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국(71.4%), 일본(52.9%), 중국(20.0%), 북한(10.9%) 순으로 호감도(매우좋다/좋은 편이다)를 표시했다. 중국청소년들은 미국(68.2%), 일본(41.2%), 한국(37.3%), 북한(16.9%) 순으로 국가별 긍정적인 호감도를 표시했다. 또한 <표2-7>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청소년들이 매우 싫어하는 국가로 일본(9.7%)과 북한(8.7%)인데 비해, 한국(3.9%)과 미국(1.6%)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청소년들의 국가별 선호도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 매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5> 상대국 및 외국에 대한 호감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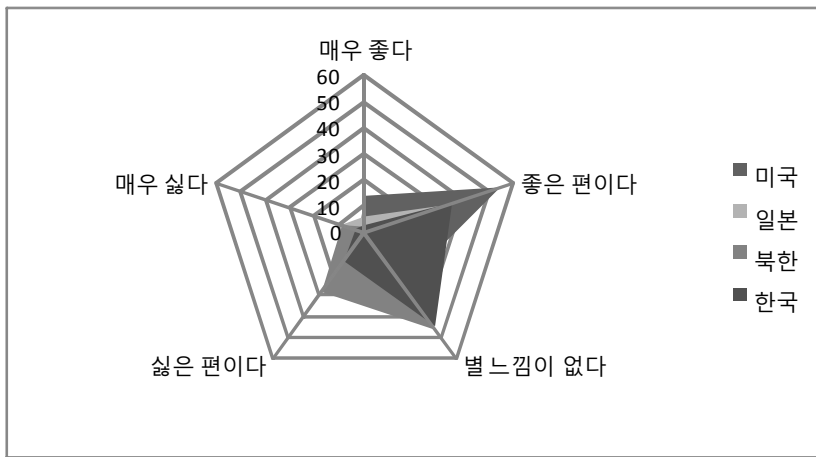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계
미국	N	117	605	187	88	14	1011
	%	11.6	59.8	18.5	8.7	1.4	100.0
일본	N	67	468	195	212	69	1011
	%	6.6	46.3	19.3	21.0	6.8	100.0
북한	N	3	107	371	348	180	1009
	%	.3	10.6	36.8	34.5	17.8	100.0
중국	N	10	192	517	261	31	1011
	%	1.0	19.0	51.1	25.8	3.1	100.0



[그림 2-5] 상대국 및 외국에 대한 호감도(한)

<표 2-6> 상대국 및 외국에 대한 호감도(중)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계
미국	N	136	546	249	53	16	1000
	%	13.6	54.6	24.9	5.3	1.6	100.0
일본	N	64	348	295	197	97	1001
	%	6.4	34.8	29.5	19.7	9.7	100.0
북한	N	22	147	464	281	87	1001
	%	2.2	14.7	46.4	28.1	8.7	100.0
한국	N	21	352	451	138	39	1001
	%	2.1	35.2	45.1	13.8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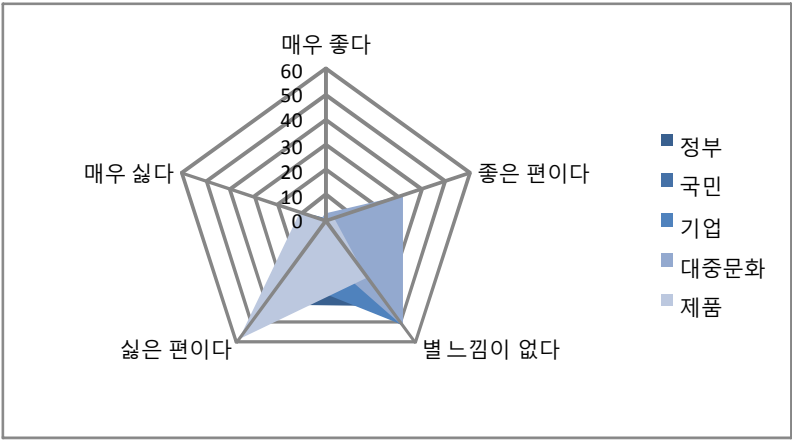
[그림 2-6] 상대국 및 외국에 대한 호감도(중)

한편, 상대국에 대한 영역별 호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혹은 중국의 정부, 기업, 국민, 대중문화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표2-7>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의 대중문화(34.9%)와 국민(25%)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인식(매우 좋다/좋은 편이다)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다’ 혹은 ‘싫은 편이다’ 등의 응답이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3.4%)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싫은 편이다/매우 싫다)이 6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청소년들이 중국의 정치와 기업시스템, 그리고 제품 수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2-7> 영역별 상대국(중국)에 대한 호감도(한)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계
정부 호감도	N	4	78	426	420	83	1011
	%	.4	7.7	42.1	41.5	8.2	100.0
국민 호감도	N	15	237	525	207	26	1010
	%	1.5	23.5	52.0	20.5	2.6	100.0
기업 호감도	N	6	149	516	283	56	1010
	%	.6	14.8	51.1	28.0	5.5	100.0
대중문화 호감도	N	26	326	527	118	13	1010
	%	2.6	32.3	52.2	11.7	1.3	100.0
제품 호감도	N	1	33	282	588	102	1006
	%	.1	3.3	28.0	58.4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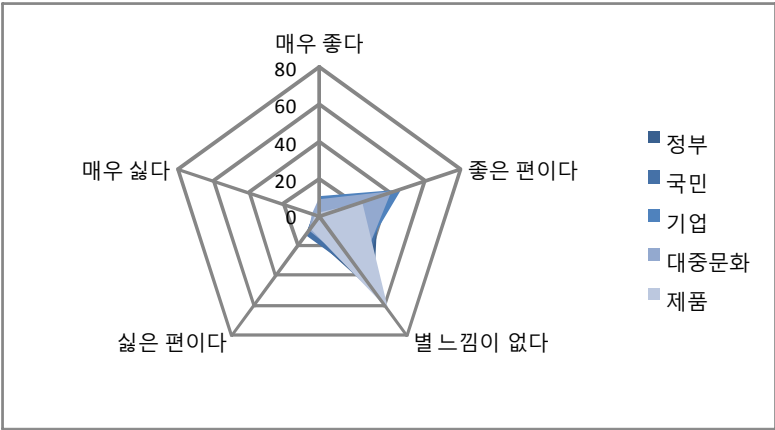


[그림 2-7] 영역별 상대국(중국)에 대한 호감도(한)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영역별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중국청소년들은 한국의 기업(57.8%)와 대중문화(50.3%), 국민(42.1%), 정부(35.7%), 제품(25.6%) 순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개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싫은 편이다/매우 싫다)은 한국의 국민(16.9%), 정부(13.3%), 대중문화(13.2%), 제품(11.4%), 기업(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영역별 상대국(중국)에 대한 호감도(중)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계
정부 호감도	N	16	340	508	106	27	997
	%	1.6	34.1	51.0	10.6	2.7	100.0
국민 호감도	N	31	386	406	133	35	991
	%	3.1	39.0	41.0	13.4	3.5	100.0
기업 호감도	N	111	462	338	54	27	992
	%	11.2	46.6	34.1	5.4	2.7	100.0
대중문화 호감도	N	87	411	362	94	37	991
	%	8.8	41.5	36.5	9.5	3.7	100.0
제품 호감도	N	18	236	624	86	27	991
	%	1.8	23.8	63.0	8.7	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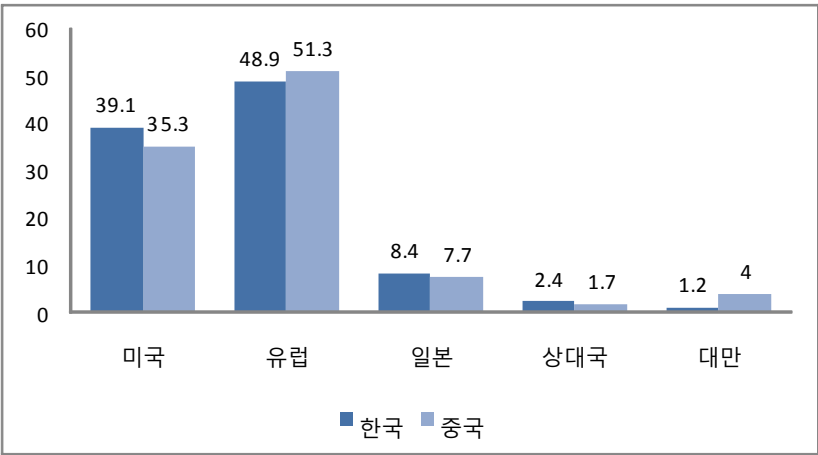


[그림 2-8] 영역별 상대국(중국)에 대한 호감도(중)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취업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할 경우 어떤 나라를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표2-9>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취업의사가 높은 국가로 유럽(48.9%)과 미국(39.1)을 희망하고 있으며, 반면 일본(8.4%), 중국(2.4%), 대만(1.2%)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청소년들의 외국 기업 취업의사 유럽(51.3%)과 미국(35.3%)이 주요 희망 국가인데 비해 한국기업은 1.7%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앞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청소년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보수집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외국기업 취업의사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일본 기업	중국 기업	대만 기업	계
한 국	빈도(N)	395	493	85	24	12	1009
	백분율(%)	39.1	48.9	8.4	2.4	1.2	100.0
중 국	빈도(N)	312	453	68	15	35	883
	백분율(%)	35.3	51.3	7.7	1.7	4.0	100.0



[그림 2-9] 외국기업 취업의사

3. 상대국 국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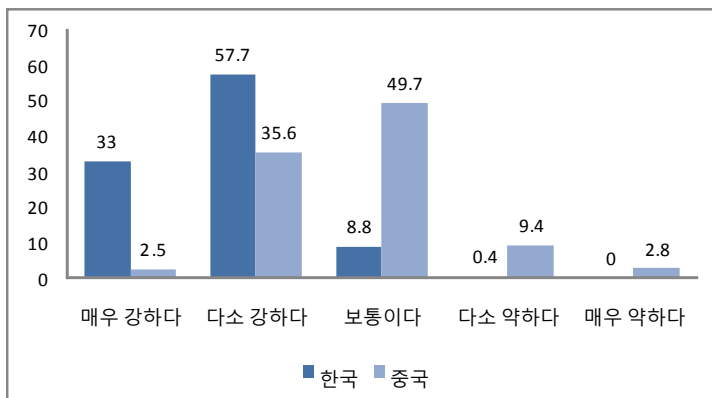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의 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국의 현재 혹은 향후 국력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표2-10>과 <표2-11>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의 국력이 ‘매우 강하다(33.0%)’ 혹은 ‘다소 강하다(57.7%)’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의 국력이 ‘다소 강하다(35.6%)’, ‘보통이다(49.7%)’로 다소 비교되는 응답을 하였다.

<표 2-10> 상대국 (중국) 국력 평가(한)

	매우 강하다	다소 강하다	보통이다	다소 약하다	계
빈도(N)	333	582	89	4	1008
백분율(%)	33.0	57.7	8.8	.4	100.0

<표 2-11> 상대국(한국) 국력 평가(중)

	매우 강하다	다소 강하다	보통이다	다소 약하다	매우 약하다	계
빈도(N)	25	355	496	94	28	998
백분율(%)	2.5	35.6	49.7	9.4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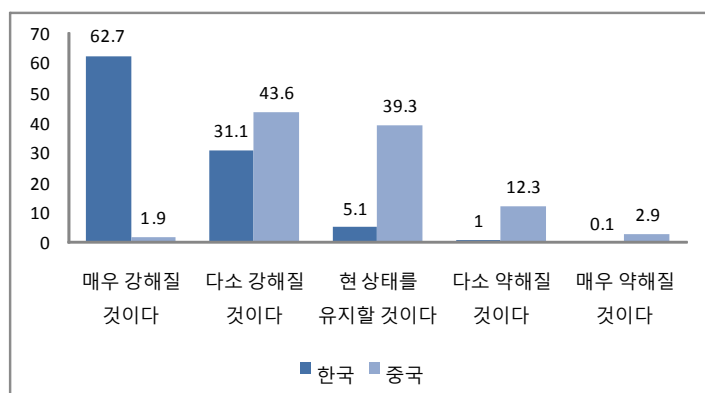


[그림 2-10] 상대국 국력에 대한 평가

또한 향후 한·중 양국의 국력에 대한 예측에서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의 국력이 ‘매우 강해질 것이다(62.7%)’ 혹은 ‘다소 강해질 것이다(31.1%)’라고 응답하여, 중국의 향후 국력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표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청소년들은 한국의 향후 국력이 ‘다소 강해질 것이다(43.6%)’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39.3%)’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12> 향후 상대국 국력에 대한 평가

		매우 강해질 것이다	다소 강해질 것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다소 약해질 것이다	매우 약해질 것이다	계
한국	빈도(N)	631	313	51	10	1	1006
	백분율(%)	62.7	31.1	5.1	1.0	.1	100.0
중국	빈도(N)	19	433	391	122	29	994
	백분율(%)	1.9	43.6	39.3	12.3	2.9	100.0



[그림 2-11] 향후 상대국 국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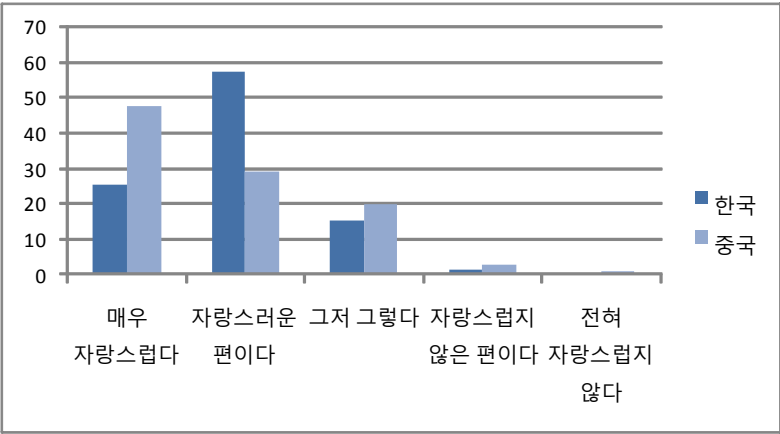
4. 자국에 대한 인식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묻는 질문에 <표 2-13>의 결과가 나타났다. 대다수의 한국청소년들(82.8%)과 중국청소년들

(76.9%)이 자신이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집단은 한국이 25.2%인데 비해, 중국은 47.7%로 다소 비교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3> 자국에 대한 자긍심

		매우 자랑스럽 다	자랑스러 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자랑스럽 지 않은 편이다	전혀 자랑스럽 지 않다	계
한 국	빈도(N)	255	583	156	12	6	1012
	백분율(%)	25.2	57.6	15.4	1.2	.6	100.0
중 국	빈도(N)	477	292	199	26	7	1001
	백분율(%)	47.7	29.2	19.9	2.6	.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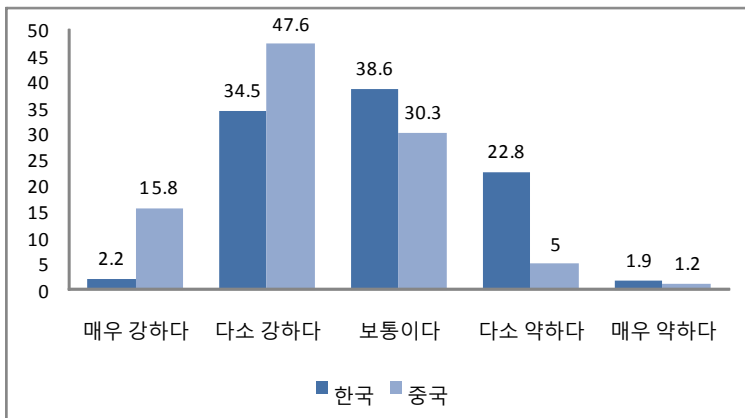


[그림 2-12] 자국에 대한 자긍심

같은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의 국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표2-14>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의 36.7%는 한국의 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24.7%나 되었다. 반면 중국청소년들의 63.4%는 중국의 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6.2%에 불과하였다.

<표 2-14> 자국 국력에 대한 평가

		매우 강하다	다소 강하다	보통이다	다소 약하다	매우 약하다	계
한국	빈도(N)	22	349	391	231	19	1004
	백분율(%)	2.2	34.5	38.6	22.8	1.9	100.0
중국	빈도(N)	158	476	303	50	12	999
	백분율(%)	15.8	47.6	30.3	5.0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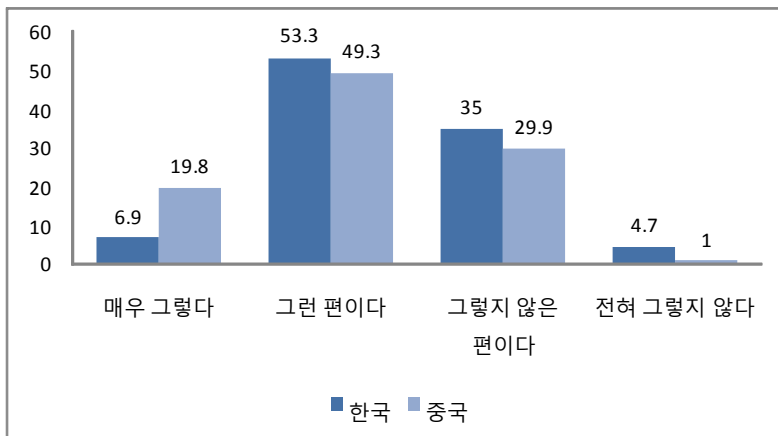
[그림 2-13] 자국 국력에 대한 평가

5. 상대국에 대한 체험 정도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과 정보 획득 채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표2-15>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60.3%)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39.7%)하는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국청소년들 역시 한국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69.2%)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30.9%)하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2-15>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한국	빈도(N)	70	539	354	48	1011
	백분율(%)	6.9	53.3	35.0	4.7	100.0
중국	빈도(N)	198	494	300	10	1002
	백분율(%)	19.8	49.3	29.9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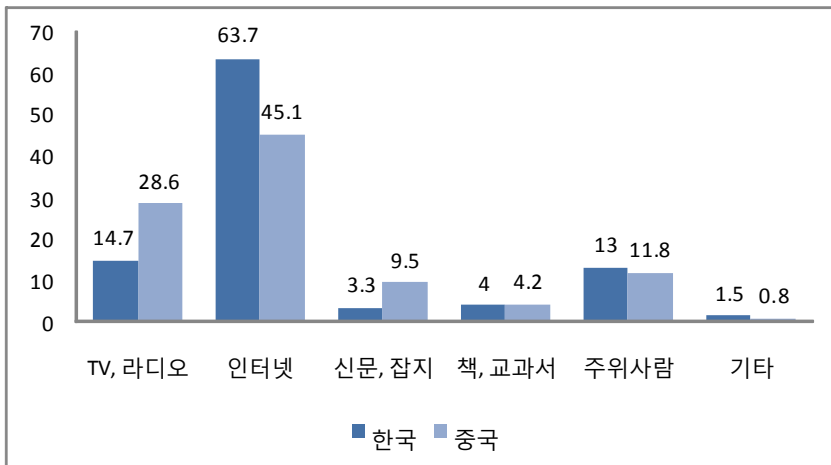
[그림 2-14]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

한편,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이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채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표2-16>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63.7%), TV와 라디오(14.7%), 주위사람(13.0%) 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국 청소년들 역시 인터넷(45.1%), TV와 라디오(28.3%), 주위사람(11.8%) 순으로 응답하여 양국 청소년들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비롯하여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확대와도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표 2-16> 상대국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책, 교과서	주위 사람	기타	계
한 국	빈도(N)	148	643	33	40	131	15	1010
	백분율(%)	14.7	63.7	3.3	4.0	13.0	1.5	100.0
중 국	빈도(N)	433	684	144	64	179	12	1516
	백분율(%)	28.6	45.1	9.5	4.2	11.8	0.8	100.0

주1. 본 문항은 중복응답자가 많아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자료는 전체 응답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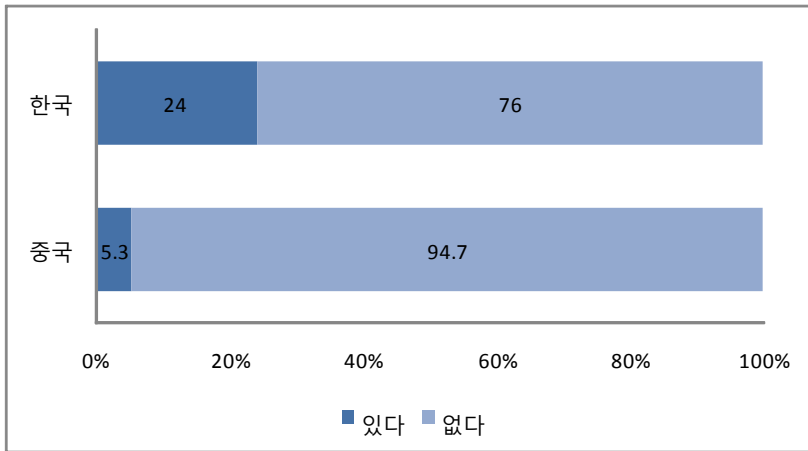


[그림 2-15]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여행 경험과 여행과정에서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표2-17>, <표2-18> 와 같이 응답하였다.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에 대한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인데 비해, 중국청소년들은 5.3%에 불과하였다. 여행 중 상대국에 대한 느낌은 한국청소년(71.1)과 중국청소년(70.1%) 두 집단 모두 ‘좋았다’라고 응답하여 상대국에 대한 여행 경험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2-17> 상대국 여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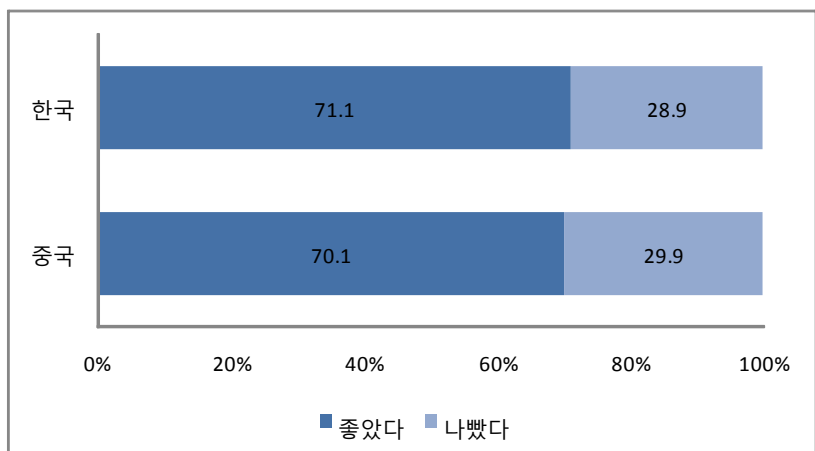
		있다	없다	계
한국	빈도(N)	242	768	1010
	백분율(%)	24.0	76.0	100.0
중국	빈도(N)	52	930	982
	백분율(%)	5.3	94.7	100.0



[그림 2-16] 상대국 여행 경험

<표 2-18> 상대국 여행 느낌

		좋았다	나빴다	계
한국	빈도(N)	167	68	235
	백분율(%)	71.1	28.9	100.0
중국	빈도(N)	54	23	77
	백분율(%)	70.1	2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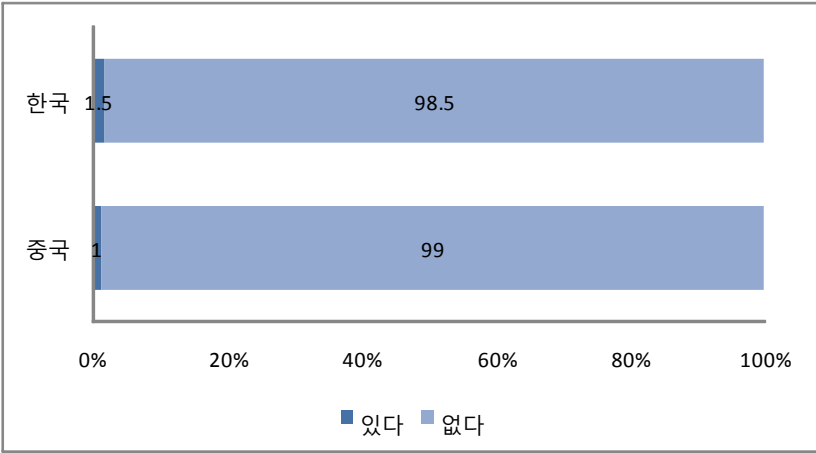


[그림 2-17] 상대국 여행 느낌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체류 경험과 체류과정에서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표2-19>, <표2-20>과 같이 응답하였다. 상대국에 대한 체류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한국(98.5%)과 중국(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체류 기간 중 상대국에 대한 느낌이 ‘좋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청소년(57.1%)과 중국청소년(47.4%) 두 집단 모두 비슷했다.

<표 2-19> 상대국 체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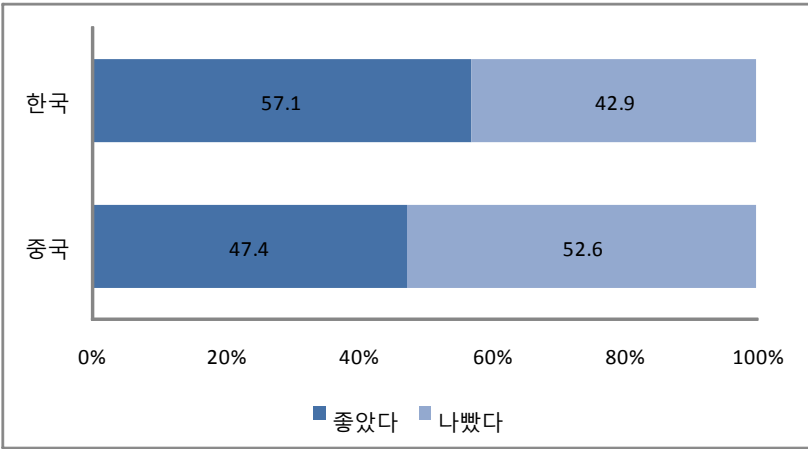
		있다	없다	계
한국	빈도(N)	15	981	996
	백분율(%)	1.5	98.5	100.0
중국	빈도(N)	10	961	971
	백분율(%)	1.0	99.0	100.0



[그림 2-18] 상대국 체류 경험

<표 2-20> 상대국 체류 느낌

		좋았다	나빴다	계
한국	빈도(N)	8	6	14
	백분율(%)	57.1	42.9	100.0
중국	빈도(N)	18	20	38
	백분율(%)	47.4	5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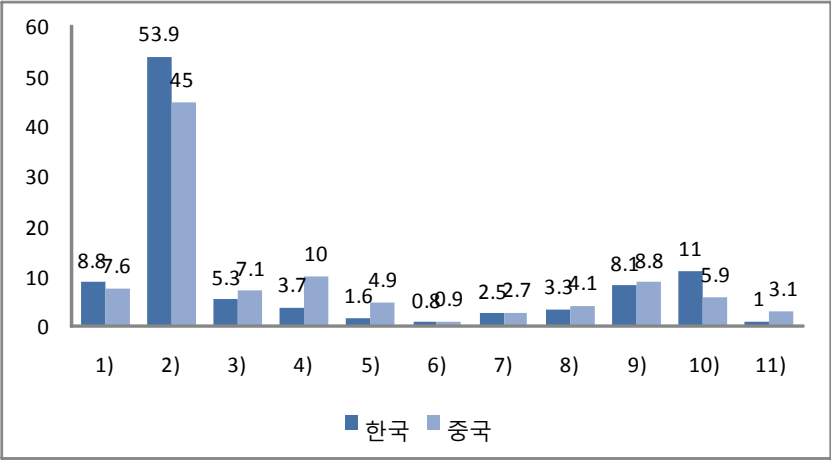
[그림 2-19] 상대국 체류 느낌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에 대한 체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표2-21>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에서 주로 경험하고 싶은 분야는 여행(53.9%)이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문화체험(11.0%), 어학연수(8.8%), 기업 인턴쉽(5.3%)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들 역시 한국에서 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은 여행(4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환학생(10.0%), 한·중청소년교류(8.8%), 어학연수(7.6), 기업 등에서 인턴쉽(7.1%)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으로 양국의 청소년교류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표 2-21> 상대국 체험 의사

		1)	2)	3)	4)	5)	6)	7)	8)	9)	10)	11)	계
한국	빈도(N)	89	543	53	37	16	8	25	33	82	111	10	1007
	백분율(%)	8.8	53.9	5.3	3.7	1.6	.8	2.5	3.3	8.1	11.0	1.0	100.0
중국	빈도(N)	67	398	63	88	43	8	24	36	78	52	27	884
	백분율(%)	7.6	45.0	7.1	10.0	4.9	.9	2.7	4.1	8.8	5.9	3.1	100.0

주. 1) 어학연수, 2) 여행, 3) 기업 등에서 인턴쉽, 4) 교환학생, 5) 유학, 6) 취업, 7) 봉사활동, 8) 한중청소년교류, 9) 쇼핑, 10)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 1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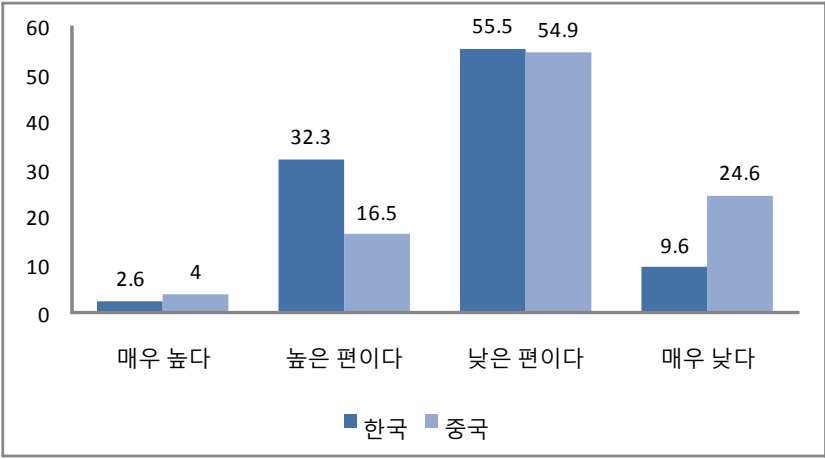
[그림 2-20] 상대국 체험 의사

5. 한반도 통일 및 한중관계 평가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통일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표2-22>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반도 통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한국청소년들은 34.9%인데 비해, 중국청소년들은 20.5%에 불과하였다. 또한 중국청소년들의 24.6%는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2-22> 한반도 통일가능성에 대한 전망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계
한국	빈도(N)	26	325	559	97	1007
	백분율(%)	2.6	32.3	55.5	9.6	100.0
중국	빈도(N)	40	164	545	244	993
	백분율(%)	4.0	16.5	54.9	2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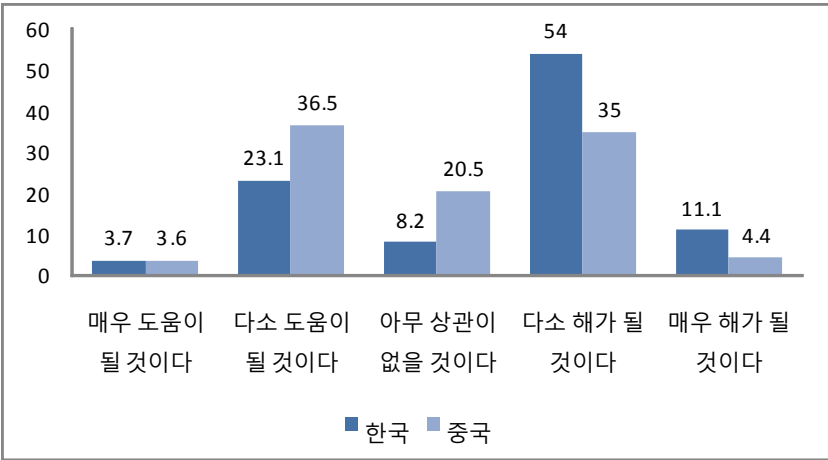
[그림 2-21] 한반도 통일 가능성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표2-23>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도움일 될 것으로 생각하

는 한국청소년들은 26.8%이며, 오히려 해가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65.1%였다. 반면 중국청소년들의 40.1%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도움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2-23>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소 해가 될 것이다	매우 해가 될 것이다	계
한국	빈도(N)	37	232	82	542	111	1004
	백분율(%)	3.7	23.1	8.2	54.0	11.1	100.0
중국	빈도(N)	35	355	199	341	43	973
	백분율(%)	3.6	36.5	20.5	35.0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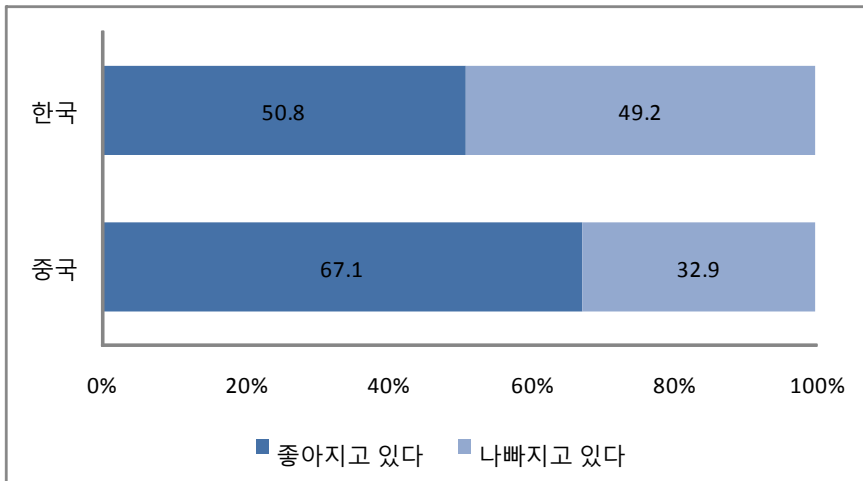


[그림 2-22]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최근 한·중 관계 변화를 묻는 질문에 <표 2-24>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청소년들은 최근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50.8%)’와 ‘나빠지고 있다(49.2%)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하지만 중국청소년들은 ‘좋아지고 있다(67.1%)’와 ‘나빠지고 있다(32.9%)로 응답하여 한국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 2-24> 최근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계
한국	빈도(N)	484	468	952
	백분율(%)	50.8	49.2	100.0
중국	빈도(N)	581	285	866
	백분율(%)	67.1	32.9	100.0



[그림 2-23] 최근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

6. 한중관계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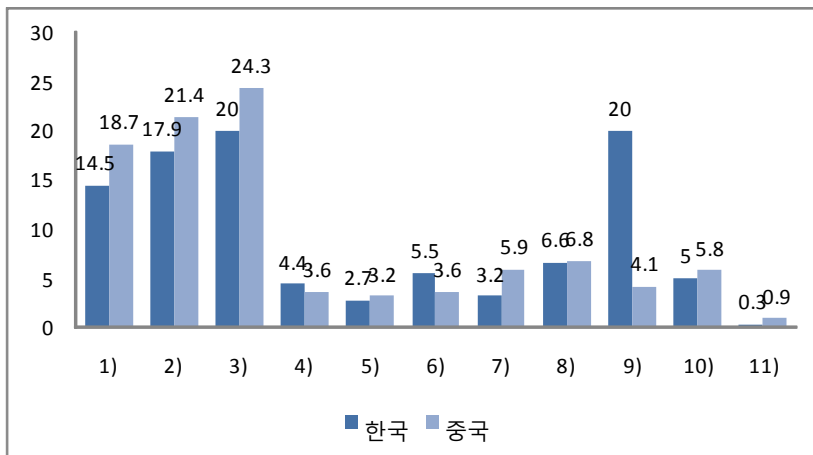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표2-25>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청소년들은 상호 객관적 이해(20%)와 역사와 영토문제 해결(20%)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17.9%)와 국민의 문화적 소양(14.5%)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국청소년들은 ‘상호 객관적 이해(24.3%),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21.4%), 그리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18.7%) 등을 중요한 분야로 응답하였다.

<표 2-25>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1)	2)	3)	4)	5)	6)	7)	8)	9)	10)	11)	계
한국	빈도(N)	275	338	377	84	52	104	61	124	377	94	7	1893
	백분율(%)	14.5	17.9	20.0	4.4	2.7	5.5	3.2	6.6	20.0	5.0	.3	100.0
중국	빈도(N)	354	406	461	69	61	98	112	129	77	110	18	1895
	백분율(%)	18.7	21.4	24.3	3.6	3.2	3.6	5.9	6.8	4.1	5.8	.9	100.0

주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2. 1) 국민의 문화적 소양, 2)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 3) 상호 객관적 이해, 4) 정례적 정상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 5) 학술교류, 6) 문화체육 교류, 7) 청소년 교류, 8)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정책협력, 9) 역사영토문제 해결, 10) 언론의 책임성, 1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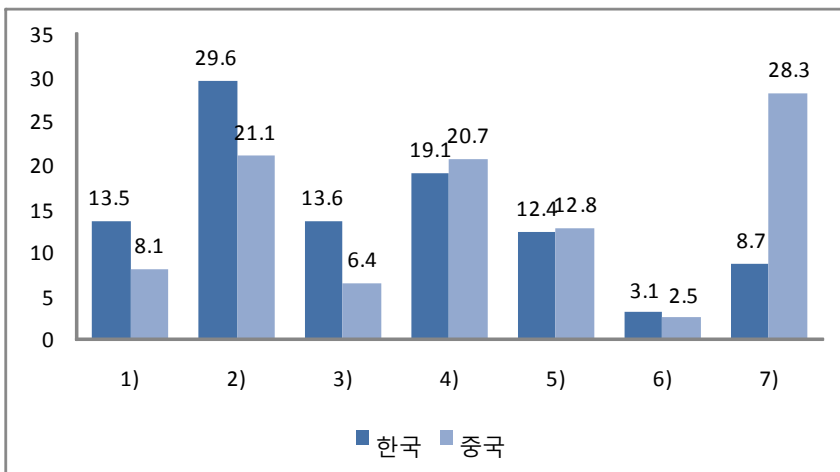
[그림 2-24]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같은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표2-26>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무역 및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29.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화·스포츠 교류(19.1%), 동아시아 역사이해 등 학술교류(13.6%), 정치 및 외교 분야 교류협력(13.5%), 청소년교류(12.4%) 등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청소년들은 ‘일하고 싶지 않다(28.3%)’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역 및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21.1%)과 문화·스포츠 교류(20.7%), 청소년교류(12.8%) 등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2-26>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야

		1)	2)	3)	4)	5)	6)	7)	계
한국	빈도(N)	133	292	134	189	123	31	86	988
	백분율(%)	13.5	29.6	13.6	19.1	12.4	3.1	8.7	100.0
중국	빈도(N)	71	184	56	181	112	22	247	873
	백분율(%)	8.1	21.1	6.4	20.7	12.8	2.5	28.3	100.0

주. 1)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교류협력, 2) 무역 및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3) 동북아 역사이해 등 학술교류, 4) 문화·스포츠 교류, 5) 청소년교류, 6) 기타, 7) 일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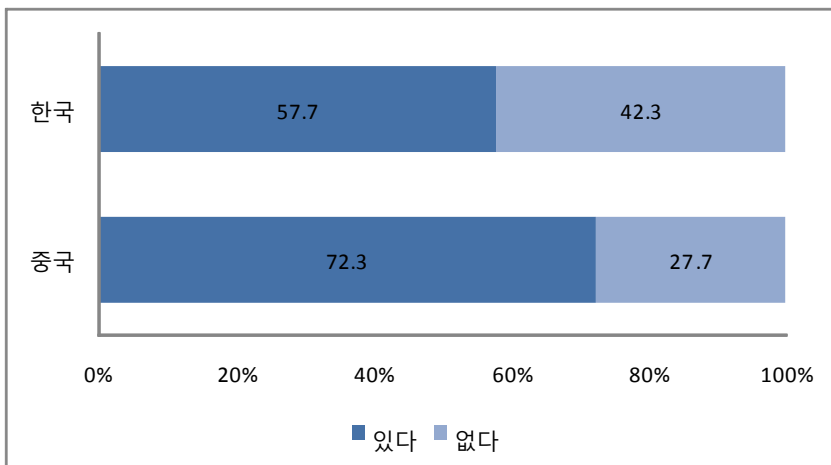
[그림 2-25]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야

제3절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 및 관련 요인

1.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실제 평가

<표 3-1>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에 대한 인지 여부(한)

		있다	없다	계
한국	빈도(N)	570	418	988
	백분율(%)	57.7	42.3	100.0
중국	빈도(N)	699	268	967
	백분율(%)	72.3	27.7	100.0



[그림 3-1]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에 대한 인지 여부

중국내의 혐한 정서(반한 감정,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결과는 <표 3-1>과 같다. 한국 청년은 57.7%가, 중국 청년은 72.3%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양국 청년 모두 중국의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국 청년의 인지도가 한국 청년보다 15% 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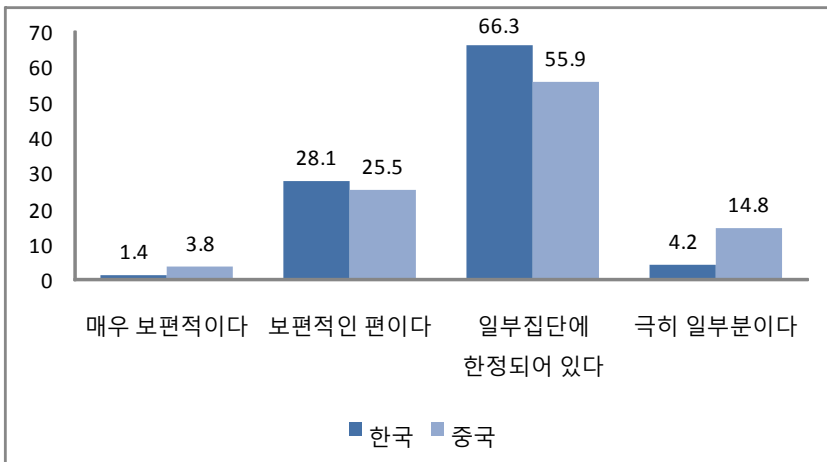
<표 3-2> 중국 청년의 배경변수별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 인지 여부

			있다	없다	χ^2 (p)
성	남자	N	351	112	5.508 (.019)
		%	75.8	24.2	
	여자	N	348	156	
		%	69.0	31.0	
신 분	대학생	N	532	183	6.156 (.013)
		%	74.4	25.6	
	대학 원생	N	167	85	
		%	66.3	33.7	
거 주 지 역	북경	N	159	60	6.997 (.136)
		%	72.6	27.4	
	상해	N	152	42	
		%	78.4	21.6	
	천진	N	118	59	
		%	66.7	33.3	
	광주	N	135	58	
		%	69.9	30.1	
	하얼빈	N	135	49	
		%	73.4	26.6	
전체	N		699	268	967
	%		72.3	27.7	100.0

중국 청년의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 인지여부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여자(69.0%)보다는 남자(75.8%)가, 대학원생(66.3%)보다는 대학생(74.4%)이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에 대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볼 때 상해(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하얼빈(73.4%), 북경(72.6%)이며 광주(69.9%), 천진(66.7%)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3>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편이다	일부집단에 한정되어 있다	극히 일부분이다	계
한 국	빈도(N)	8	160	377	24	569
	백분율(%)	1.4	28.1	66.3	4.2	100.0
중 국	빈도(N)	29	193	424	112	758
	백분율(%)	3.8	25.5	55.9	14.8	100.0



[그림 3-2]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한국에 대한 비우호 정서가 실제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지를 질문한 결과(표 3-3 참조), 한국 청년의 경우 ‘매우 보편적이다’ 1.4%, ‘보편적이다’ 28.1%로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총 29.5%였다.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응답이 66.3%,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응답이 4.2%로 총 70.5%의 응답자는 중국 내 비우호 정서를 중국 사회 일부 집단의 의견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청년의 응답결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매우 보편적이다’가 3.8%, ‘보편적이다’가 25.5%로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응답이 29.3%였다.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응답이 55.9%, ‘극히 일부분이다’는 응답이 14.8%로

총 70.7%의 응답자는 중국 사회 내 일부 집단의 의견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청년의 응답에서는 한국청년에 비해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응답률이 10% 포인트 가량 높아 중국 내 극히 일부 집단의 견해라는 점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이든, 중국이든 30%의 청년은 중국의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중국 청년의 배경변수별로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여자(21.9%)보다는 남자(36.8%)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대학생(29.5%)과 대학원생(28.8%)생 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거주지역별로는 천진(34.6%), 하얼빈(31.3%), 상해(30.1%), 북경(27.4%), 광주(23.9%) 순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인지도와 연관지어 볼 때, 상해, 북경 등 중심 도시에서 대한국 비우호정서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은 이들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중국청년의 배경변수별 대한국 비우호 정서에 대한 실재 평가

			매우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편이다	일부집단에 한정되어 있다	극히 일부분이다	x ² (p)
성	남자	N	20	119	194	45	22.038 (.000)
		%	5.3	31.5	51.3	11.9	
	여자	N	9	74	230	67	
		%	2.4	19.5	60.5	17.6	
신 분	대학생	N	24	146	328	79	3.006 (.391)
		%	4.2	25.3	56.8	13.7	
	대학 원생	N	5	47	96	33	
		%	2.8	26.0	53.0	18.2	
거 주 지 역	북경	N	8	38	90	32	24.440 (.018)
		%	4.8	22.6	53.6	19.0	
	상해	N	1	46	82	27	
		%	.6	29.5	52.6	17.3	

	천진	N	8	39	79	10	
		%	5.9	28.7	58.1	7.4	
	광주	N	3	33	87	28	
		%	2.0	21.9	57.6	18.5	
	하얼빈	N	9	37	86	15	
		%	6.1	25.2	58.5	10.2	
전체		N	29	193	424	112	758
		%	3.8	25.5	55.9	14.8	100.0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청년의 응답결과는 <표 3-5>와 같다.

한국 청년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으로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대한국 우월감’(29.7%), ‘중국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대한국 인식 왜곡’(20.1%), ‘한국과의 역사 및 영토분쟁(가능성 포함)’(13.2%), ‘중국 네티즌의 비이성적 비방’(12.6%), ‘중국내의 민족주의 정서 고양’(9.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중국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왜곡을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청년들은 ‘한국인들의 대중국 편견 및 우월감’(22.6%), 한국의 중국문화 재산권에 대한 마찰과 왜곡(22.8%)을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중국 내 과도한 민족주의 표출 행위’(16.0%), ‘한국 언론의 과장되고 무책임한 보도’(12.1%), ‘중국 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지’(11.9%), ‘한국 네티즌의 비이성적 비방’(10.0%) 순으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표 3-6 참조).

양국 청년 모두 상대국의 자국에 대한 우월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한중 국민 간 ‘민족주의, 국가적 자존심’이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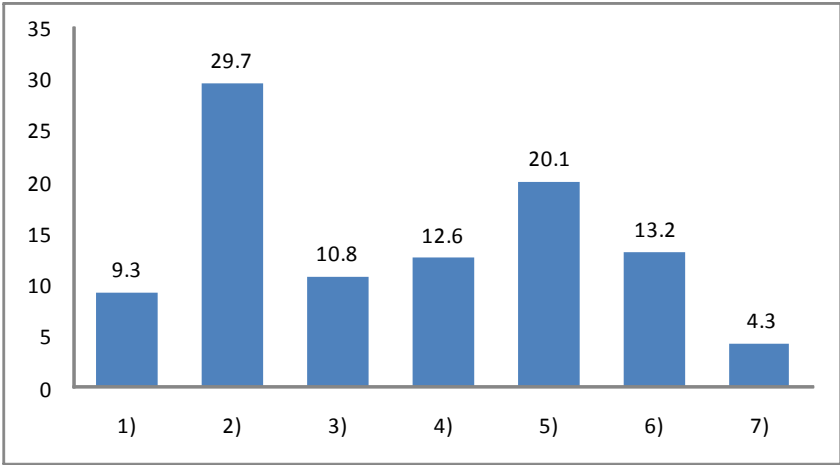
중국 청년들은 ‘중국문화 재산권에 대한 마찰과 왜곡’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측 동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청년들은 중국의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을 ‘한국과의 역

사·영토분쟁(가능성 포함)’에 두고 있어 한·중 청년간의 인식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3-5>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 평가(한)

	1)	2)	3)	4)	5)	6)	7)	계
빈도(N)	43	137	50	58	93	61	20	462
백분율(%)	9.3	29.7	10.8	12.6	20.1	13.2	4.3	100.0

주. 1) 중국내의 민족주의 정서 고양, 2) 중국인들의 전통적 대한민국 우월감, 3) 한류의 일방성에 대한 거부감, 4) 중국 네티즌들의 비이성적 비방, 5) 중국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대한민국 인식 왜곡, 6) 한국과의 역사 및 영토분쟁(가능성 포함),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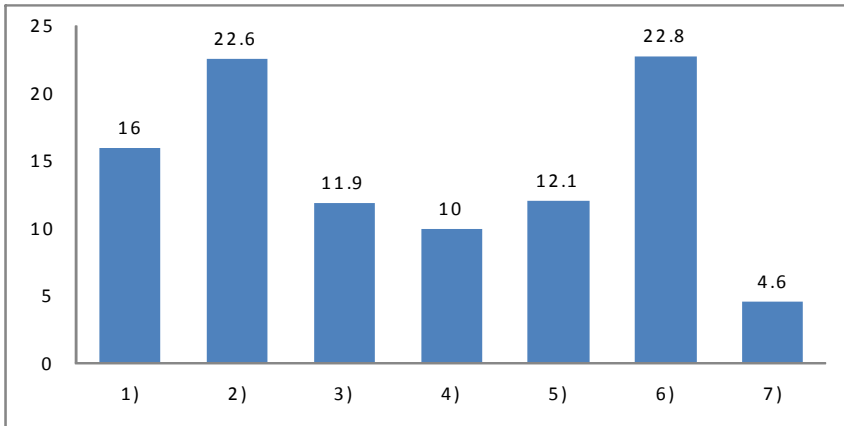


[그림 3-3]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 평가(한)

<표 3-6>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 평가(중)

	1)	2)	3)	4)	5)	6)	7)	계
빈도(N)	202	285	150	126	153	288	58	1262
백분율(%)	16.0	22.6	11.9	10.0	12.1	22.8	4.6	100.0

주1. 본 문항은 중복응답자가 많아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자료는 전체 응답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2. 1) 한국인들의 중국내 과도한 민족주의 표출행위, 2)한국인들의 대중국 편견 및 우월감, 3) 중국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지, 4) 한국 네티즌들의 비이성적 비방, 5) 한국 언론의 과장되고 무책임한 보도, 6) 한국의 중국 문화재산권에 대한 마찰과 왜곡, 7) 기타



[그림 3-4]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원인 평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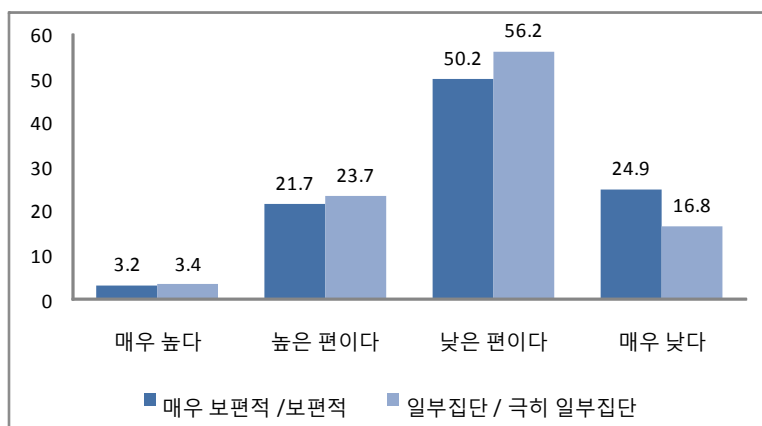
2. 한국에 대한 관심, 경험, 이해 정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한국에 대한 관심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교차분석결과는 <표 3-7>, <그림 3-5>와 같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관계는 자신의 한국에 대한 ‘관심’수준이 ‘높다’ 또는 ‘낮은 편이다’라고 평가한 집단일수록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 이라기 보다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다. 그러나 자신의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을 매우 낮다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이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응답보다 더 많다. 즉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집단일수록 대한국 비우호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한국에 대한 관심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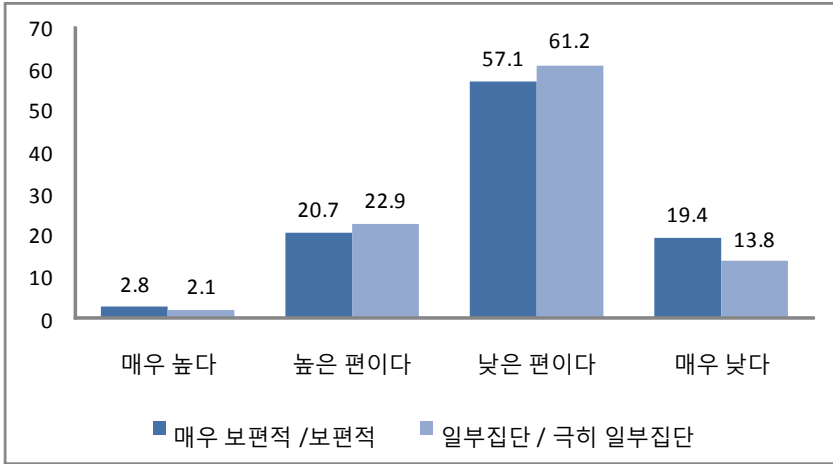
비우호 정서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7	48	111	55	6.647 (.084)
	%	3.2	21.7	50.2	24.9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18	127	301	90	
	%	3.4	23.7	56.2	16.8	
전체	N	25	175	412	145	757
	%	3.3	23.1	54.4	19.2	100.0



[그림 3-5] 한국에 대한 관심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8 >한국에 대한 이해수준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6	45	124	42	4.145 (.246)
	%	2.8	20.7	57.1	19.4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11	121	324	73	
	%	2.1	22.9	61.2	13.8	
전체	N	17	166	448	115	746
	%	2.3	22.3	60.1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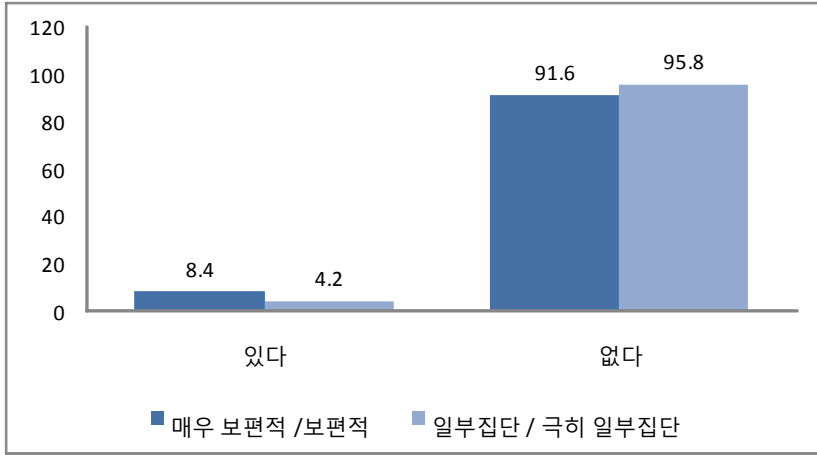


[그림 3-6] 한국에 대한 이해수준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3-8>, <그림 3-6>과 같다. 한국에 대한 이해수준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에 대한 평가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9> 한국 여행 경험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있다	없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18	196	5.349 (.021)
	%	8.4	91.6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22	505	
	%	4.2	95.8	
전체	N	40	701	741
	%	5.4	9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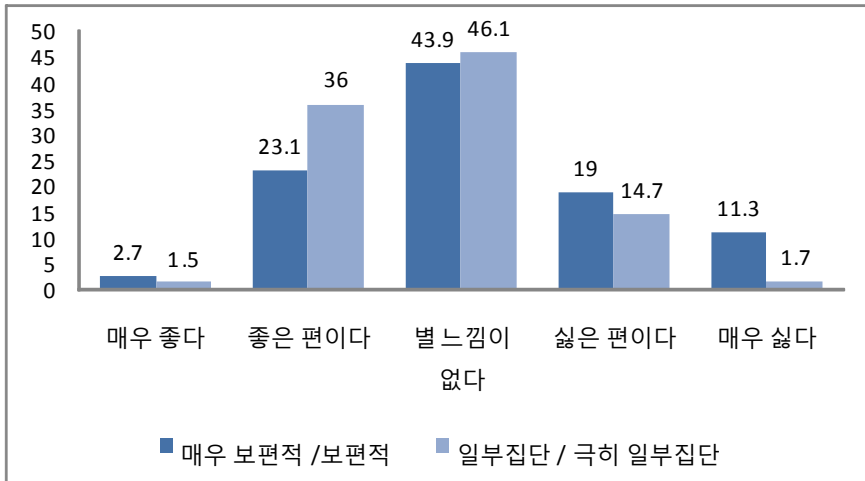
[그림 3-7] 한국 여행 경험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9>, <그림 3-7>은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한국여행 경험의 유무와 관련지어 본 것이다. <표 3-9>, <그림 3-7>에 의하면 한국여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으며 한국 여행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다.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오히려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 점이 유의할 점이다.

3.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0>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6	51	97	42	25	43.658 (.000)
	%	2.7	23.1	43.9	19.0	11.3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8	193	247	79	9	
	%	1.5	36.0	46.1	14.7	1.7	
전체	N	14	244	344	121	34	757
	%	1.8	32.2	45.4	16.0	4.5	100.0



[그림 3-8]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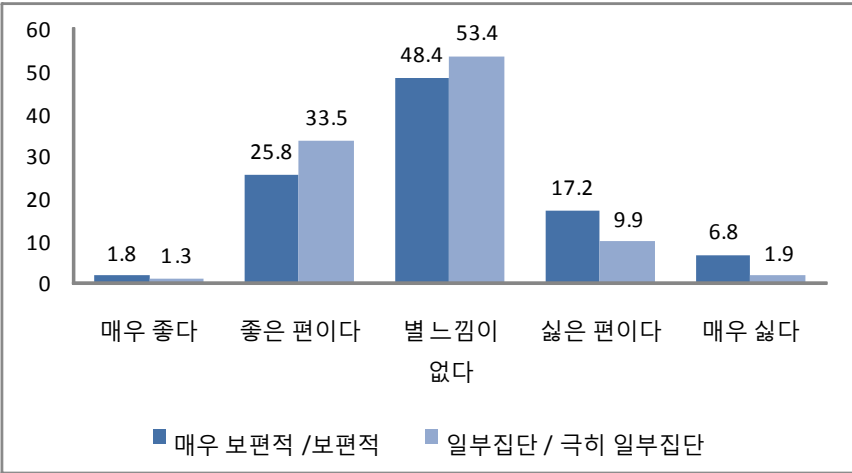
<표 3-10>, <그림 3-8>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에서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25.8%이며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37.5%이다. 한국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질수록 대한국 비우호정서를 ‘일부 집단’의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는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보편적’(43.9%)이라는 응답보다는 ‘일부 집단’(46.1%)의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에 한국에 대해 ‘싫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30.3%,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16.4%로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약 2배 정도 되었다.

대한국 비우호 정서가 중국사회에서 보편적이냐 일부 집단의 것이냐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집단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 대한 영역별 호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그림 3-9>는 한국정부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3-11> 한국 정부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4	57	107	38	15	22.249 (.000)
	%	1.8	25.8	48.4	17.2	6.8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7	179	285	53	10	
	%	1.3	33.5	53.4	9.9	1.9	
전체	N	11	236	392	91	25	755
	%	1.5	31.3	51.9	12.1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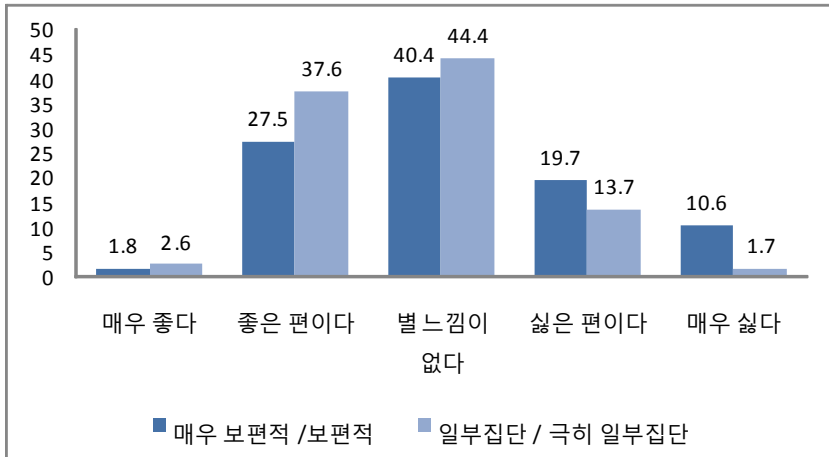


[그림 3-9] 한국 정부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한국정부에 대해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등 호감도를 가진 경우, 또한 ‘별 느낌이 없다’ 등 중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내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에 국한된 부분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고 반대로 한국 정부에 대해 ‘매우 싫다’ 또는 ‘싫은 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표 3-12> 한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4	60	88	43	23	37.549 (.000)
	%	1.8	27.5	40.4	19.7	10.6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14	200	236	73	9	
	%	2.6	37.6	44.4	13.7	1.7	
전체	N	18	260	324	116	32	750
	%	2.4	34.7	43.2	15.5	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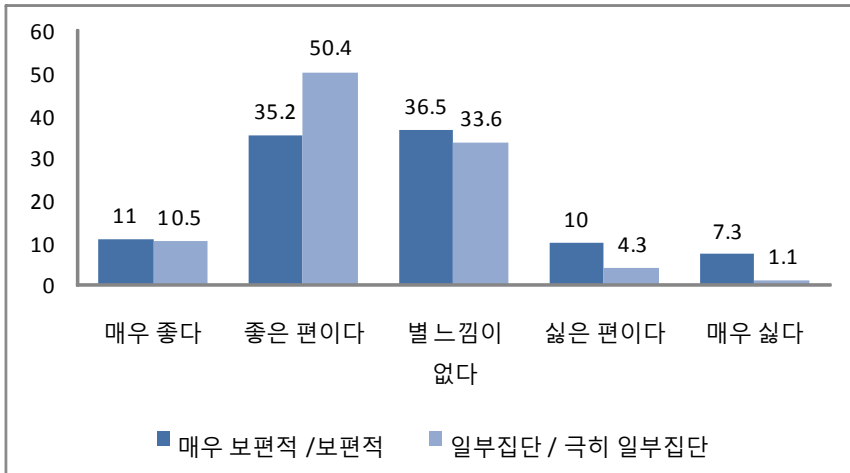


[그림 3-10] 한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2>, <그림 3-10>의 한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3>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24	77	80	22	16	36.912 (.000)
	%	11.0	35.2	36.5	10.0	7.3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56	268	179	23	6	
	%	10.5	50.4	33.6	4.3	1.1	
전체	N	80	345	259	45	22	532
	%	10.7	45.9	34.5	6.0	2.9	100.0



[그림 3-11]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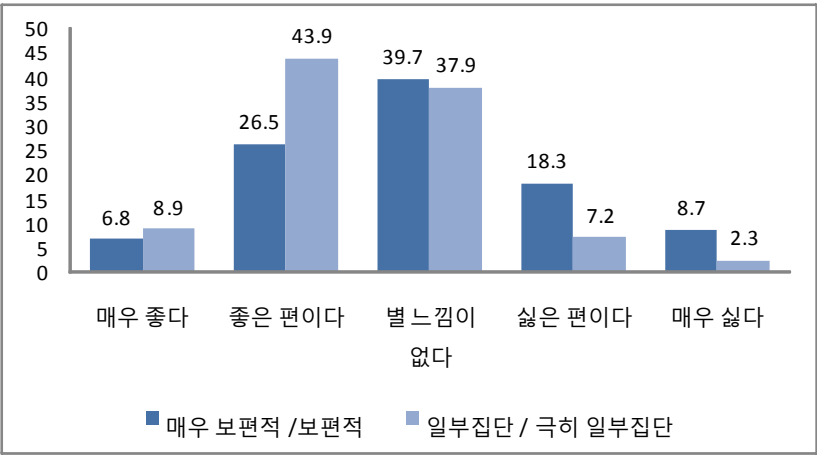
<표 3-13>, <그림 3-11>은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정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한국기업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진 집단일수록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있는 부분적인 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싫다’고 응답하는 집단일수록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은 한국,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와 교차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에는 대한민국 비우호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응답이 36.5%,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경우가 33.6%로 미소한 차이나나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왔다.

<표 3-14>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15	58	87	40	19	46.825 (.000)
	%	6.8	26.5	39.7	18.3	8.7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47	233	201	38	12	
	%	8.9	43.9	37.9	7.2	2.3	
전체	N	62	291	288	78	31	750
	%	8.3	38.8	38.4	10.4	4.1	100.0



[그림 3-12]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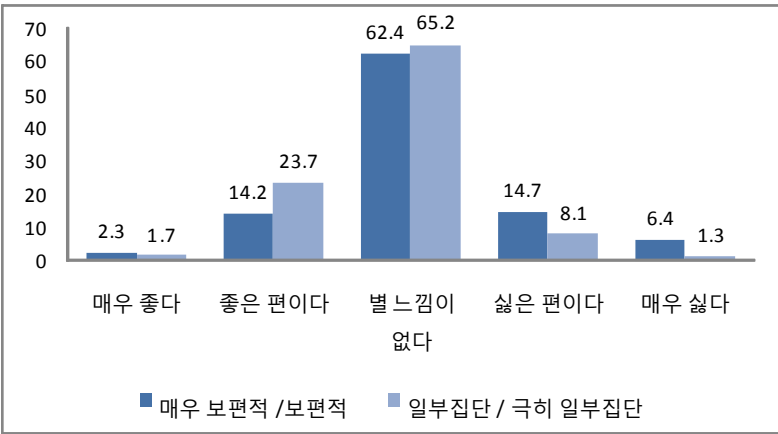
<표 3-14>, <그림 3-12>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매우 좋다’나 ‘좋은 편이다’ 등 호감을 갖고 있는 가진 집단에서는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매우 싫다’나 ‘싫은 편이다’ 등 비우호적 감정을 가진 집단에서는 대한민국 비우호 정

서를 ‘일부 집단’에 있다고 보기보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집단에서는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영역별 호감도에서 한국기업(57.8%), 대중문화(50.3%)는 가장 중국 청년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영역이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던 영역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 중에 한국에 대한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3-15> 상대국(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 느낌이 없다	싫은 편이다	매우 싫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5	31	136	32	14	28.191 (.000)
	%	2.3	14.2	62.4	14.7	6.4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9	126	346	43	7	
	%	1.7	23.7	65.2	8.1	1.3	
전체	N	14	157	482	75	21	749
	%	1.9	21.0	64.4	10.0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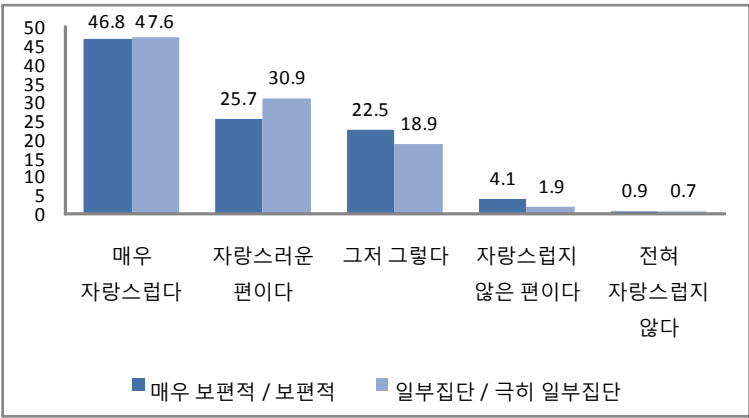
[그림 3-13]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5>, <그림 3-13>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앞에서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중립적인 느낌을 가진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4. 중국 및 한국의 국력에 대한 인식과 한국에 대한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6> 자국(중국인)에 대한 자긍심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104	57	50	9	2	5.511 (.239)
	%	46.8	25.7	22.5	4.1	.9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254	165	101	10	4	
	%	47.6	30.9	18.9	1.9	.7	
전체	N	358	222	151	19	6	756
	%	47.4	29.4	20.0	2.5	.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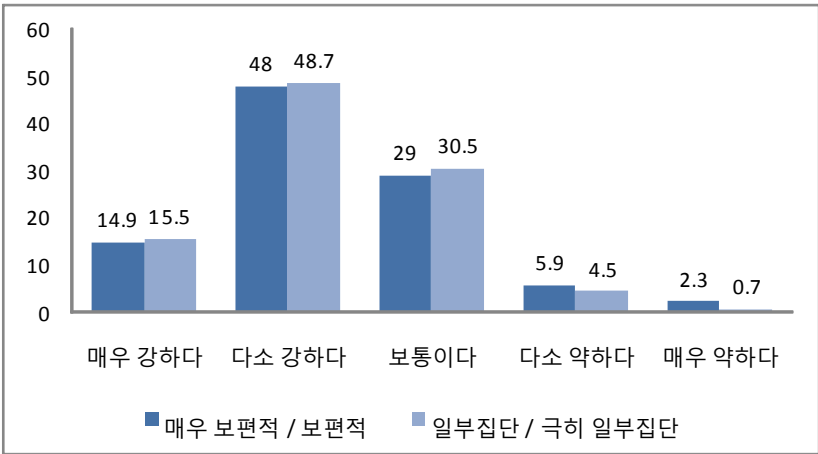


[그림 3-14] 자국(중국)에 대한 자긍심과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6>, <그림 3-14>는 중국 청년의 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3-16>에 의하면 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자국(중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강하다	다소 강하다	보통이다	다소 약하다	매우 약하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33	106	64	13	5	3.800 (.434)
	%	14.9	48.0	29.0	5.9	2.3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83	260	163	24	4	
	%	15.5	48.7	30.5	4.5	.7	
전체	N	116	366	227	37	9	755
	%	15.4	48.5	30.1	4.9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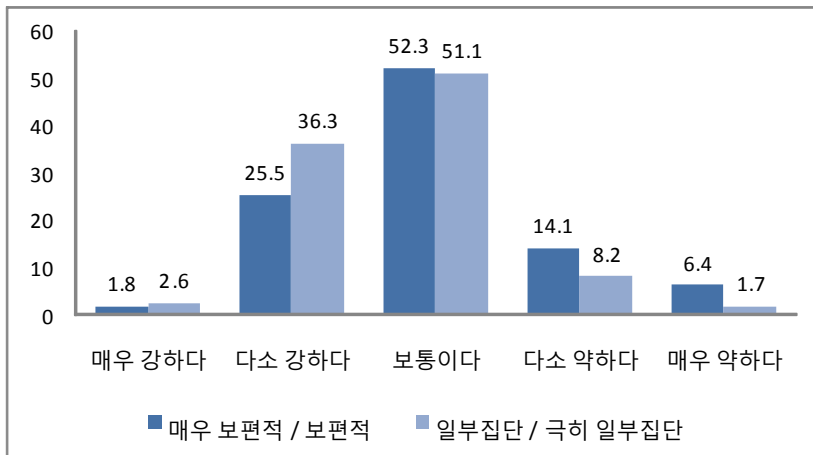


[그림 3-15] 자국(중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자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3-17>, <그림 3-15>와 같다. 자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8> 한국 국력 평가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강하다	다소 강하다	보통 이다	다소 약하다	매우 약하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4	56	115	31	14	22.561 (.000)
	%	1.8	25.5	52.3	14.1	6.4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14	194	273	44	9	
	%	2.6	36.3	51.1	8.2	1.7	
전체	N	18	250	388	75	23	754
	%	2.4	33.2	51.5	9.9	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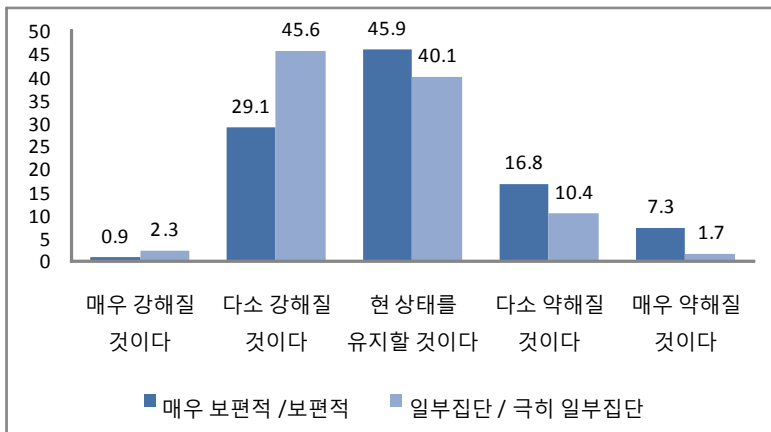


[그림 3-16] 한국에 대한 평가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8>과 <그림 3-16>은 한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의 국력을 ‘매우 강하다’, ‘강하다’고 강하게 평가한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27.3%)이라기 보다 ‘일부 집단’(38.9%)의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반대로 한국의 국력을 ‘매우 약하다’나 ‘다소 약하다’로 약하게 평가한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9.9%)이 아닌 ‘보편적’(20.5%)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국력을 강하게 평가할수록 중국사회 내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의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 3-19> 향후 한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매우 강해질 것이다	다소 강해질 것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다소 약해질 것이다	매우 약해질 것이다	χ^2 (p)
매우보편적 보편적	N	2	64	101	37	16	32.814 (.000)
	%	.9	29.1	45.9	16.8	7.3	
일부집단 극히 일부집단	N	12	241	212	55	9	
	%	2.3	45.6	40.1	10.4	1.7	
전체	N	14	305	313	92	25	749
	%	1.9	40.7	41.8	12.3	3.3	100.0



[그림 3-17] 향후 한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표 3-19>, <그림 3-17>는 향후 한국 국력에 대한 평가와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표 3-19>에 의하면 향후 한국 국력을 어떻게 보는 지에 따라 한국에 대한 비우호정서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한국의 국력이 ‘매우 강해질 것이다’, 또는 ‘다소 강해질 것이다’ 등 강해질 것으로 보는 집단에서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30.0%)이라기 보다 ‘일부 집단’(47.9%)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국력을 ‘매우 약해질 것이다’, ‘다소 약해질 것이다’ 등 약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대한국 비우호 정서가 ‘일부 집

단'(12.1%)의 것이라기 보다는 '보편적'(24.1%)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집단'(40.1%)의 것이라기 보다 '보편적'(40.1%)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했다.

중국 사회 내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가 어느 정도로 공유되고 있는 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중국 청년의 72.3%는 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들어 본 사람 중 29.3%는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가 중국 사회에 보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중국사회 내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은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여행 경험', '한국에 대한 호감도', '한국의 국력 및 향후 한국의 국력에 대한 평가' 등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한국 여행 경험이 없을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 또한 정부, 기업, 대중문화, 국민, 제품 등 한국사회 제 영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중국 사회 내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인 것이라기 보다 '일부 집단'의 것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또한 '한국의 국력' 및 '향후 한국의 국력'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또한 중국사회 내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보편적'이라기 보다 '일부 집단'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을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 및 한국 사회 제 영역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수록, 한국의 현재 국력 및 향후 한국의 국력을 약하거나 약해질 것이라고 평가할수록 중국 사회 내 대한민국 비우호 정서를 '일부 집단'이라기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韩中青年对对方国家的认识及态度调查结果分析(摘要)

尹彻庆、吴海燮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此次研究是经过“韩中青年对对方国家的认识及态度”的调查，为了日后加强两国青年之间的交流与作用为目的展开的。本次调查研究是从2011年5月20日到6月10日，在韩国与中国5大城市的5个大学¹⁾中以大学本科生与研究生总计2016名学生为调查对象而进行的。

《表1》调查对象的特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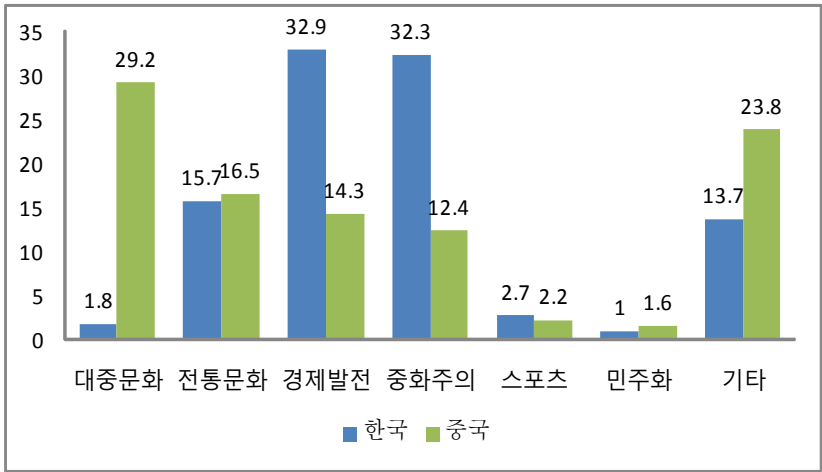
		韩国		中国		总计	
		N	%	N	%	N	%
性别	男	506	50.0	483	48.2	989	49.1
	女	507	50.0	520	51.8	1027	50.9
年龄	10~19	224	22.1	157	15.7	381	18.9
	20~29	688	67.9	829	82.7	1517	75.2
	30岁以上	101	10.0	17	1.7	118	5.9
身份	本科生	763	75.3	746	74.4	1509	74.9
	研究生	250	24.7	257	25.6	507	25.1
收入 水平	上	62	6.1	28	2.8	90	4.5
	中	836	82.3	701	69.9	1537	76.2
	下	115	11.4	274	27.3	389	19.3
居住地	北京	-	-	226	22.5	226	11.2
	上海	-	-	197	19.6	197	9.8
	天津	-	-	190	18.9	190	9.4
	广州	-	-	199	19.8	199	9.9
	哈尔滨	-	-	191	19.0	191	9.5
	首尔	213	21.0	-	-	213	10.6

1) 具体来讲中国5大城市5所大学分别是：北京的北京大学、天津的天津大学、哈尔滨的哈尔滨工业大学、广州的中山大学、上海的复旦大学，本科生与研究生共1003名；韩国的5大城市5所大学是：首尔的首尔大学、釜山的东亚大学、大邱的京北大学、大田的忠南大学、光州的全南大学，本科应届生与研究生共1013名。

	釜山	199	19.6	-	-	199	9.9
	大邱	200	19.7	-	-	200	9.9
	大田	196	19.3	-	-	196	9.7
	光州	205	20.2	-	-	205	10.2
总计		1013	100.0	1003	100.0	2016	100.0

1. 对对方国家的印象与关心程度

为了解对对方国家的印象与关心程度而提出的“说到韩国或中国第一个能想起来的是什么”问题，回答如《表2-1》。首先韩国青年对中国的印象中占比例最多的是经济发展（32.9%）和中华主义（32.3%），所占比例最小的是大众文化（1.8%）和民族化（1.0%）。相反，中国青年对韩国的印象当中所占比例最多的是韩国的大众文化（29.2%）。相反，中国青年对韩国的印象当中所占比例最多的是韩国的大众文化（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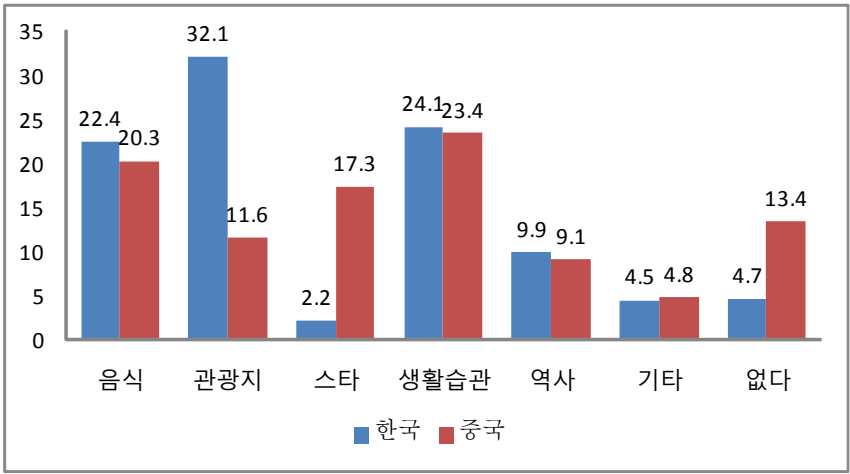


《图1》对对方国家的印象

蓝色为韩国，绿色为中国。其内容依次是：大众文化、传统文化、经济发展、中华主义、体育、民主化、其他

其次，对对方国家关心领域的提问中韩国青年对中国的旅游胜地（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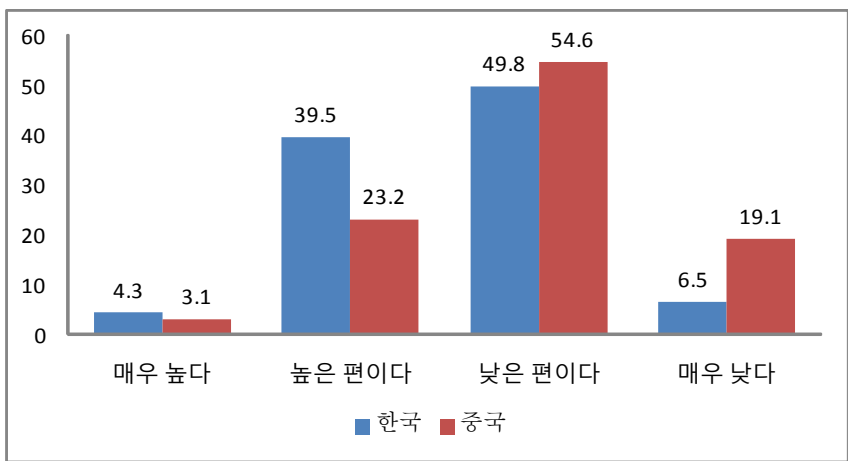
1%)、生活习惯(24.1%)、饮食(22.4%)等领域关注较多,中国青年的选择则相对集中在韩国的生活习惯(23.4%)与饮食(20.7%)等领域。虽然韩国青年对中国的旅游胜地非常关心,但对大众明星(2.2%)的关注却甚少,而中国青年虽然对韩国的大众明星(17.3%)关注程度非常高,但对韩国的旅游胜地(11.6%)的关注却相对低。



《图二》对对方国家的关心领域

蓝色为韩国, 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饮食、旅游胜地、明星、生活习惯、历史、其他、没有

综合对对方国家的关心度来看,相对韩国青年对中国关心度较高(43.3%)的程度而言,中国青年表示对韩国关心度较高只有26.3%。而且回答对中国关心度较低的韩国青年只有6.5%,而中国青年却有19.1%的调查对象回答对韩国关心度低。



《图3》对对方国家的关心度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非常高、比较高、比较低、非常低。

2. 对对方国家的好感度。

为了解对对方国的好感度而提出的“包括韩国或中国在内，对美国、日本、北朝鲜等国家的好感度是怎样的？”问题，韩国青年的态度是依次美国（71.4%）、日本（52.9%）、中国（20.0%）、北朝鲜（10.9%）为顺序表示了好感度（非常好/比较好）。中国青年也是依次美国（68.2%）、日本（41.2%）、韩国（37.3%）、北朝鲜（16.9%）为顺序表示了好感度。中国青年最不喜欢的国家是日本（9.7%）和北朝鲜（8.7%），之后是韩国（3.9%）和美国（1.6%）。

《表2》对对方国家以及其他国的好感度（韩国）

		非常好	比较好	没感觉	不喜欢	非常不喜欢	计
美国	N	117	605	187	88	14	1011
	%	11.6	59.8	18.5	8.7	1.4	100.0
日本	N	67	468	195	212	69	1011

	%	6.6	46.3	19.3	21.0	6.8	100.0
北朝鲜	N	3	107	371	348	180	1009
	%	.3	10.6	36.8	34.5	17.8	100.0
中国	N	10	192	517	261	31	1011
	%	1.0	19.0	51.1	25.8	3.1	100.0

另外，为了解对对方国家各个领域的好感度而提出的“对韩国或中国的政府、企业、国民、大众文化有什么感觉？”问题，答案如《表4》和《表5》。首先关于对中国的好感度问题，韩国青年的回答是对中国的大众文化（34.9%）和国民（25%）是比较肯定的（非常好/比较好）。但是对于中国的政府与企业，“没感觉”或“比较不喜欢”的回答达到了80%。尤其是对中国的产品，否定的回答（不喜欢/非常不喜欢）68.5%远远高于肯定的回答（3.4%）。这表明韩国青年对中国的政治与企业体制以及对产品质量的认识仍然带有强烈的否定情绪。

《表4》对对方国家（中国）各领域的好感度（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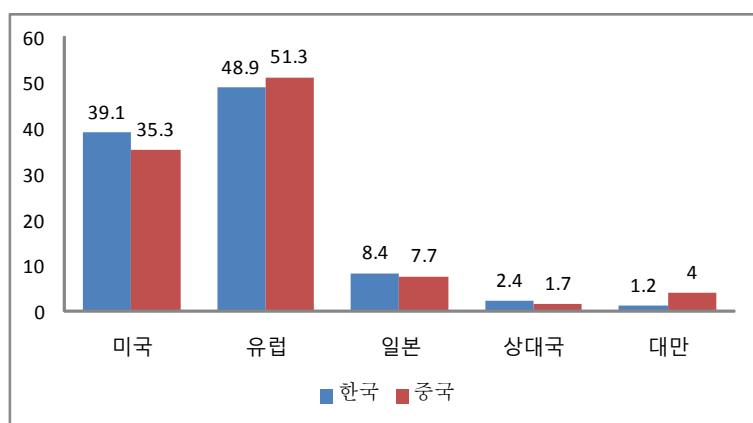
		非常好	比较好	没感觉	不喜欢	非常不喜欢	计
政府 好感度	N	4	78	426	420	83	1011
	%	.4	7.7	42.1	41.5	8.2	100.0
国民 好感度	N	15	237	525	207	26	1010
	%	1.5	23.5	52.0	20.5	2.6	100.0
企业 好感度	N	6	149	516	283	56	1010
	%	.6	14.8	51.1	28.0	5.5	100.0
大众文化 好感度	N	26	326	527	118	13	1010
	%	2.6	32.3	52.2	11.7	1.3	100.0
产品 好感度	N	1	33	282	588	102	1006
	%	.1	3.3	28.0	58.4	10.1	100.0

对于韩国各领域好感度的提问中，中国青年的回答依次是韩国的企业（57.8%）、大众文化（50.3%）、国民（42.1%）、政府（35.7%）、产品（25.6%）为顺序，基本上是予以肯定的。另外，对4个领域的否定认识（不喜欢/非常不喜欢）依次是国民（16.9%）、政府（13.3%）、大众文化（13.2%）、产品（11.4%）、企业（8.1%）。

《表5》对对方国家（韩国）各领域的好感度（中）

		非常好	比较好	没感觉	不喜欢	非常不喜欢	计
政府 好感度	N	16	340	508	106	27	997
	%	1.6	34.1	51.0	10.6	2.7	100.0
国民 好感度	N	31	386	406	133	35	991
	%	3.1	39.0	41.0	13.4	3.5	100.0
企业 好感度	N	111	462	338	54	27	992
	%	11.2	46.6	34.1	5.4	2.7	100.0
大众文化 好感度	N	87	411	362	94	37	991
	%	8.8	41.5	36.5	9.5	3.7	100.0
产品 好感度	N	18	236	624	86	27	991
	%	1.8	23.8	63.0	8.7	2.7	100.0

为了解韩中两国青年对各个国家或地区的好感度而提出的“如果就职于海外，你最想去的国家或地区是哪里？”问题，韩国青年就业意向高的国家分别是欧洲（48.9%）和美国（39.1%），相反日本（8.4%）、中国（2.4%）、台湾（1.2%）等国家和地区所占的比例非常低。从中国青年的海外就业意向来看也是倾向于欧洲（51.3%）和美国（35.3%），就职于韩国企业的意向只有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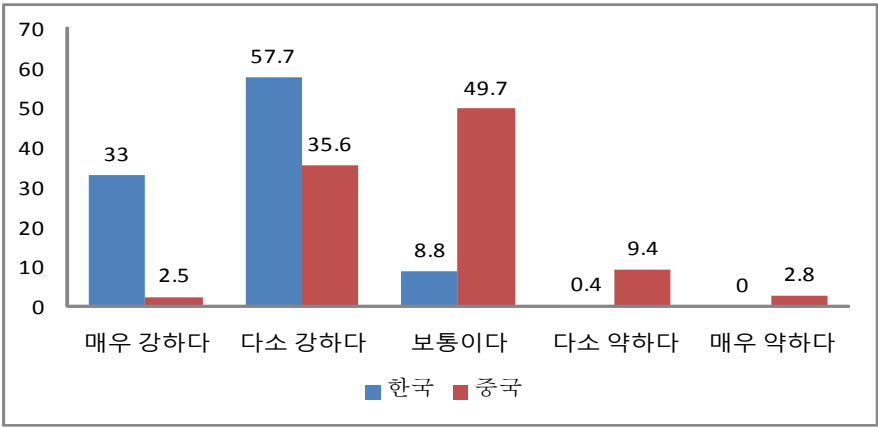


《图4》海外就业意向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美国、欧洲、日本、对方国家、台湾

3. 对对方国家国力的评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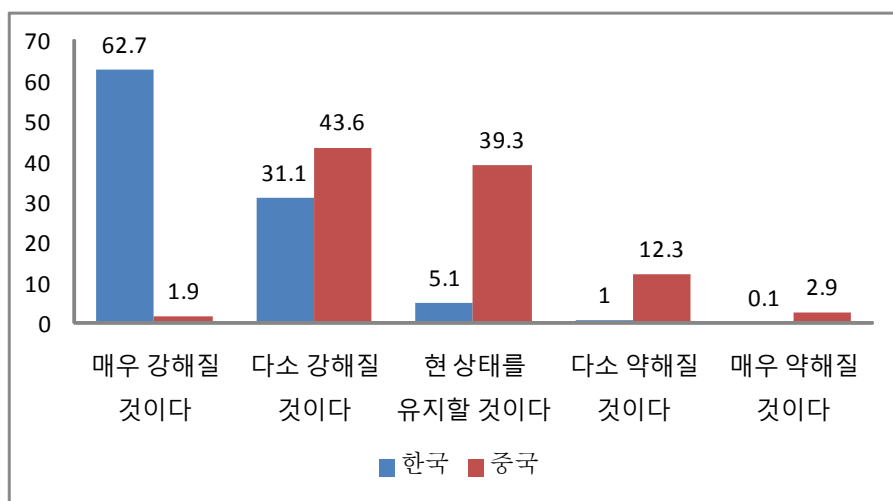
关于为了了解对对方国家国力的认识而提出的“怎么评价对方国家现在或未来的国力？”问题，韩国青年的回答中中国国力“非常强”占33.0%，“比较强”占57.7%。与此相比，中国青年对韩国国力的看法是“比较强”占35.6%，一般占49.7%。



《图5》对对方国家国力的评价

蓝色为韩国，红色为韩国。内容依次是：
非常强、比较强、一般、比较弱、非常弱

另外，对未来对方国家国力的预测中，韩国青年的回答是“会非常强大”占62.7%、“会增强一些”占31.1，表明韩国青年对中国国力未来的发展是予以肯定的。相对而言，中国青年对韩国国力未来发展的态度是“会增强一些”（43.6%）和“会维持现状”（39.3%）的比例占多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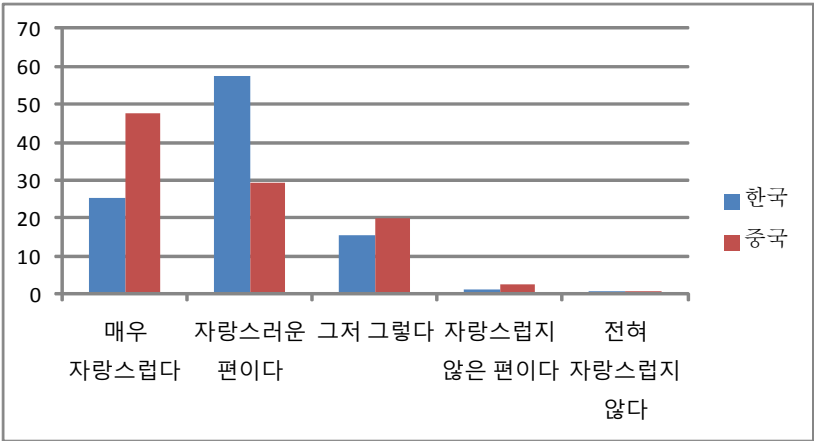


《图六》对未来对方国家国力的评价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会非常强大、会增强一些、会维持现状、会削弱一些、会变得很弱

4. 对自己国家的认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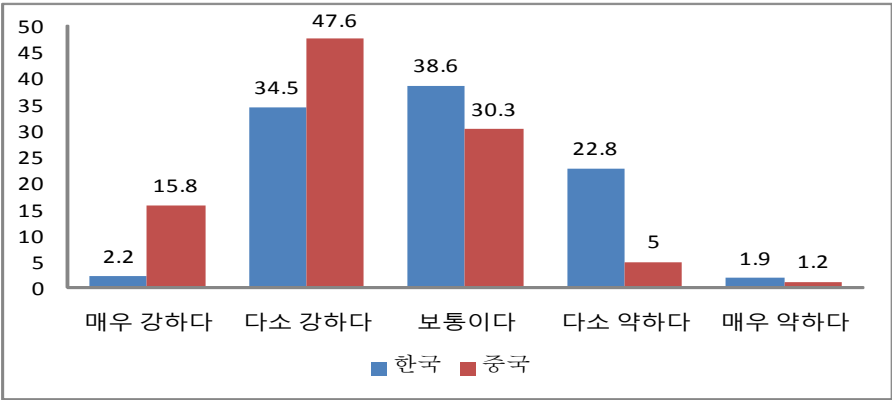
关于韩中两国青年对自己国家的自豪心理，大多数韩国青年（82.8%）和中国青年（76.9%）认为自己作为韩国人或中国人而感到自豪。但觉得非常自豪的比重在韩国青年中占25.2%，而中国青年却占47.7%。



《图7》对自己祖国的自豪心理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非常自豪、有点自豪、一般、不怎么自豪、不自豪

同一思路出发，当问及两国青年对自己国家国力的看法时，韩国青年中有36.7%觉得韩国国力强，但也有24.7%的韩国青年觉得自己国家的国力现在还很弱。相反，63.4%中国青年觉得中国国力是强的，觉得中国国力弱的人只有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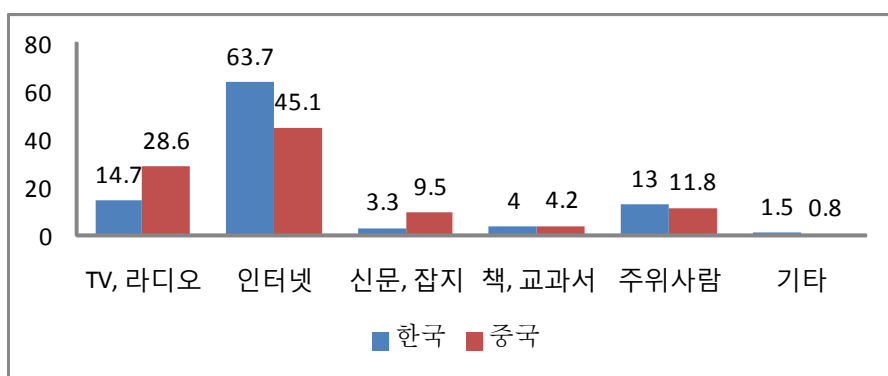


《图8》对自己国家国力的评价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非常强、比较强、一般、比较弱、非常弱

5. 认识对方国家的程度

在韩中两国青年如何（以何种渠道）知道对方国家的信息这一问题上，韩国青年的回答是网络占63.7%、电视与广播占14.7%、周围的人占13.0%。中国青年也是依次网络（45.1%），电视与广播（28.6%），周围的人（11.8%）顺序做出了回答，说明了两国青年之间的相似之处。但中国青年依靠电视与广播、报纸、杂志等传统渠道的比重比韩国青年要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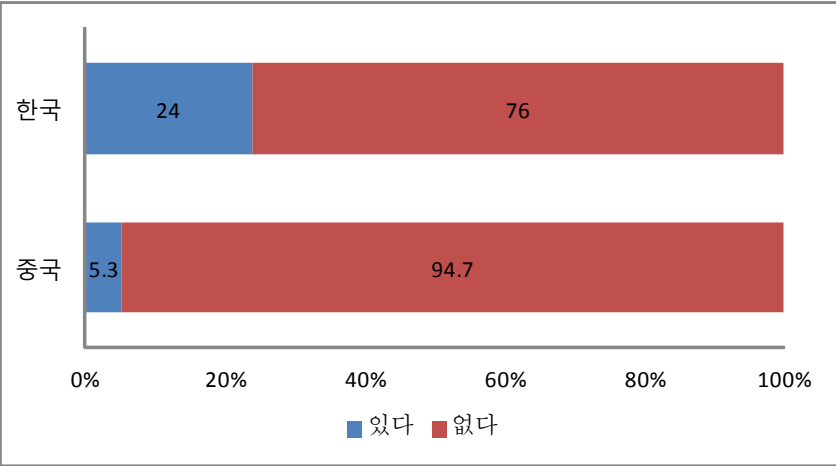


《图9》获取对方国家信息的主要渠道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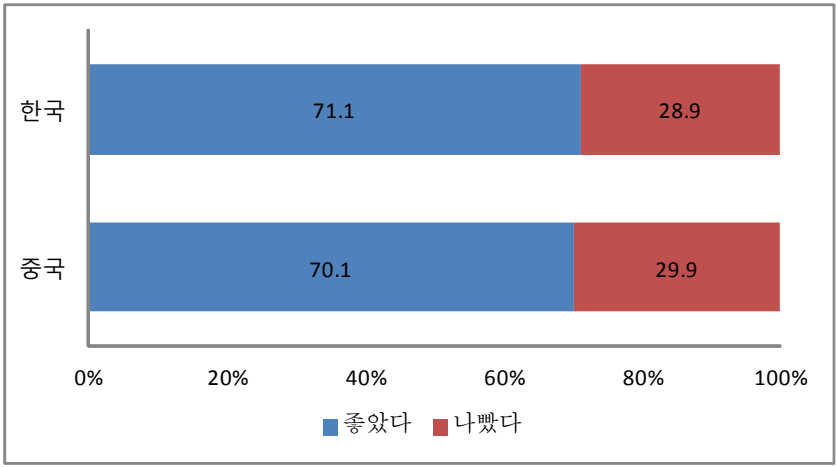
电视和广播、网络、报纸杂志、书和教科书、周围的人、其他

关于韩中两国青年有没有在对方国家旅游过的经历以及旅游过程中的感受是怎样的这一问题上韩国青年所占的比重（24%）要比中国青年（5.3%）多出许多。但对于旅游过程中的感受，两国青年（韩国青年71.1%，中国青年70.1%）都选择了“好”，这说明在对方国家旅游时都留下了不错的印象。



《图10》在对方国家旅游过的经历

上面是韩国青年，下面是中国青年
蓝色为“有”，红色为“没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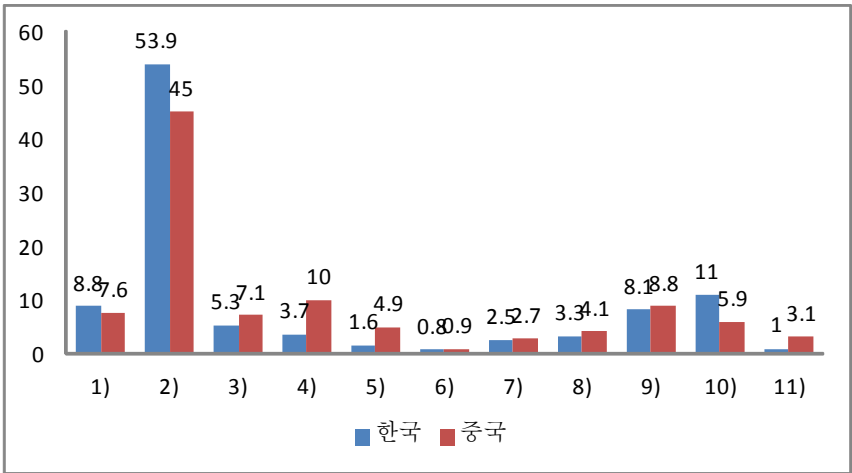


《图11》在对方国家旅游时的感受

上面是韩国青年，下面是中国青年
蓝色为“好”，红色为“不好”

当对韩中两国青年提出“如果有机会去对方国家的话，想做何种体验？”问题时，韩国青年的回答依次是旅游（53.9%）、文化体验（11.0%）、进修语

言（8.8%）、企业实习（5.3%）。中国青年的回答也是旅游（45%）占首位，然后依次是交换生（10.0%）、韩中青少年交流（8.8%）、进修语言（7.6%）、企业实习（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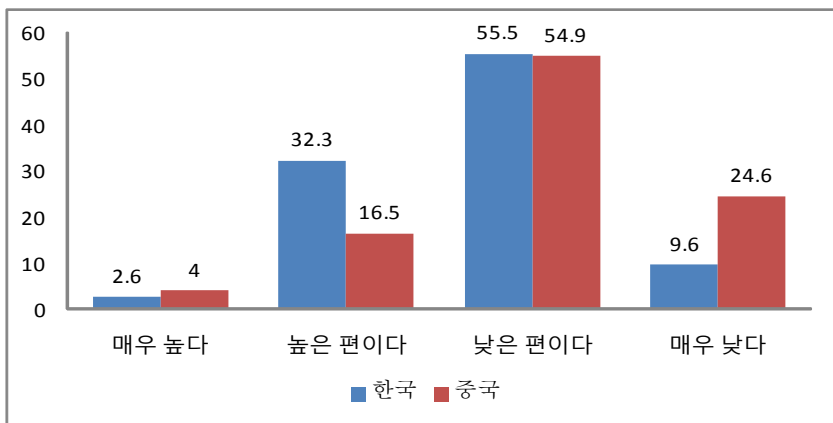


《图12》在对方国家体验意愿2)

6. 韩半岛的统一以及对韩中关系的评价

为了解韩中两国青年对韩半岛统一可能性的想法所提出的问题，觉得统一可能性很高的韩国青年占34.9%，而中国青年只有20.5%。而且占24.6%的中国青年对韩半岛统一的可能性给出了“非常低”的答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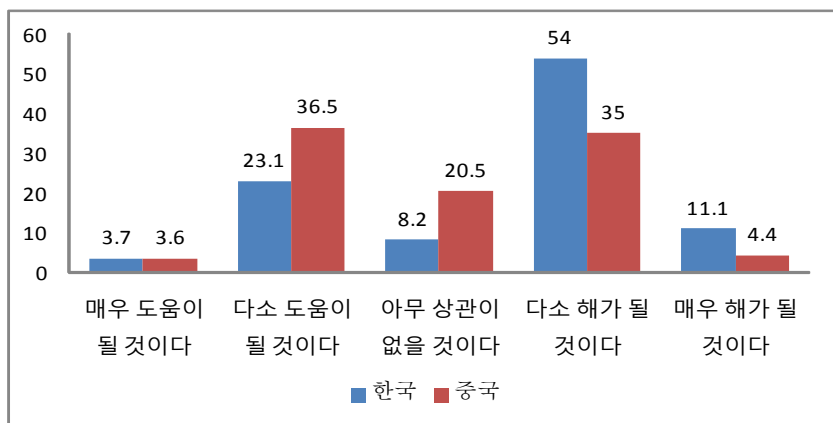
2) 1) 进修语言、2) 旅行、3) 在企业实习、4) 交换生、5) 留学、6) 就业、7) 志愿者活动、8) 汉中青年交流、9) 购物、10) 参观演出等文化体验、11) 其他



《图13》韩半岛统一可能性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答案依次是：
非常高、偏高、偏低、非常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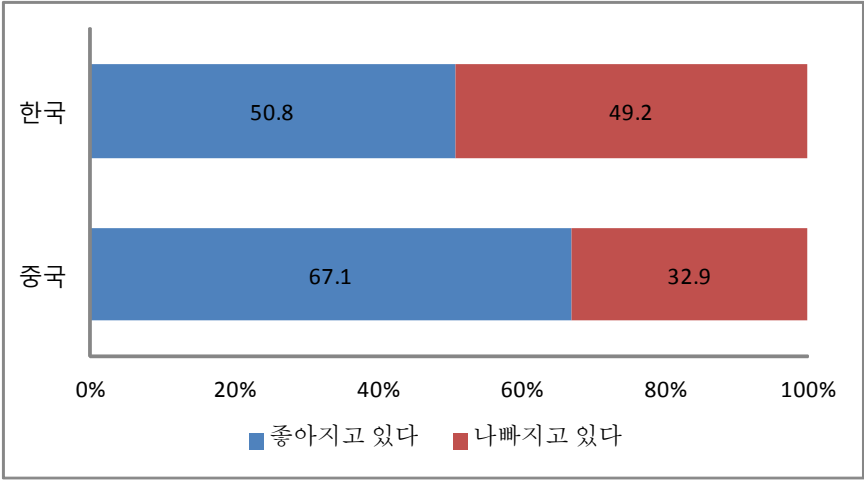
同一思路出发，在韩半岛的统一对中国会有什么影响这一问题，26.8%的韩国青年认为韩半岛的统一将会给中国带来非常有利的影响，但有65.1%的韩国青年选择了韩半岛统一将会给中国带来多少有些不利的影响。相比之下，40.1%的中国青年却选择了韩半岛统一将会给中国带来有利影响这个答案。



《图14》韩半岛统一给中国带来的影响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答案依次是：
非常有利、多少会有利、不会产生影响、多少有些不利、非常不利

对于近期韩中两国的关系，两国青年的态度有些不一样。当提出“你觉得近几年韩中关系的变化是怎样的？”问题时，韩国青年中选择“越来越好”答案的占50.8%，与选择“越来越不好”的49.2%基本持平。但中国青年选择“越来越好”（67.1%）的比例与“越来越不好”（32.9%）高出许多，在两国关系上比韩国青年多少乐观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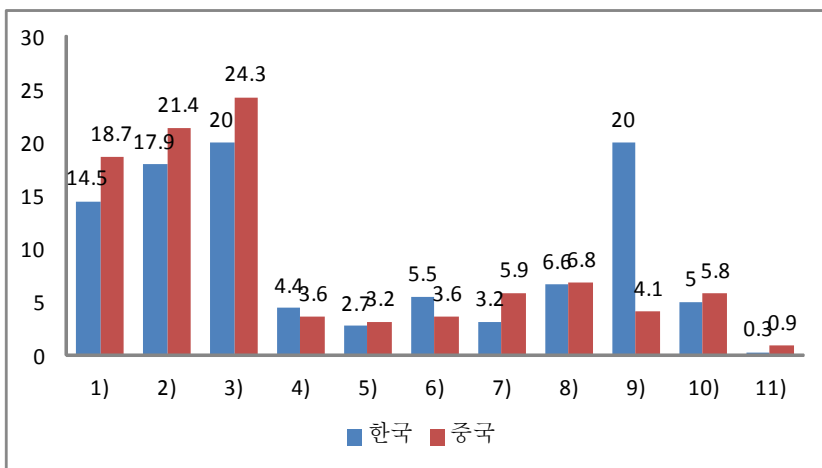


《图15》对近几年韩中关系变化的展望

上面是韩国青年，下面是中国青年。
蓝色代表月来愈好，红色代表越来越不好。

7. 韩中关系发展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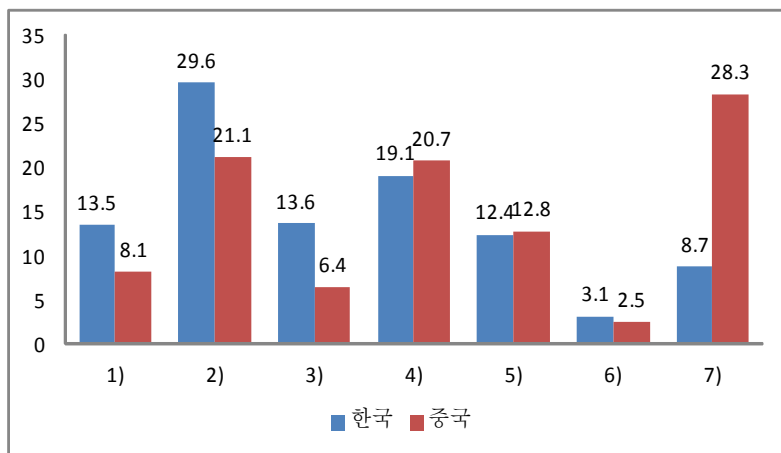
当提出“以后为发展韩中两国关系要做出努力的应该是那个领域？”问题时，韩国青年的选择首先是“相互之间的客观理解”（20%）与“解决历史领土问题”（20%）排前列，然后是“克制过度的民族主义”（17.9%）与“国民文化素养”（14.5%），中国青年的选择是把“相互之间的客观理解”(24.3%)、“克制过渡的民族主义”（21.4%）、“国民文化素养”（18.7%）等依次排在了重要地位。



《图16》为发展韩中两国关系要做出努力的领域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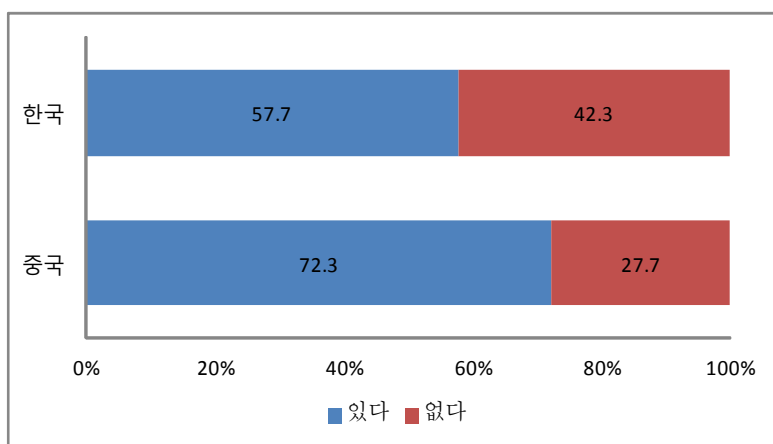
同一思路出发，对韩中两国青年提出“以后为韩中两国关系的发展想要从事的领域”问题时，韩国青年中选择“贸易及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者最多，占29.6%、之后是“文化、体育交流”，占19.1%、“关于东亚历史等问题等的学术交流”占13.6%、“政治及外交领域的交流与合作”，占13.5%。与此相比，中国青年是选择“不想从事这份事业”者最多，占28.3%，然后是“贸易及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占21.1%、“文化、体育交流”，占20.7%、“青少年交流”，占12.8%。

3) 注1、由于答案重复过多，所以采用多重选择模式，是以答题数量为基准的出现率与百分比。注2、 1) 国民文化素养、2) 克制过度的民族主义、3) 相互之间的客观理解、4) 定期的首脑会谈或高层对话、5) 学术交流、6) 文化体育交流、7) 青少年交流、8) 协力应对被日本外区的历史、9) 解决历史领土问题、10) 对言论负责、11) 其他



《图17》为韩中关系的发展想要从事的领域⁴⁾

8. 对“反韩情绪”认识与实际评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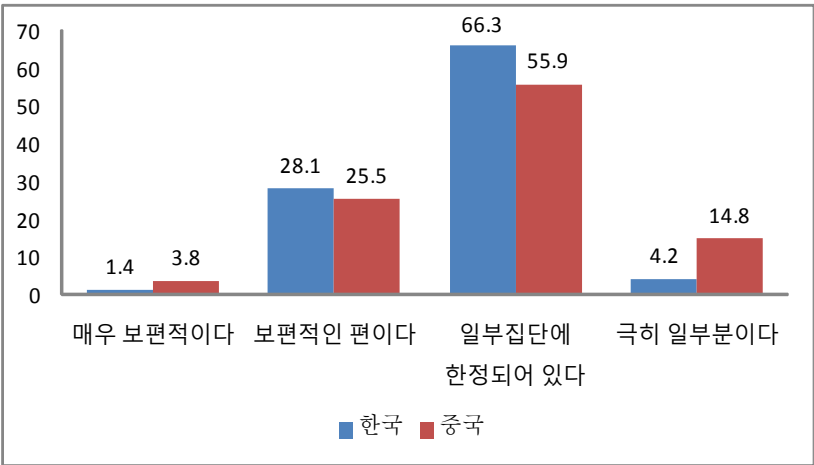


《图18》对“反韩”情绪的认识

上面是韩国青年，下面是中国青年。
蓝色代表有，红色代表没有。

- 4) 1) 政治及外交领域的交流与合作、2) 贸易及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3) 关于东北亚历史问题等的学术交流、4) 文化体育交流、5) 青少年交流、6) 其他、7) 不想从事这份事业

对韩中两国青年提出“有没有听过中国国内有反韩情绪”问题时，韩国青年有57.7%、中国青年有72.3%都选择“有”。图18表示对“反韩情绪”两国青年都曾听说过，并且中国青年的认知度比韩国青年多出15个百分点。



《图19》对“反韩情绪”的实绩评价

蓝色为韩国，红色为中国。内容依次是：
非常普遍、比较普遍、局限于一些团体、极小部分

当提出“反韩情绪实际上到了什么程度”问题时，韩国青年的回答是“非常普遍”占1.4%、“比较普遍”占28.1%，觉得“反韩情绪”在中国到了普遍程度的韩国青年占全部调查人数的29.5%。此外占全部调查人数70.5%的青年认为中国国内的“反韩情绪”（选择“局限于一些团体”的66.3%和选择“极小部分”的4.2%青年）只不过是中国社会内部一些团体的意见。

中国青年对这个问题的回答也是比较相似。在中国青年当中觉得“反韩情绪”在国内比较普遍的人数只有调查人数的29.3%（选择“非常普遍”的3.8%和选择“比较普遍”的25.5%），而占调查人数70.7%中国青年（选择“局限于一些团体”的55.9%和选择“极小部分”的14.8%）觉得“反韩情绪”只不过是中国社会内部一些团体的意见。从数据中我们还可以看出选择“极小部分”的中国青年比例比韩国青年的4.2%高出10%左右，这更能说明“反韩情绪”在中

国国内只不过是少部分团体的意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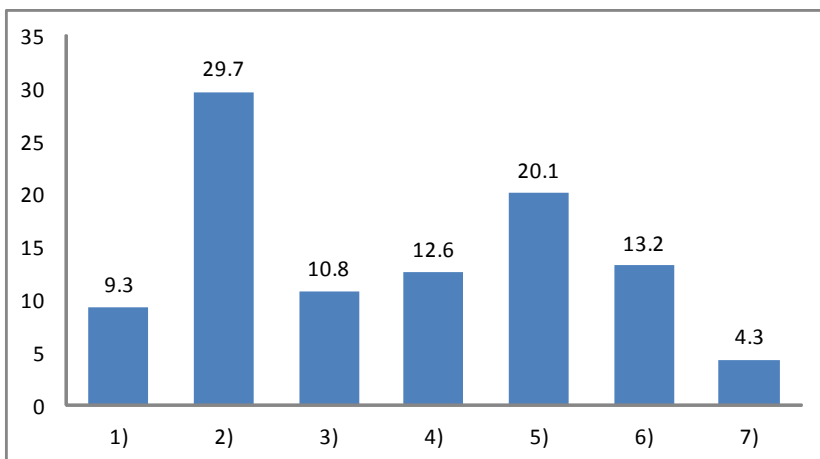
从整体上看，无论是韩国还是中国，都有30%左右的青年认为“反韩情绪”是一种比较普遍的显像，这点值得我们注意。

当问到“反韩情绪”的原因时，韩国青年的选择是“中国人历来对韩国有优越感”(29.7%)、“中国一些媒体刻意地歪曲对韩国的认识”占20.1%、“两国间的历史及领土纷争”(包括可能性)占13.2%、“中国网民非理性的诽谤”占12.6%、“中国国内民族主义情绪”占9.3%。从数据上不难看出韩国青年认为的中国“反韩情绪”主要还是在“中国人历来对韩国有优越感”和“中国一些媒体刻意地歪曲对韩国的认识”两个方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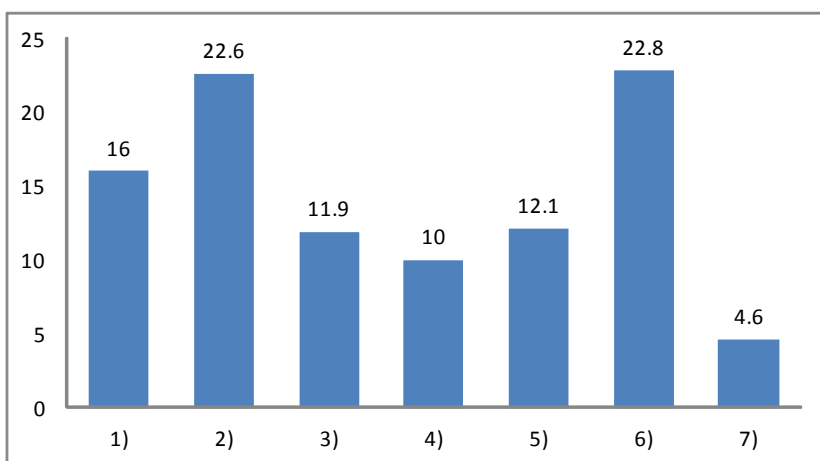
与此相比，中国青年的觉得“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22.6%)和“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22.8%)这两条是“反韩情绪”的主要原因，并认为“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16.0%)、“韩国言论夸张而不负责任的报道”(12.1%)、“韩国人对中国变化的无知”(11.9%)、“韩国网民非理性的诽谤”(10.0%)等均为“反韩情绪”的原因之一。

韩中两国青年互相指责对自己国家的优越感，两国国民之间“民族主义，国家自尊心”成为了一个焦点，而且两国言论的歪曲与夸张也是原因之一。

中国青年认为“与中国文化财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是主要原因，但想在这方面得到韩国的认同应该是非常困难的。韩国青年却认为“与韩国历史、领土纷争(包括可能性)”是主要原因，在此，我们能看出两国青年之间认识的差异。



《图20》对“反韩情绪”原因的评价（韩国青年）5)



《图21》对“反韩情绪”原因的评价（中国青年）6)

- 5) 注1、由于答案重复过多，所以采用多重选择模式，是以答题数量为基准的出现率与百分比。 注2、1) 中国国内民族主义情绪、2) 中国人历来的对韩优越感、3) 对韩流单方面性的反感、4) 中国网民的非理性诽谤、5) 中国一些言论有意图地歪曲对韩国认识、6) 与韩国的历史及领土纷争（包括可能性）、7) 其他
- 6) 注1、由于答案重复过多，所以采用多重选择模式，是以答题数量为基准的出现率与百分比。注2、1) 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2) 韩国人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3) 韩国人对中国变化的无知、4) 韩国网民非理性的诽谤、5) 韩国言论夸张而不承担责任的报道、6) 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7) 其他

9. “反韩情绪”的实际评价与相关原因

我们现在还不能准确把握 “反韩情绪”在中国社会到底普及到了什么程度。但中国青年（本次调查对象）当中有72.3%的青年听说过“反韩情绪”，其中29.3%还认为这种情绪是中国社会普遍的认识。

为了了解“反韩情绪”的原因，我们交叉分析了中国青年对韩国的关心程度、理解程度、旅韩经验、对韩国的好感程度、对自己国家的自豪感、对自己国家国力的评价、对韩国国力的评价以及对今后韩国国力的评价等数据。经过分析我们发现，从统计上有意义的原因是对韩国的关心程度、旅韩经验、对韩国的好感度、对韩国的国力及对今后韩国国力的评价等几项。

对韩国的关心程度高、没有旅韩经验、对韩国的好感程度加上对韩国政府、企业、大众文化、国民、产品等韩国社会各领域的好感程度高的人对“反韩情绪”的评价相对“普遍现象”更倾向于“局限于一些团体”。还有对韩国国力及今后韩国国力评价高的人也是倾向“局限于一些团体”这个答案的。

相反，对韩国关心程度低、有旅韩经验、对韩国的好感程度及对韩国各个领域的好感程度低、认为韩国的国力及今后韩国国力弱或者会变弱的人，对“反韩情绪”的评价相对“局限于一些团体”而言更加倾向于“普遍现象”。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정 계 영

상해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본문은 조사된 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고, 체감 인식의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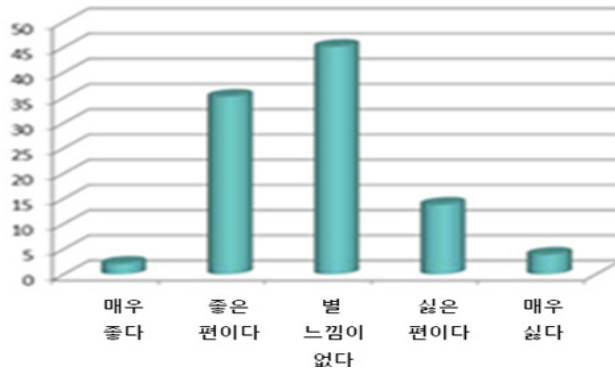
I. 조사 결과

1. 한반도에 대한 기본 이해와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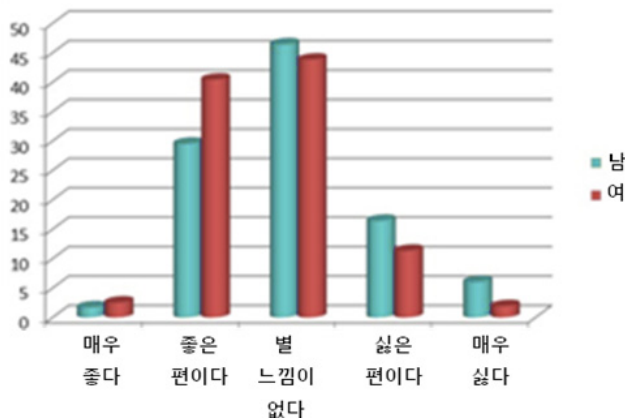
중국 청년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에 대한 기본 인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국력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

(1) 한국에 대한 이미지(Q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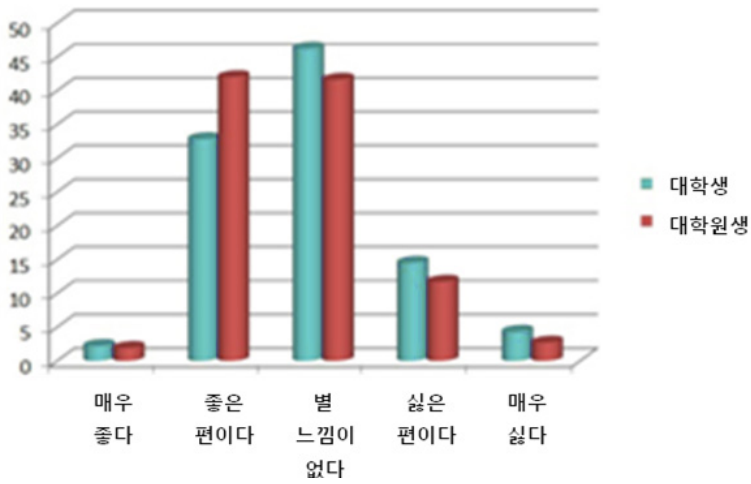
대체로 중국 청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매우 좋다”(2.1%)와 “좋은 편이다”(35.2%)에 대한 응답률은 전체응답률의 3/1을 차지하는 강세를 보였고, “싫은 편이다”(13.8%)와 “매우 싫다”(3.9%)에 대한 응답률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45.1%의 응답자가 “별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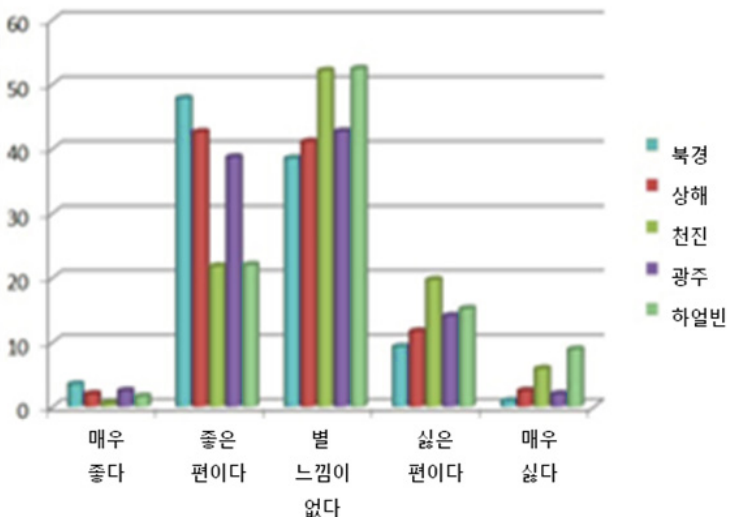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별 느낌이 없다”라는 응답(남:46.4%, 여:43.8%)이 대부분이었으며, “좋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여성(40.4%)이 남성(29.5%)보다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싫은 편이다”와 특히 “매우 싫다”에 대한 응답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중국 청소년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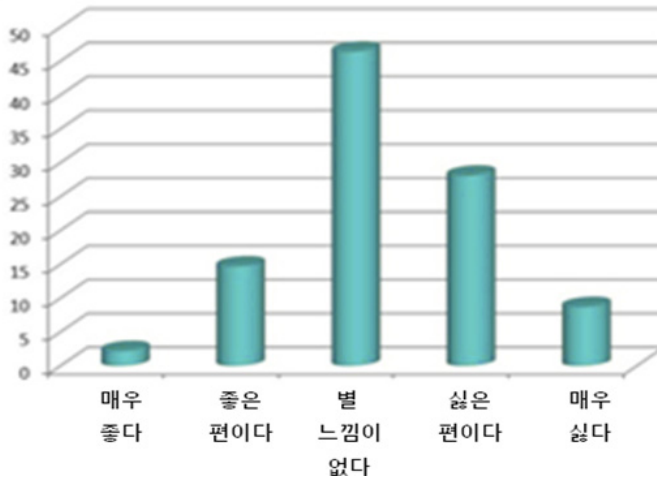
학력별 조사결과는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와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매우 좋다”와 “매우 싫다”에 대한 응답에서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차이는 컸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응답자는 북경지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해와 천진 지역이 많았다. 천진과 하얼빈 지역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응답자가 많았다.



(2) 북한에 대한 이미지(Q14-4)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다른 분야의 조사와 전체적인 이미지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중에서 남성이 많았으며, 특히 “매우 싫다”라고 답한 남성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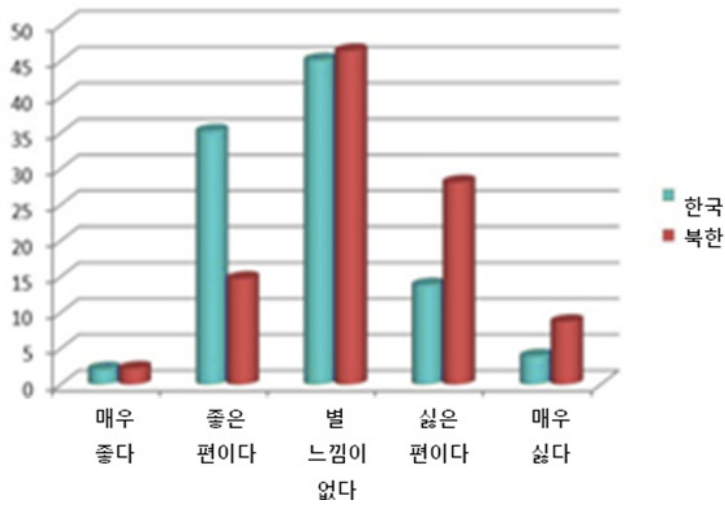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생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며, 대학원생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보통이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응답률도 비슷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매우 싫다”에 대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반인들의 인식차이와 이번 조사는 중국인들의 감정상 인식을 뒤엎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청년의 북한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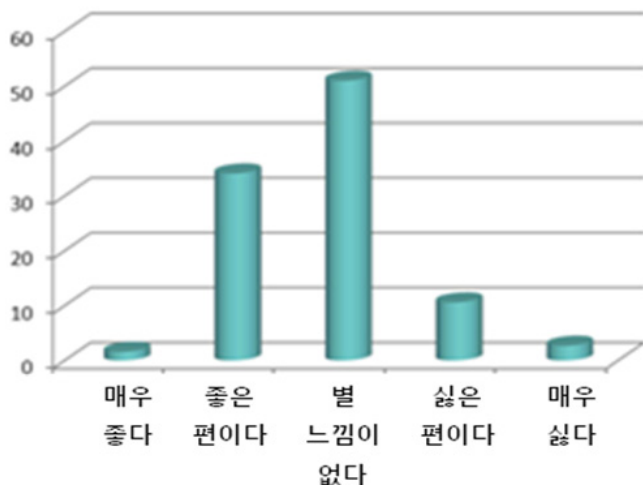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이미지는 더욱 심각했다.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 중에서 한국(35.2%)이 북한(14.7%)보다 높았고, 부정적인 응답에서 “싫은 편이다”(13.8% : 28.1%)와 “매우 싫다”(3.9% : 8.7%)에 대한 차이가

아주 명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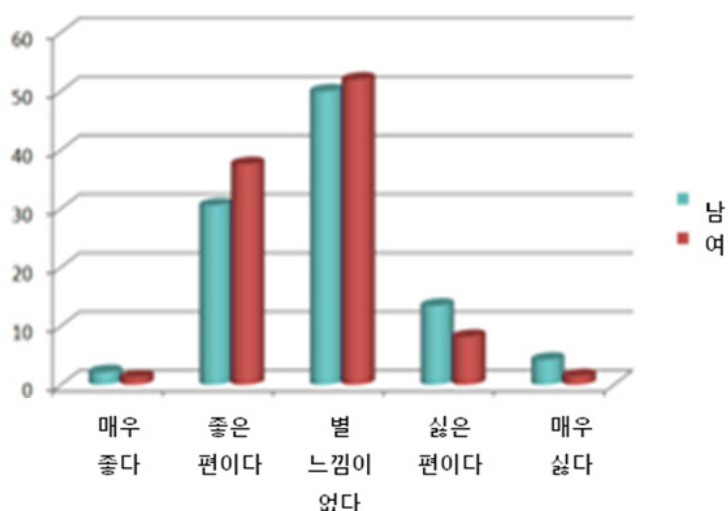


(3)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견해(Q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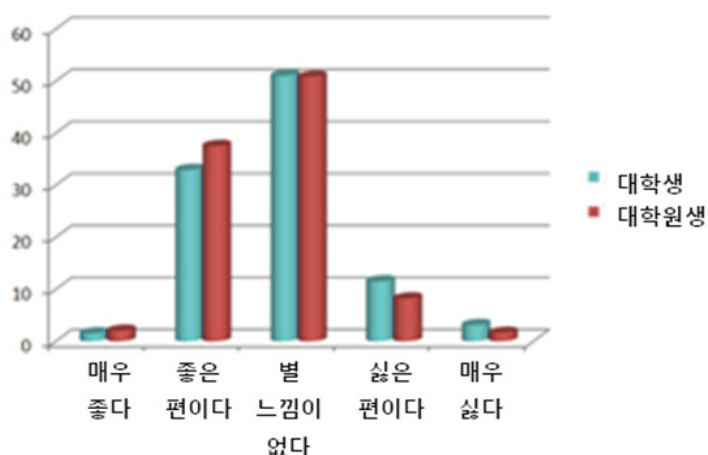
중국 청년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견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싫은 편이다”와 “매우 싫다”에 대한 응답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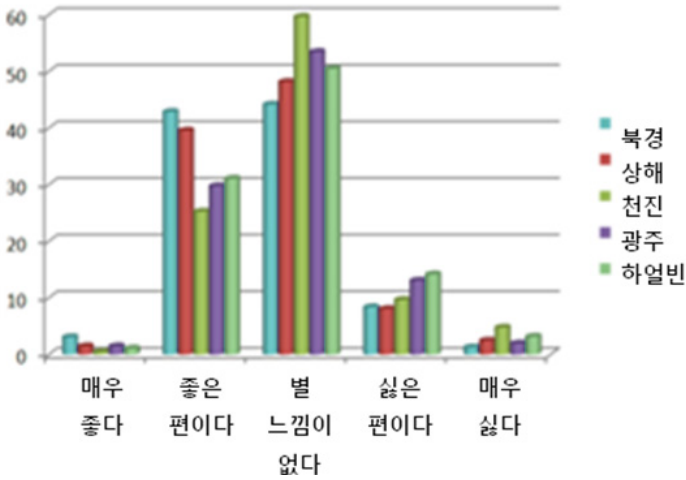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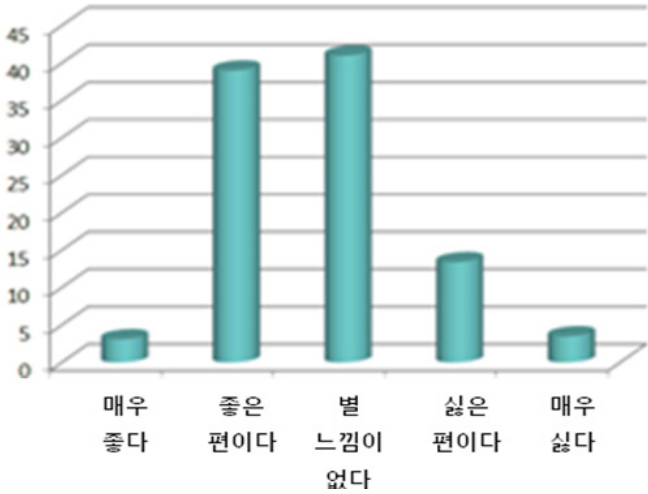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에서 대학원생의 응답률이 대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며, “매우 싫다”라는 응답에서 대학생의 응답률이 대학원생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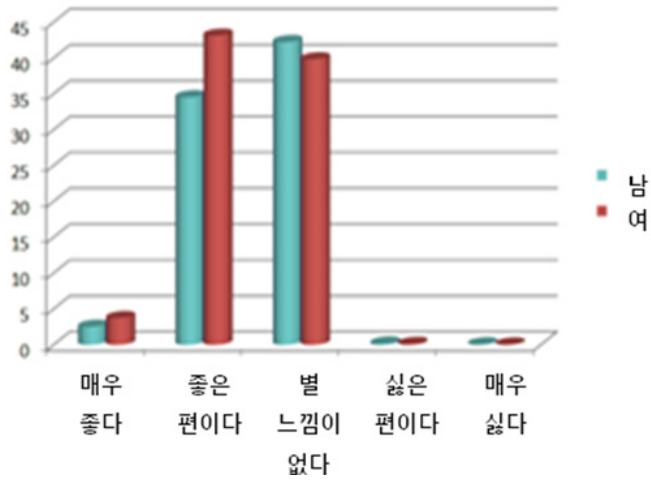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북경과 상해 지역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그 밖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매우 싫다”에 대한 응답률은 천진 지역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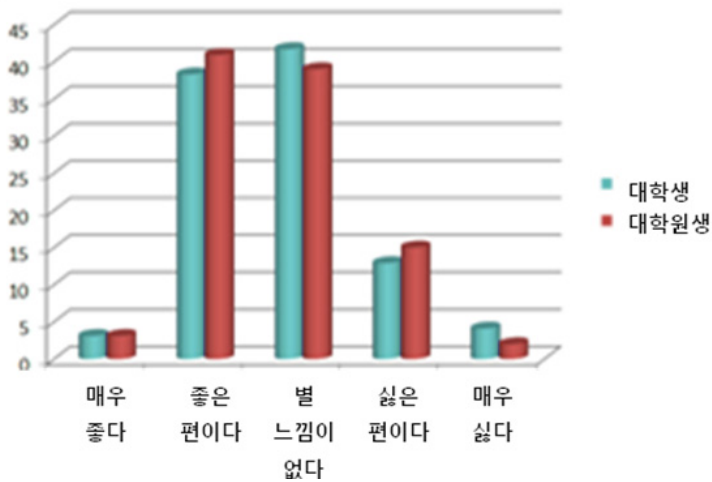
(4) 한국인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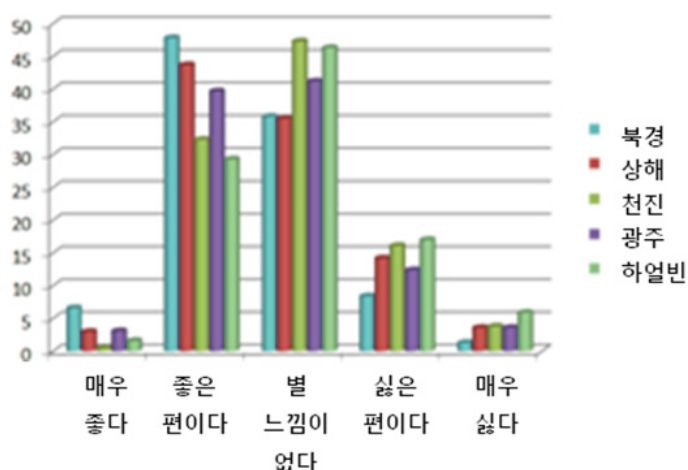
중국 청년의 한국인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견해는 소수였다. 한국에 대한 견해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견해가 응답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남성보다 긍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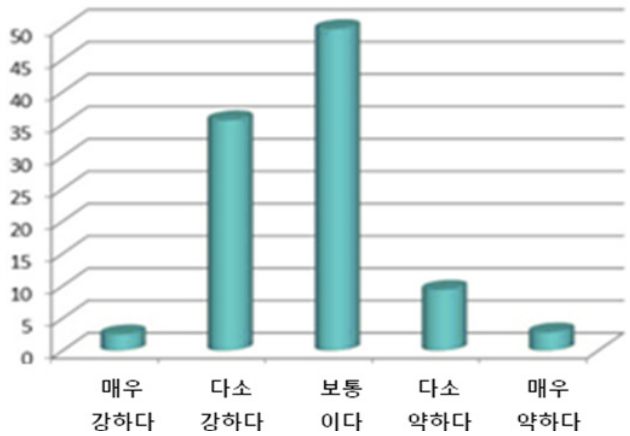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차이가 큰 부분은 “매우 싫다”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높았다. 즉, 젊은 대학생 중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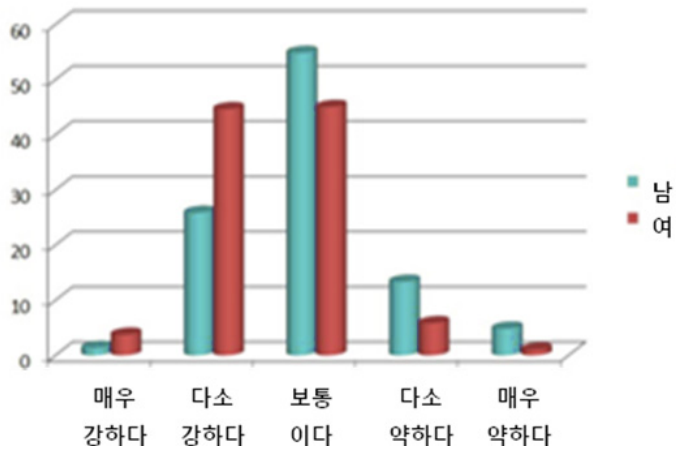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은 지역은 북경지역이었으며, 상해와 광주지역이 그 다음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하얼빈 지역의 부정적인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에 근거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별 느낌이 없다”에 대한 응답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응답 결과에는 한반도에 대해 무관심한 중국 청년 다수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무관심과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은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5) 한국의 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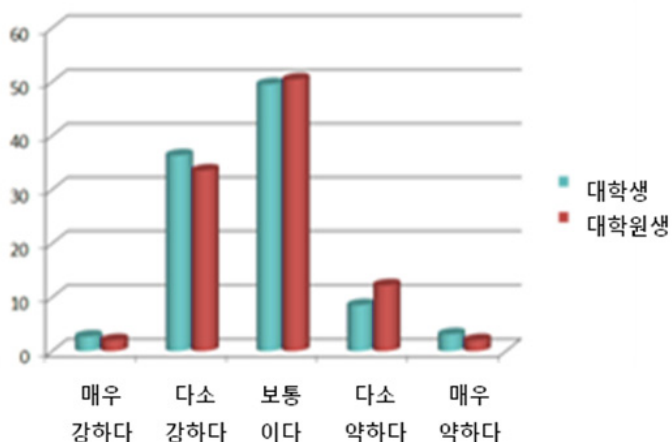


중국 청년은 한국의 국력을 비교적 인정하는 편이었으며, 38%가 넘는 응답자가 한국의 국력을 다소 강하다고 답하였고, 12%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국력을 다소 약하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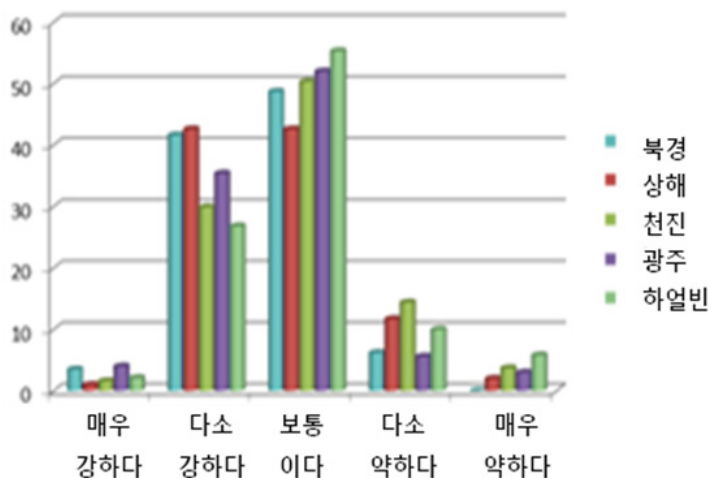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관심이 적었으며, 오직 27%의 남성들이 한국의 국력이 다소 강하다고 답하였고, 여성은 48%가 한국의 국력을 강

하다고 답하였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응답결과는 대체로 균등하였다. 약 35~40%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한국의 국력을 강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반해 “다소 약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대학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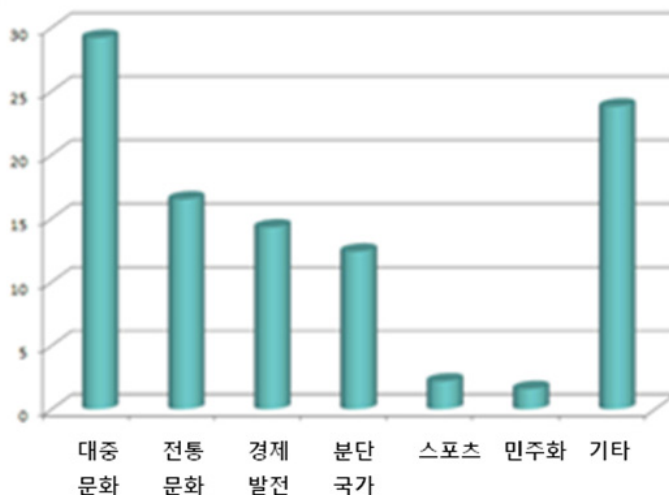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한국의 국력을 강한 편 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얼빈 지역의 “매우 약하다”에 대한 응답결과가 눈에 띄었으며, 북경과 상해 지역은 “다소 강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2. 한반도 통일 문제

(1)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 비교(Q6)

먼저 통일문제가 중국 청년의 심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Q6의 질문은 “한국을 언급했을 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이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은 총 7개가 있다. 대중문화, 전통문화, 경제발전, 분단국가, 스포츠, 민주화, 기타 등이다. 선택항목 중에서 “분단국가”에 대한 응답률은 12.4%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청년의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청년의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으며(12.4%, 111명), 한국 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응답률(29.2%, 261명:16.5%,148명)보다 낮

았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한국인,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결과와 많이 일치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74명, 17.4%)이 한반도 분단 현실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성(37명, 7.9%)보다 많았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생(76명, 11.5%)의 응답률이 대학원생(35명, 15.1%)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생들이 국제문제에 대하여 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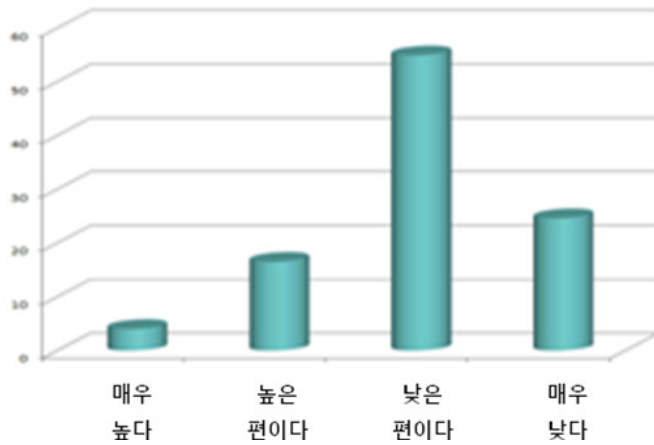
가계소득 별로 보았을 때, 이러한 차이는 더 컸다.

지역별 응답률은 북경13.8%(17명), 상해12.9%(24명), 천진16.9%(20명), 광주 9.0%(15명), 하얼빈 9.2%(16명)이었다.

북경, 상해, 천진 등 정치·경제중심의 도시와 대도시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약 광주지역이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멀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하얼빈 지역의 저조한 응답률은 의외의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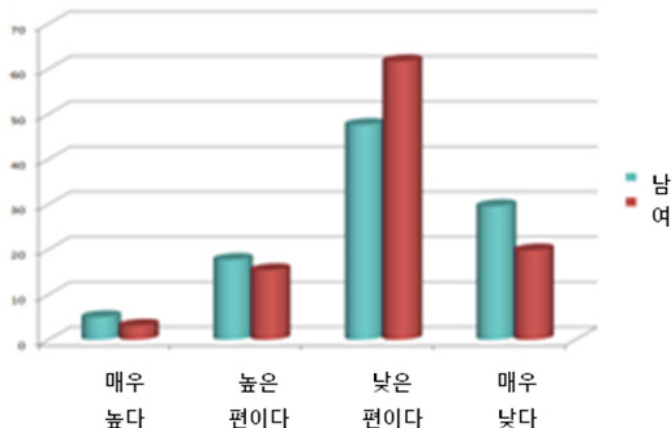
(2) 통일의 가능성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라는 질문으로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국 청년의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993명의 응답자 중에서 긍정적 견해를 보인 응답자(매우 높다4%, 40명 : 높은 편이다16.5%, 164명)는 부정적 견해를 보인 응답자(낮은 편이다 54.9%, 545명 : 매우 낮다 24.6%, 244명)보다 적었다.



성별로 보았을 때,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5.0%, 17.7%)이 여성(3.1%, 15.4%)보다 다소 높았고,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47.6%, 29.6%)이 여성(61.7%, 19.8%)보다 다소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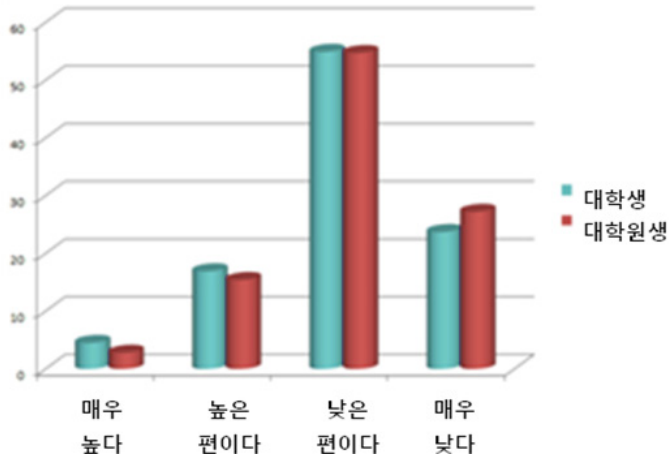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비슷하였고, 네 가지 답안의 분포도 또한 대체로 일치했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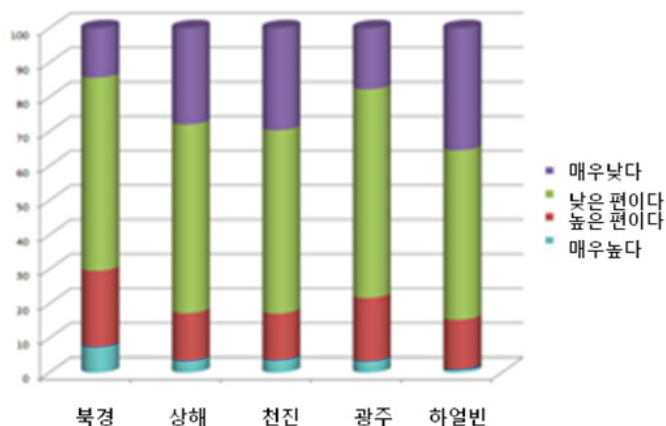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각각 4.5%, 16.9% : 2.8%, 15.4%로 비슷하였다.

“낮은 편이다”(54.9%, 54.7%)와“매우 낮다”(23.7%, 27.2%)에 대한 응답률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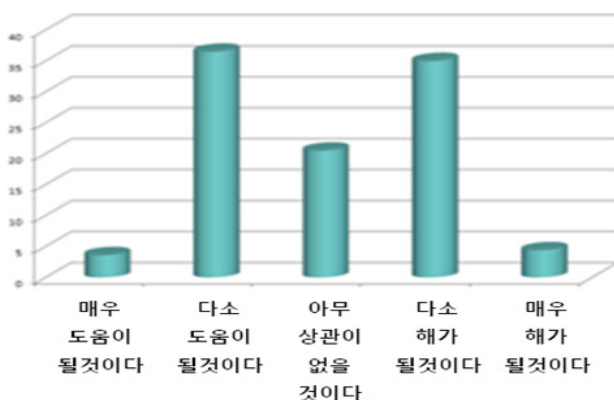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해, 천진, 하얼빈 지역의 응답결과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북경과 광주 지역의 수치가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 결과 중에서 북경지역의 응답률이 29.6%(7.6%+22%)를 차지해서, 상해(17.3%), 천진(17.2%), 하얼빈(15.4%), 광주(21.7%)지역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북경 지역과 하얼빈 지역 각각 7.6% : 1.1%로 상해(3.6%), 천진(3.8%), 광주(3.5%)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북경 70.4%, 상해 82.7%, 천진 82.8%, 광주 78.3%, 하얼빈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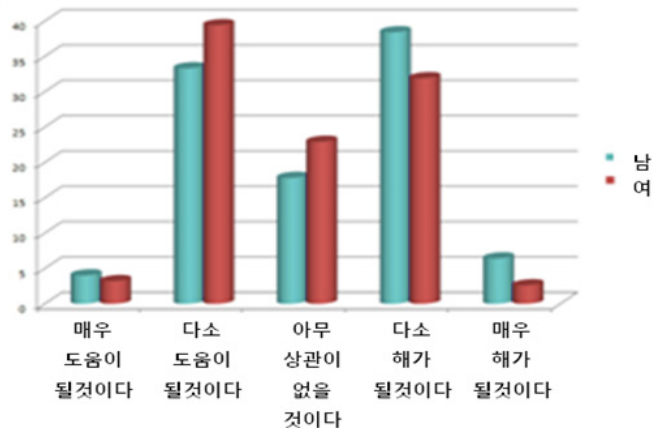
(3)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Q23)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3.6%)와 “매우 해가 될 것이다”(4.4%)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하였고,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36.5%)와 “매우 해가 될 것이다”(35.0%)에 대한 응답률도 비슷하였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20.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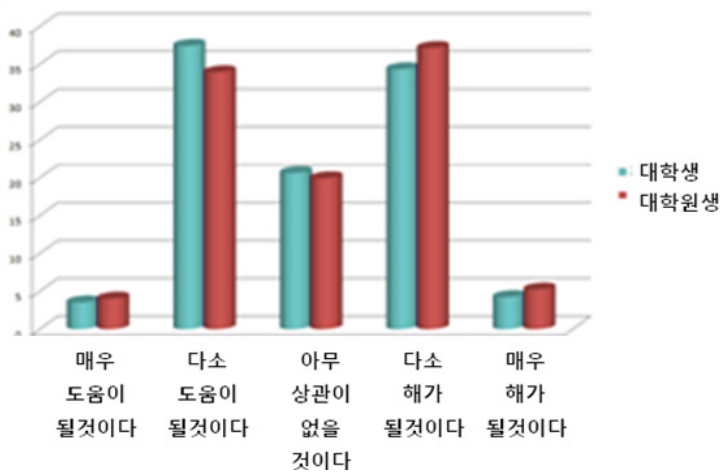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응답결과는 “도움이 된다37.3%, 해가 된다 44.8%, 아무 상관 없다17.8%”이며, 여성의 응답결과는 “도움이 된다42.6%,

해가 된다 34.5%, 아무 상관 없다 22.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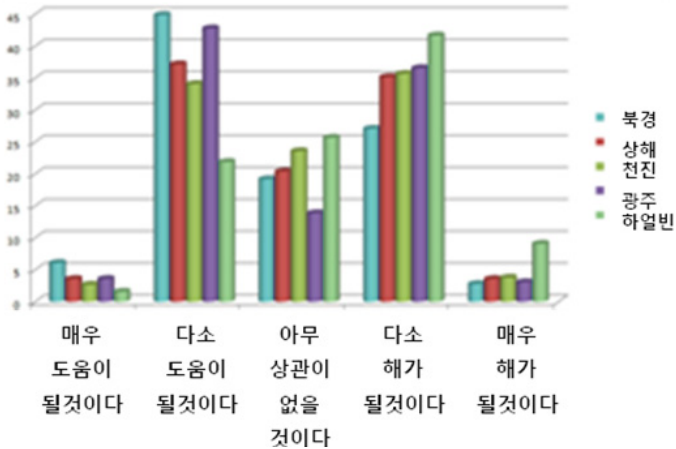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생의 응답결과는 “도움이 된다 40.9%, 해가 된다 38.5%, 아무 상관 없다 20.6%”이며, 대학원생의 응답결과는 “도움이 된다 37.9%, 해가 된다 42.3%, 아무 상관 없다 19.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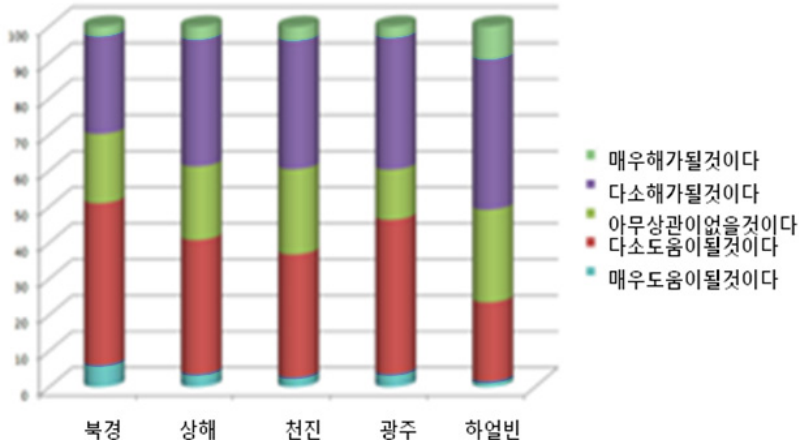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였다. 지역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북경	상해	천진	광주	하얼빈
도움이 된다	51%	40.8%	36.8%	46.4%	23.5%
해가 된다	29.9%	38.8%	39.5%	39.7%	50.8%
아무 상관 없다	19.2%	20.4%	23.6%	13.9%	25.7%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북경(6.1%)과 하얼빈(1.6%)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매우 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북경(2.8%)과 하얼빈(9.1%)지역이 또 한 번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지역별 인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위의 그림을 아래와 같이 조금 바꿔보았다. 가로축은 지역을 나타내며, 세로 축은 지역별 선택 항목을 나타낸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 중에서 북경지역이 50%를 넘었으며, 하얼빈 지역은 2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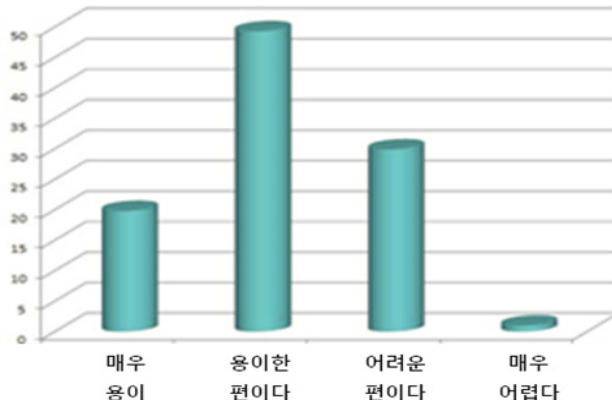
3. 한 · 중 관계

한·중 관계와 관련된 조사는 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견해, 비우호 정서에 대한 인지, 한·중 관계의 변화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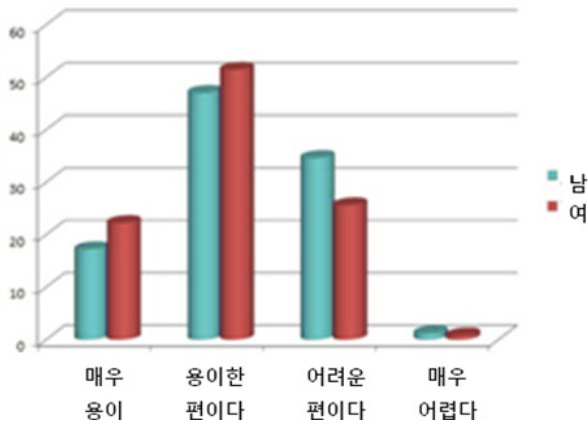
(1)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Q8. Q10)

먼저 한국관련 정보 수집의 용이도에 대한 조사이다. (Q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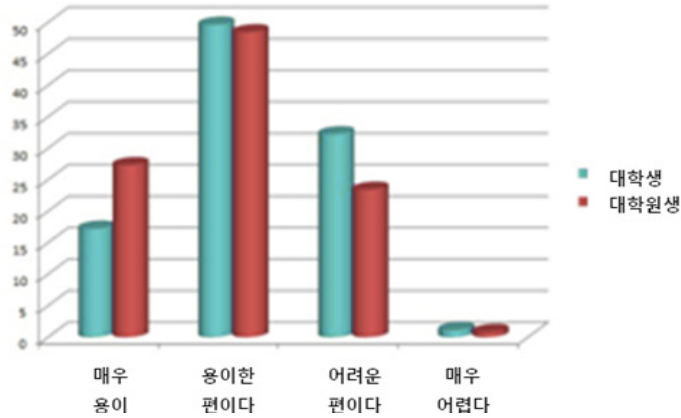
대체로 한국관련 정보 수집은 매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용이”(19.8%)와 “용이한 편이다”(49.3%)에 대한 응답률이 70%를 넘었고,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률이 29.9%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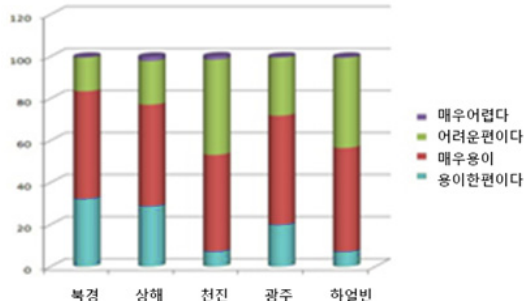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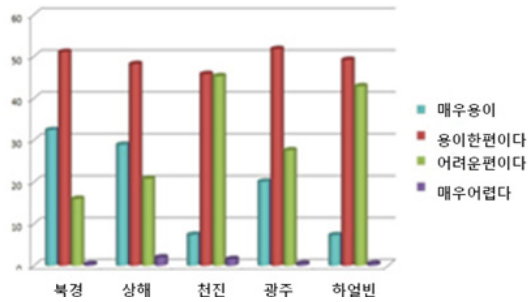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한국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수집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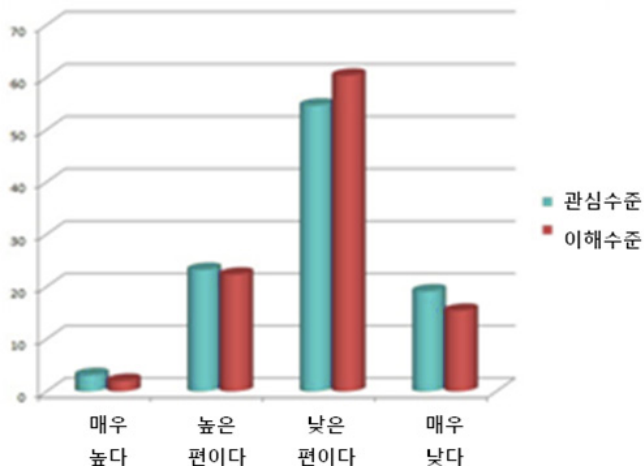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원생의 수집 정도와 범위가 대학생을 넘어섰다. 그 이유는 대학원생의 지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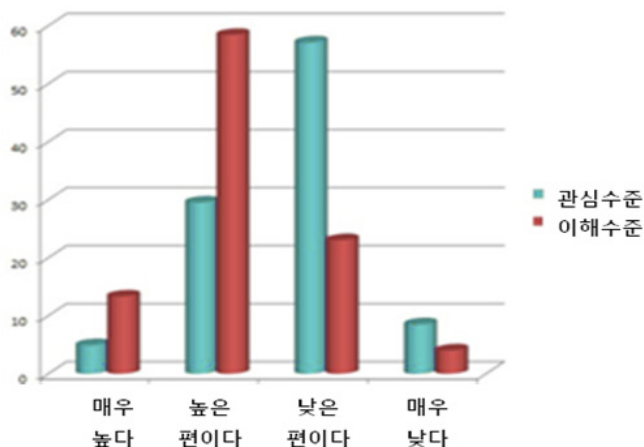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중국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북경과 상해지역은 한국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천진과 하얼빈 지역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광주지역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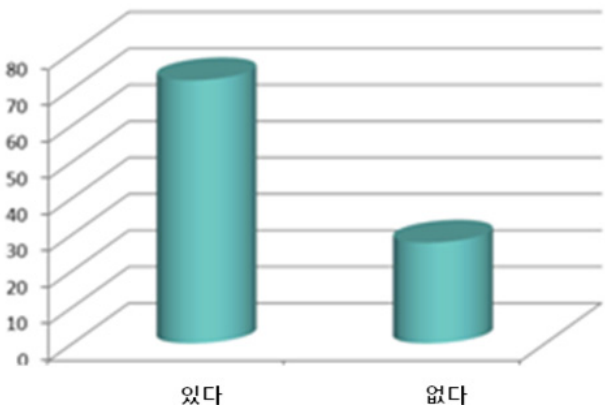


위의 표는 관심수준 (Q10-1) 과 이해수준 (Q10-2) 의 전체대비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높은 편이다” 혹은 “매우 낮다”에 대한 관심수준과 이해수준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낮은 편이다”에 대한 이해수준은 관심도보다 높았다. 성별과 학력별로 보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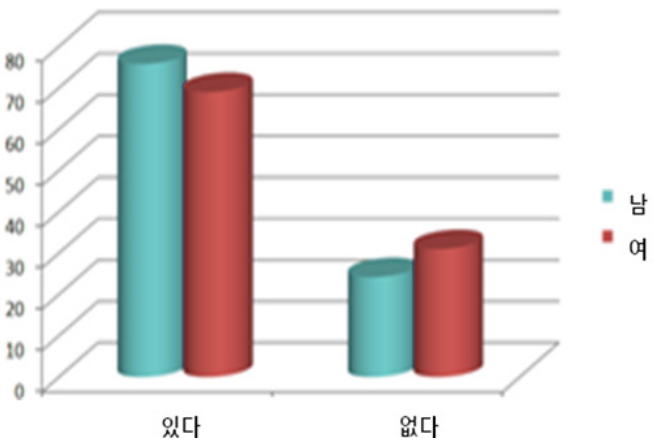
지역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경지역이 뚜렷하였다. 관심수준은 낮았으나 이해수준은 높았다. 타 지역과 전체 이미지는 비슷하였고, 중복되는 상황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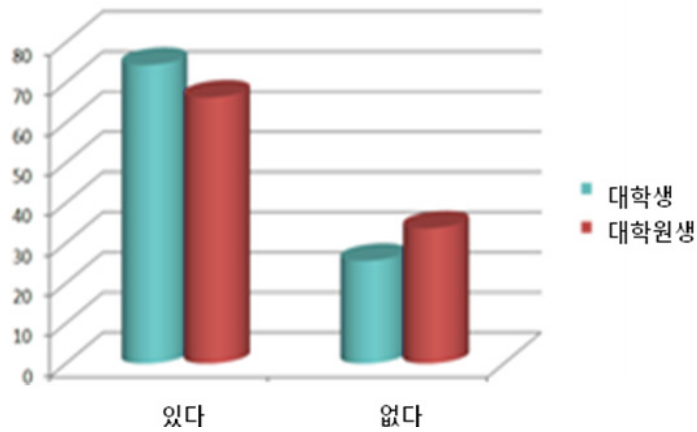
(2) 대 한국 비우호 정서의 정도 및 원인(Q25, Q26, Q27)



비우호 정서의 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비우호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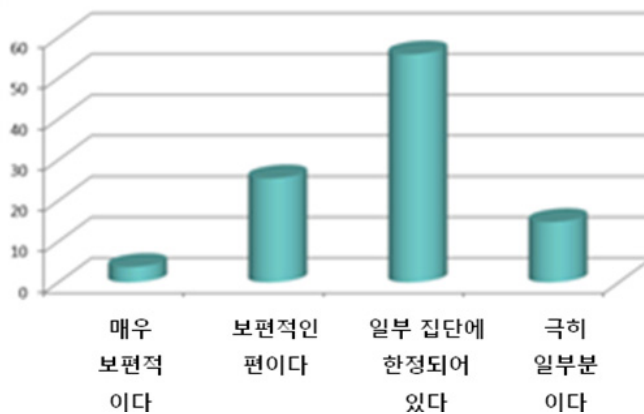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비우호 정서가 많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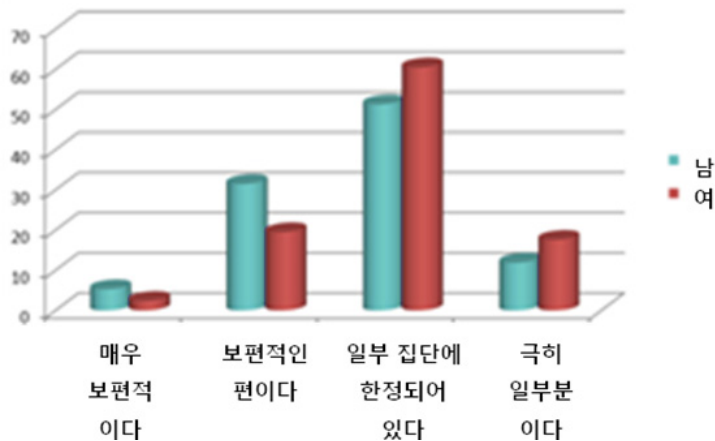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비우호 정서가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상해지역에서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비우호 정서가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하얼빈과 북경지역 또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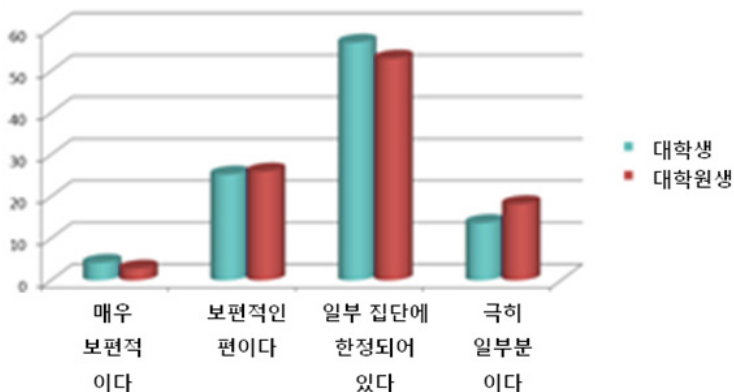
비우호 정서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률의 절반 이상 차지하였으며, “보편적인 편이다”와 “매우 보편적이다”에 대한 응답자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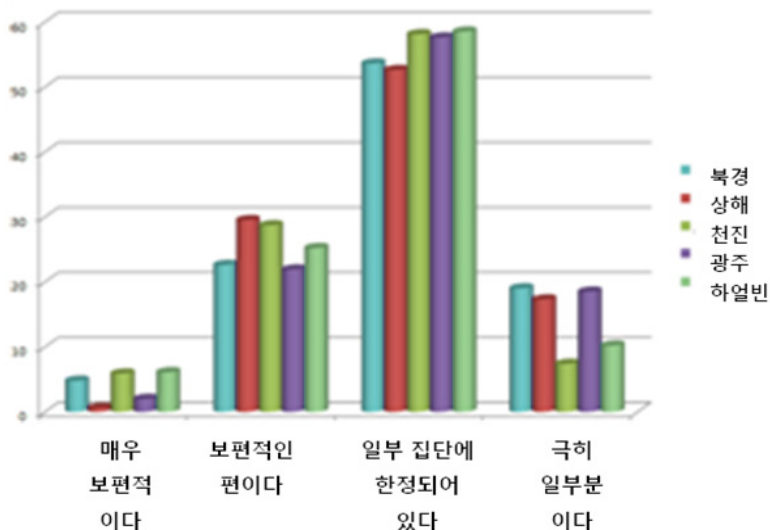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매우 보편적이다”와 “보편적인 편이다”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와 “극히 일부분이다”에 대한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매우 보편적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생이 대학원생 보다 높았으며, “보편적인 편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로 “극히 일부분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낮았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매우 보편적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북경 I 천진 I 하얼빈 지역이 높았으며, “보편적인 편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상해와 천진 지역이 높았다.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천진·광주·하얼빈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극히 일부분이다”에 대한 응답률은 북경 I 상해 I 광주 지역이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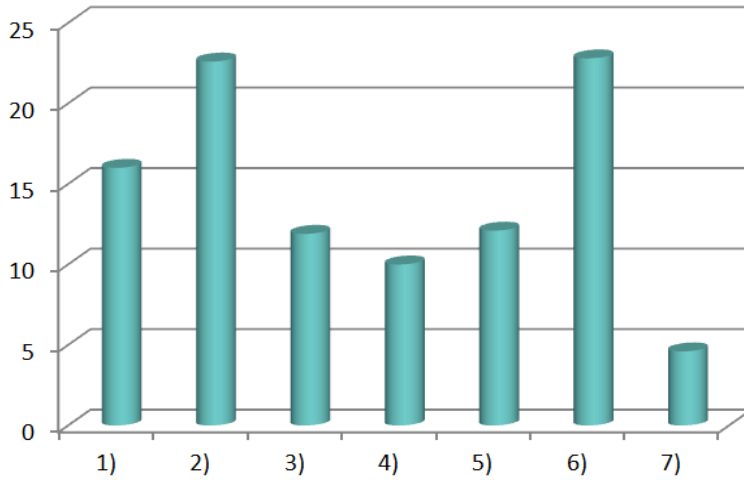


비우호 정서 원인에 대한 선택 문항은 7개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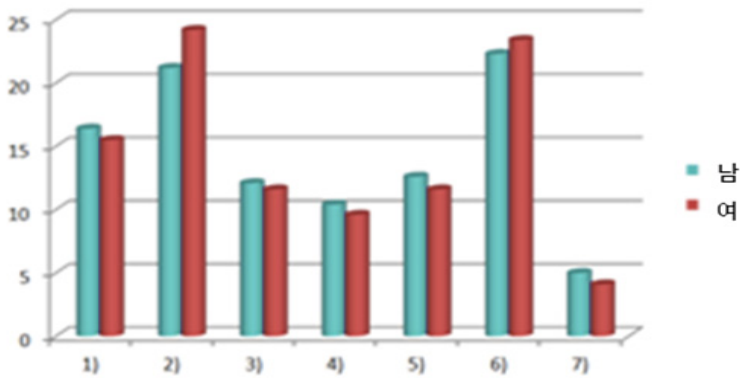
- ① 한국인들의 중국 내 과도한 민족주의 표출행위
- ② 한국인들의 대 중국 편견 및 우월감
- ③ 중국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지
- ④ 한국 네티즌들의 비이성적 비방
- ⑤ 한국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대 한국 인식 왜곡
- ⑥ 한국의 중국 문화재산권에 대한 마찰과 왜곡
- ⑦ 기타

전체 응답 결과에서 ①, ②, ⑥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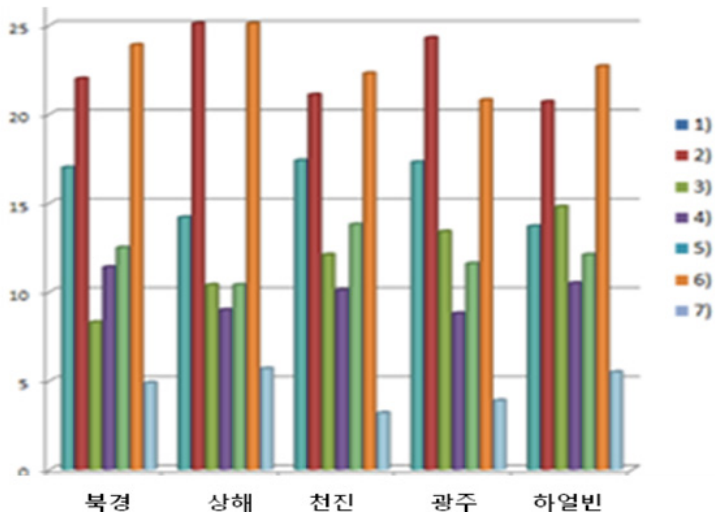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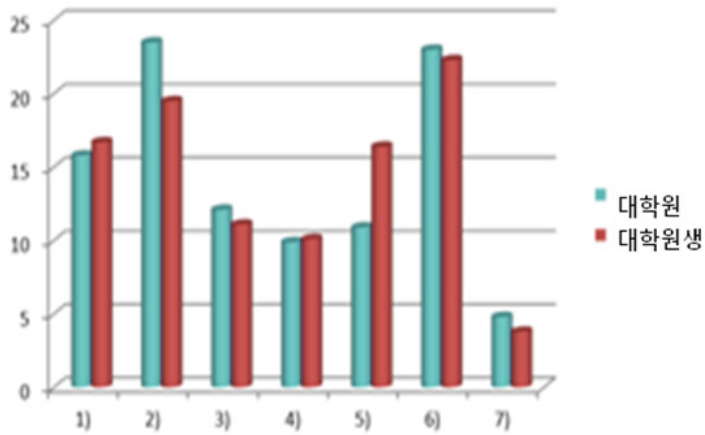
⑤에 대한 응답률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 ②, ⑥에 대한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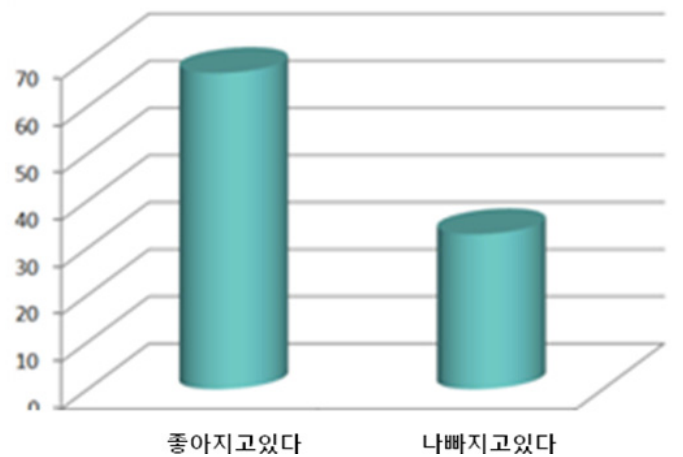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았을 때, ②, ③, ⑥에 대한 대학생의 응답률이 대학원생보다 높았으며, ⑤에 대한 대학원생의 응답률이 대학생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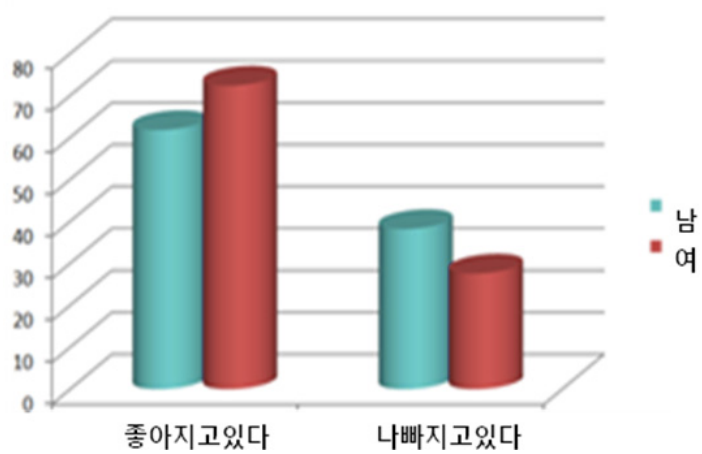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북경과 천진 지역이 ⑥, ②, ①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상해와 하얼빈 지역은 ⑥, ②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광주 지역은 ②, ⑥, 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3) 한·중 관계의 변화(Q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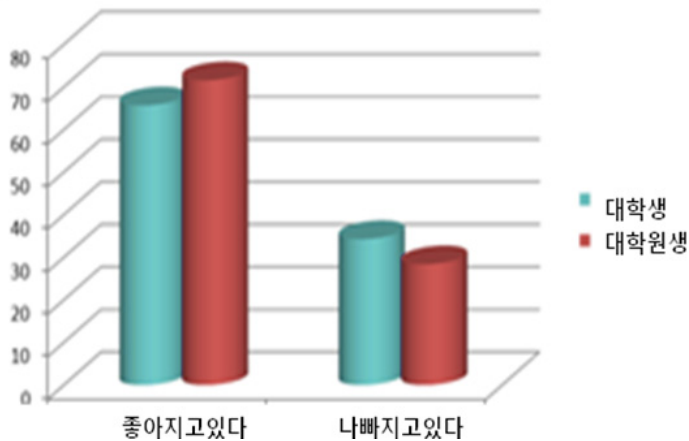
한·중 관계 변화 방향에 대한 조사는 앞에서 서술한 한·중 관계에 대한 조사를 검증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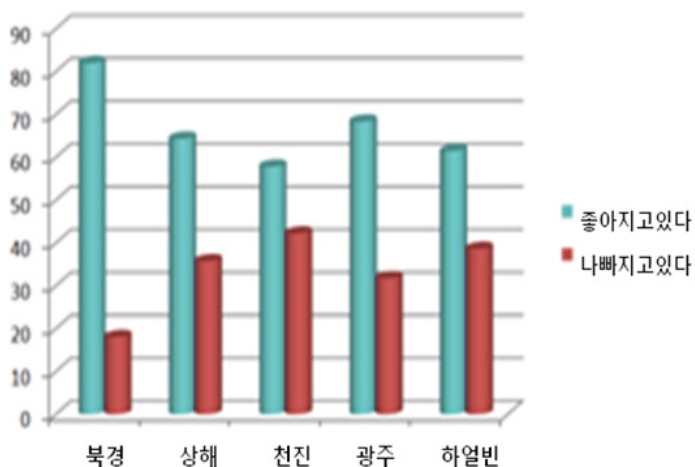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응답자 다수가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응답률은 “나빠지고 있다”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 한중 관계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낙관적이었으며, “좋아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로 한중 관계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비관적이었으며, “나빠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원생이 낙관적 이었으며, 대학생이 비관적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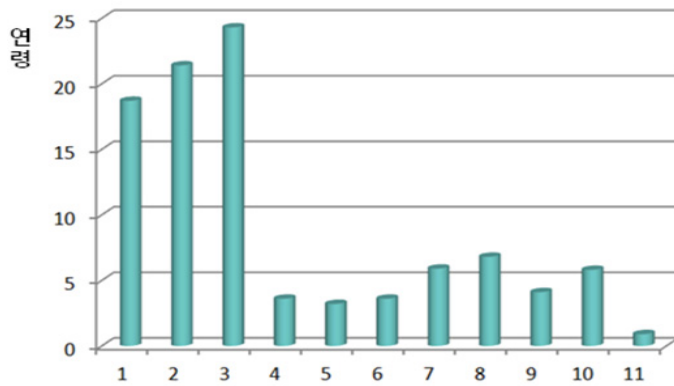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북경 지역이 가장 낙관적이었으며, 광주와 상해 지역이 그 다음으로 낙관적이었다. 하얼빈과 상해 지역은 비교적 비관적이었다.

(4) 향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Q28, Q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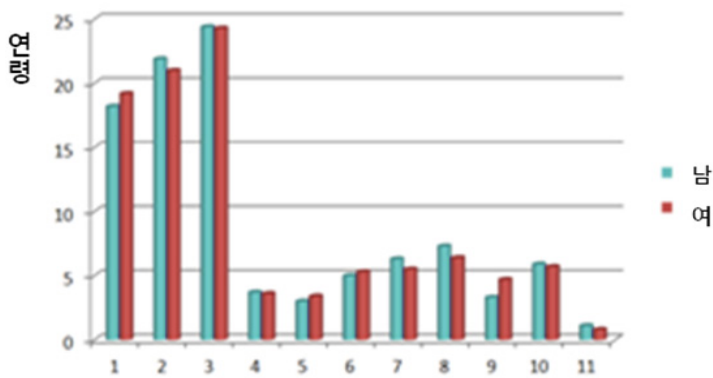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선택 문항은 모두 11개로 나누었다.

- ① 국민의 문화적 소양
- ②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
- ③ 상대에 대한 객관적 이해
- ④ 정기적인 정상회담 혹은 고위층 대화
- ⑤ 학술교류
- ⑥ 문화체육교류
- ⑦ 청소년교류
- ⑧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협력하여 대응
- ⑨ 역사영토문제 해결
- ⑩ 언론에 대한 책임
- ⑪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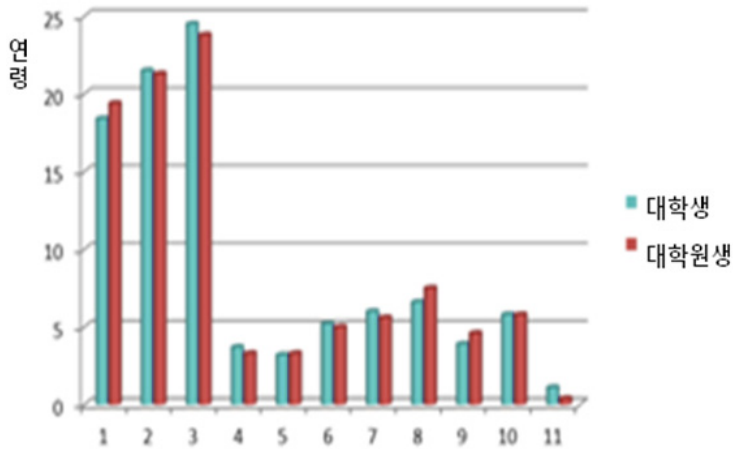
대체로 ①, ②, ③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⑧, ⑦, ⑩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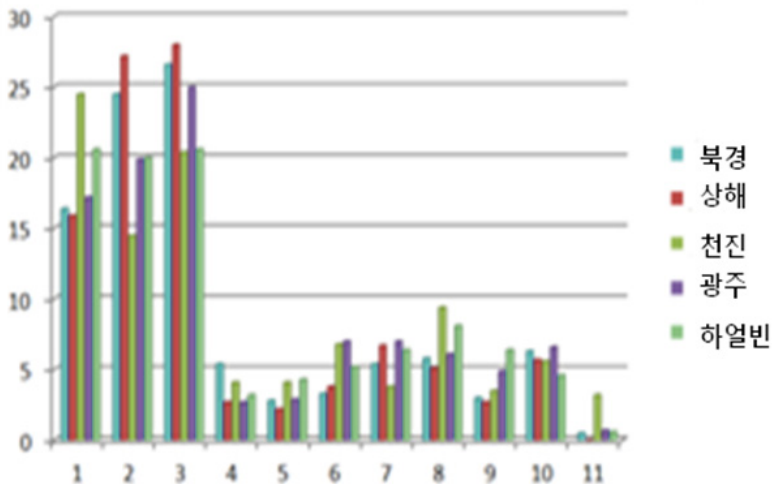
성별로 보았을 때, ①, ②, ③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⑧, ⑦, ⑩, ⑥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⑨의 항복에 대한 여성의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원생은 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대학생은 ③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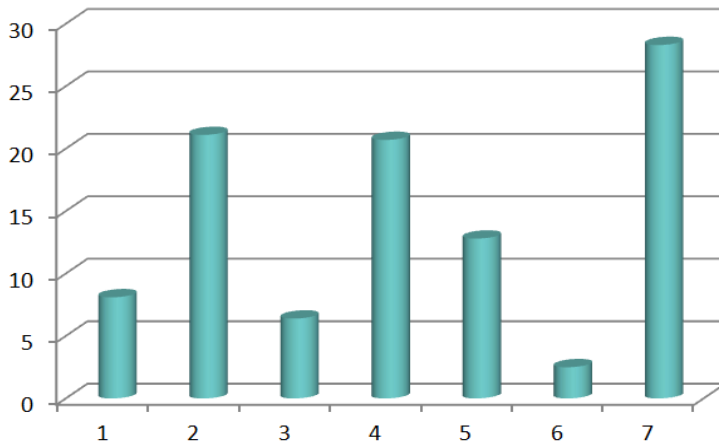
지역별 차이는 매우 컸다. 천진과 하얼빈 지역은 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북경과 상해 지역은 ②, 상해, 북경, 광주 지역은 ③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 항목에서는 천진 지역이 ⑧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Q29에서 “귀하가 앞으로 중한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국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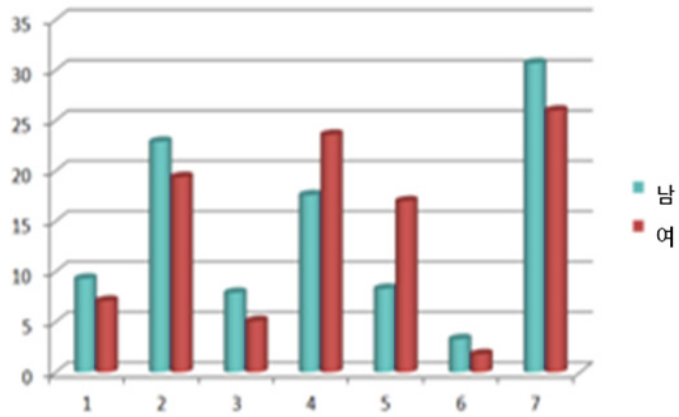
의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이 질문에 대한 선택 문항을 7개로 나누었다.

- ① 정치 및 외교 분야의 교류협력
- ② 무역 및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 ③ 동북아 역사이해 등 학술교류
- ④ 문화·스포츠 교류
- ⑤ 청소년교류
- ⑥ 기타
- ⑦ 일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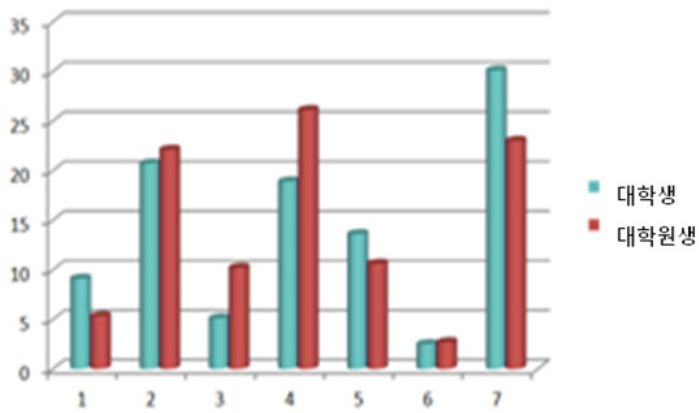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⑦, ②, ④, ⑤, ①, ③, ⑥이다. 많은 응답자가 ⑦을 선택하였으며, ⑥에 대한 응답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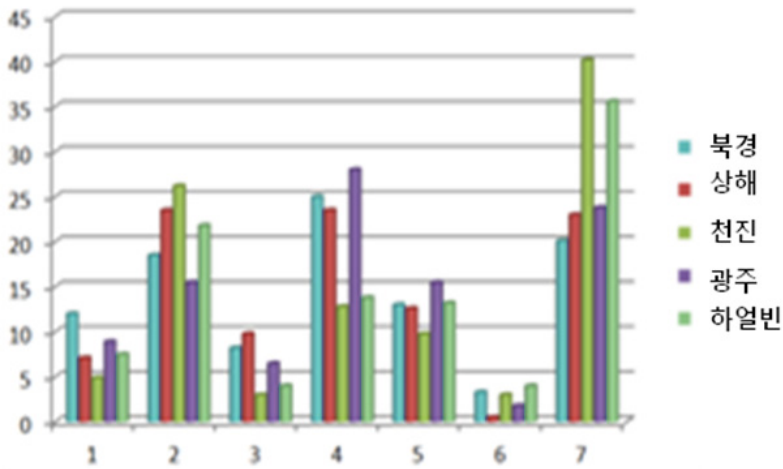
중국 청년은 대체로 한중 양국의 경제와 문화교류를 더 중요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교류와 정치외교 분야를 중요시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은 ①, ②, ④, ⑦을 중요시하였으며, 여성은 ③, ⑤을 중요시하였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 대학생이 ①, ⑤, ③을 중요시하였으며, 대학원생이 ②, ③, ④을 중요시하였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①에 대한 응답률은 북경 지역이 많았으며, 천진·상해·북경·하얼빈 지역은 ②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③에 대한 응답률은 낮았지만, 북경과 상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북경·상해·광주 지역이 ④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⑤에 대한 응답률은 비슷하였지만 광주 지역이 다소 높았다. 천진과 하얼빈 지역이 ⑦에 대한 응답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II. 조사의 몇 가지 기본 결론

조사의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몇 분야로 나누어서 결론지을 수 있다.

A : 보통 혹은 중립적인 응답의 수량 : 한국 관련 정보가 심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B : 전체대비 : 전체결론

C : 성별대비

D : 학력대비

E : 지역대비 : 특별히 참고할 만한 지역을 선출

	일반수량	전체대비	성별대비	학력대비	극단영역
한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적 많음	긍정적	남>여	학사>석사	천진, 하얼빈
북한에 대한 이미지	비교적 많음	부정적	남>여	석사>학사	북경, 상해
한국의 국력	비교적 많음	긍정적	여>남	석사>학사	천진, 하얼빈
한국인에 대한 견해	비교적 많음	긍정적	여>남	학사>석사	하얼빈
통일 문제의 중요성	비교적 많음	부정적	남>여	석사>학사	하얼빈
통일 가능성	비교적 많음	부정적	남>여	서로 비슷함	차이 크지 않음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비교적 많음	긍정적 (비슷함)	여>남	학사>석사	하얼빈
한국 정보 수집의 난이도	비교적 많음	긍정적	여>남	석사>학사	하얼빈
관심과 이해정도	북경: 관심도는 높지 않음, 그러나 이해도는 높음				
한국 정부에 대한 견해	비교적 많음	긍정적	여>남	석사>학사	천진
비우호 정서		부정적	남>여	학사>석사	상해
비우호 정서 정도	응답자수 많음, 비교적 보편적, 남녀 비슷함, 학사>석사, 북경·천진·하얼빈 지역이 비교적 많음				
비우호 정서 원인	한국인의 민족주의 표출행위, 한국인의대중국 편견 및 우월감, 문화 마찰, 한국인의 무지, 네티즌의 비이성적 행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한중 관계 방향		긍정적	여>남	석사>학사	하얼빈, 천진
한·중 관계 협력 분야	국민문화소양, 민족주의 자제, 상대에 대한 객관적 이해, 양국협력으로 일본에 대응, 청소년 교류, 언론에 대한 책임				
희망 종사 분야	종사 하기 싫다는 응답자 다수, 경제와 문화체육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 청소년 교류, 정치외교 교류, 학술 교류				

한반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살펴 보았을 때, 중국 청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 수준은 여전히 낮았으며, “별 느낌이 없다” 혹은 “좋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중국의 “별 느낌이 없다”라는 뜻은 “관심이 없다” 혹은 “흥미 없다”라는 뜻과 같다. 이 점은 “귀하가 앞으로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한국은 통일문제에서 이미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였고, 국가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은 이미 북한을 추월하였다. 이 점은 중국 청년의 심리에서 북한이 비록 중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지만 그 지위는 이미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다.

상술한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실시한 한반도 통일과, 사실상 한국 위주의 통일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의 응답률이 비슷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고,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는 사실상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낙관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우호 정서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비우호 정서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남녀 응답률이 비슷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원생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북경·천진·하얼빈 지역이 비교적 높았다. 그 중에서 한국의 민족주의 행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 문화 마찰, 한국인의 무지, 네티즌의 비이성적 행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비우호 정서를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중 관계 미래 발전에 대한 중국 응답자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한·중 양국이 국민의 문화적 소양, 민족주의 자제, 상호 객관적 이해, 일본에 대한 협력 대응, 청소년 교류, 언론의 책임성 등의 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 응답자가 한국정부, 한국인,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남성 응답자는 정치, 한중 관계 중요성, 통일 가능성, 정치외교 교류, 비우호 정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학력 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의 답변은 주로 소극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이미지, 비우호 정서, 한반도 통일의 중국에 대한 영향 등이다. 대학원생은 대부분 통일과 정치 문제, 한중 관계 발전 등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지식의 수준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이나 한·중 관계와 상관없이 북경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아마도 북경과 상해가 중국의 정치·문화·경제중심인 것과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두 지역이 특히 이목을 끌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얼빈과 천진이다. 특히 하얼빈 지역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으며 그 원인은 눈여겨 볼 만 하다.

III. 건의 및 정책 방향

1. 조사의 개선점

이번 조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는데 청년층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시 되었다. 그리고 성별, 학력,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실시되었다.

다음 기회에 가능하다면 조사 대상 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관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예를 들면, 학술계층, 비우호 집단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2. 두 가지의 의제와 체감의 차이 및 그 원인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중국의 학자계층 특히 한반도 연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 학자와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미지 조사결과와 이번 조사의 결과는 달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다수는 한반도 통일에 회의적이었으며, 통일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도 이와 같았다. 응답자 대다수가 일반인(네티즌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한국정부, 한국인,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다른 결과와 관점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관찰하고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노력과 방향

(1) 한국에 대한 선전 강화

비록 이번 조사의 결과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에 대해 무관심한 응답자가 매우 많았으며, 전체 관심도 또한 높지 않았다.

중국 청년들의 한국에 대해 조금 알고는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 학생들에게 선전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급도와 깊이도

학력은 한국, 한·중 관계, 통일문제의 인지와 관련이 크지는 않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지식을 널리 보급해야 하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

학원생의 지식의 깊이(수준)에 맞게 보급이 되어야 한다. 보급도와 깊이도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한다.

(3) 지역의 균형

북경, 상해 등의 지역은 한국이 중국에 진출하는 교두보이며, 이 지역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있다. 그러나 정보 범람의 위험이 있으며, 이해 정도의 깊이가 이해의 수준을 높이지는 못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광주, 천진, 하얼빈 등 “변방” 지역에 대한 선전 또한 중요하다. 특히 하얼빈 지역은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중국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한국과 북한의 거리가 가까워서 한반도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우리를 놀라게 한 지역은 하얼빈 지역이었고, 하얼빈 지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매우 강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대도시들과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中国青年对韩半岛统一的展望与对韩中关系的认识

郑继永

上海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

本文试图通过对一些调查问题的分析，来研究中国青年学生对韩半岛统一的展望与韩中关系的认识，并通过与体感认知的比较，来分析这种结论出现的原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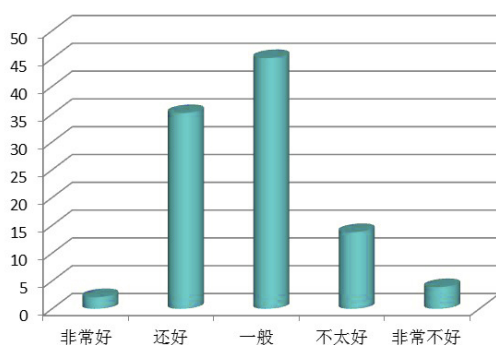
一、调查结果

（一）朝鲜半岛基本认知的基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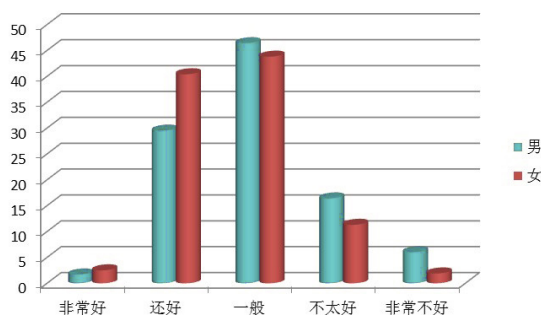
中国青年对朝鲜半岛的认知有一个基本的前提，就是对朝鲜半岛的基本认识，其中包含了对韩国、朝鲜的印象，以及对于韩国国力与韩国人形象的看法。

1. 對朝國的印象 (Q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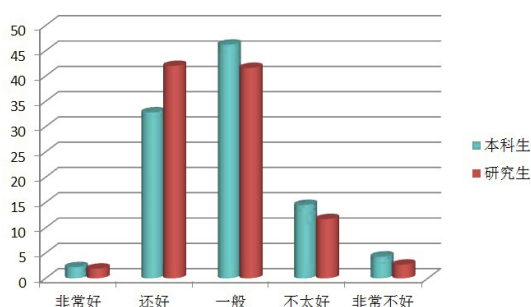
总体上看，中国青年对于韩国的印象是偏向正面的，回答“非常好”（2.1%）与“还好”者（35.2%）占三分之一强，远高于回答“不太好”（13.8%）和（3.9%）者。45.1%的人认为印象一般，未置可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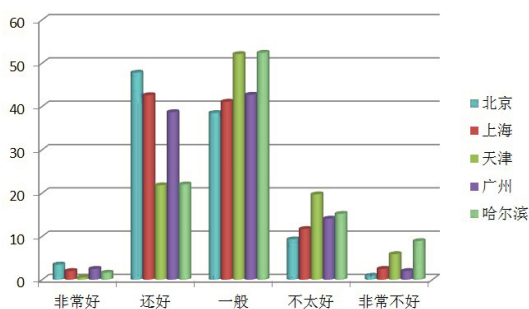
从性别来看，回答“一般”者比例差不多（男：46.4%，女：43.8%），回答“还好”者中女性（40.4%）要高于男性（29.5%），显示出女性对于韩国的印象认知更为正面。同样，在回答“不太好”，尤其是“非常不好”者中，男性多于女性。可以说，对韩国印象持负面的中国青年中，男性是负面看法的主要持有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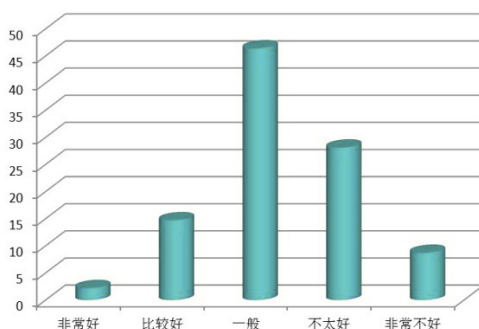
从学力来看，调查结果与性别调查大同小异，仅仅是回答“非常好”和“非常不好”者中，本科生要多于研究生。



从地域来看，对于韩国的印象差别相对较大，持正面印象者中，北京最多，上海次之，广州再次之。而天津与哈尔滨的调查对象则更多的持负面态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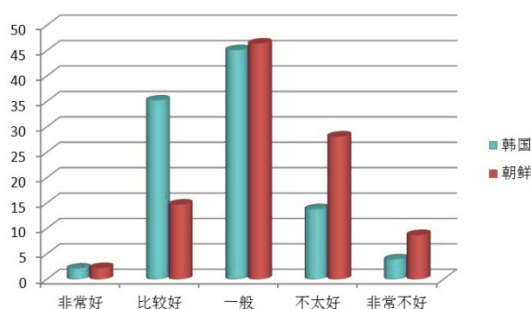


2. 對朝鮮的印象 (Q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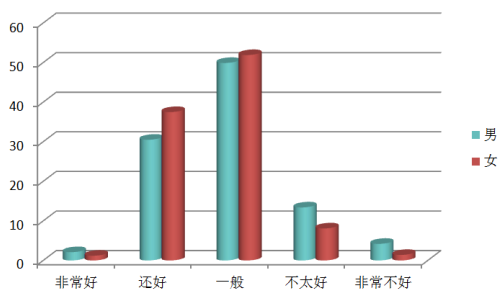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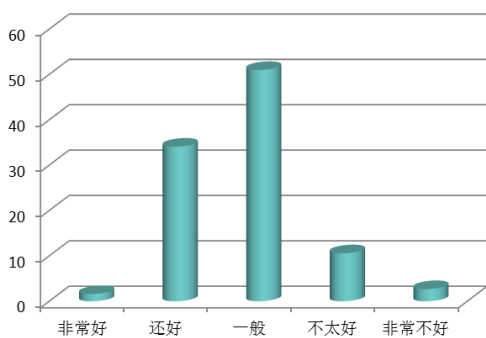


其它方面的调查与总体印象大致相同。从性别来看，男性所发挥的作用比较大，对朝鲜印象不好者多为男性，尤其是回答“非常不好”者。从学力来看，可以说，本科生对于朝鲜的印象更不好，而研究生的印象则相对中庸。从地域来看，对朝鲜印象不太好者均匀地集中在几个大城市，比例在各个答案中都比较平衡，值得注意的是，回答“非常不好”者也均衡地出现在各大城市的调查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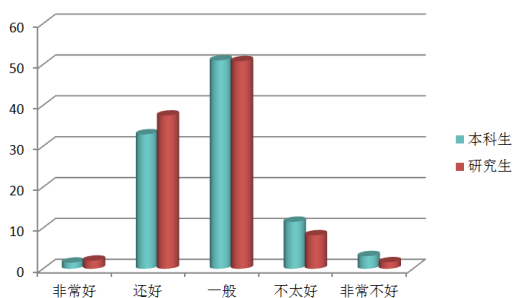
与一般人的认识不同，本次调查颠覆了中国人的感情上的认知。总体上看，中国青年对于朝鲜的认知是较为负面的。从数据对比来看，这种印象更为深刻：在“比较好”的回答中，韩国（35.2%）远高于朝鲜（14.7%），而在负面回答中，“不太好”（13.8%：28.1%）和“非常不好”（3.9%：8.7%）的对比更为鲜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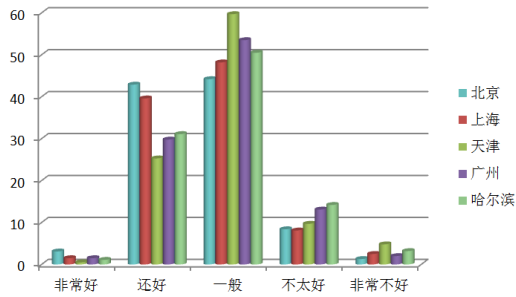
总体上讲，中国青年对韩国政府的看法较为正面，远多于不太好和“非常不好”的回答。



从性别来看，女性的看法要好于男性，尤其是在“还好”的回答上更为明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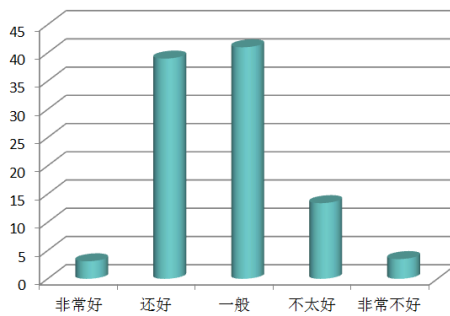


从学力来看，差别不太明显，在“还好”的回答上，研究生要高于本科生一些，在“非常不好”的回答中，本科生要高于研究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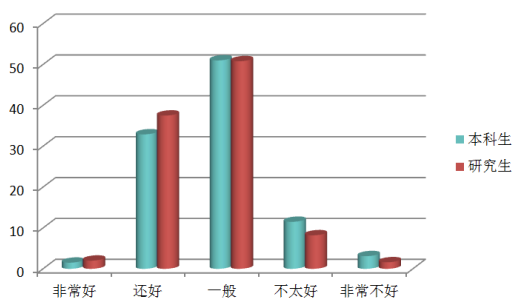


从地域来看，北京与上海持正面态度者更多，其它几个城市都相差不多。在非常不好的回答中，天津比较突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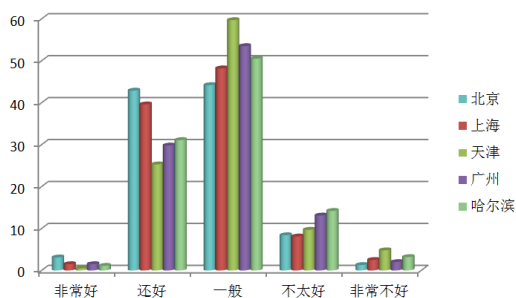
3. 對韓國人的看法



从性别来看，女性的看法要好于男性，尤其是在“还好”的回答上更为明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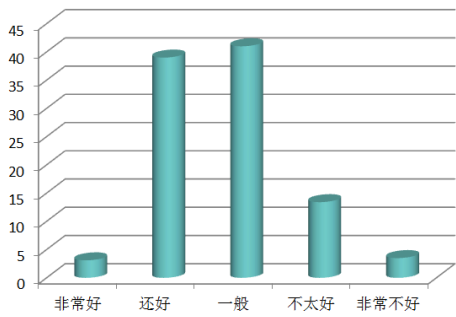


从学力来看，差别不太明显，吸“还好”的回答上，研究生要高于本科生一些，在“非常不好”的回答中，本科生要高于研究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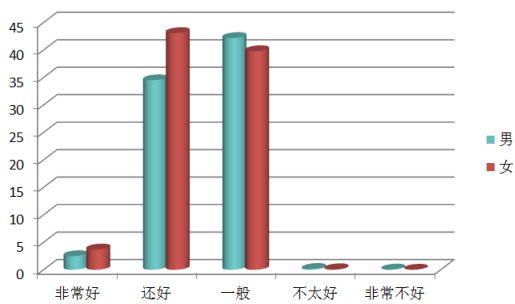


从地域来看，北京与上海持正面态度者更多，其它几个城市都相差不多。在非常不好的回答中，天津比较突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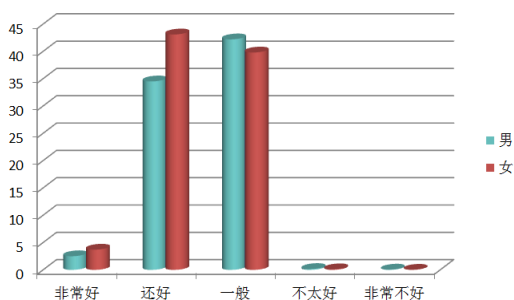
3. 對韓國人的看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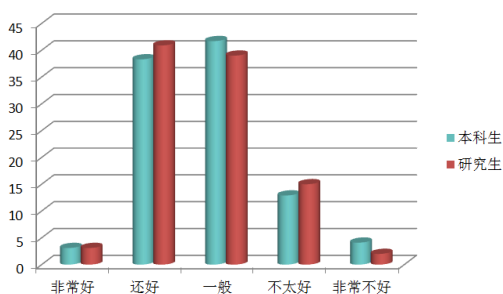
总体上看，中国青年对于韩国人的看法还是比较正面的，持负面看法的人并不占多数，与前面对韩国的看法保持了基本一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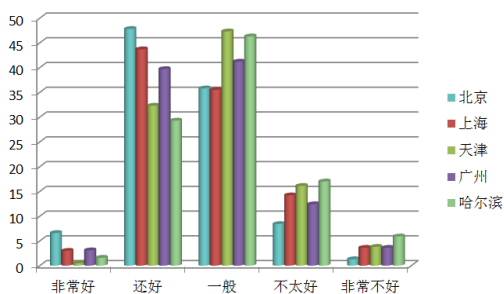
从性别来看，持正面印象者占据了绝大多数，而女性对于韩国人的印象普遍好于男性。



从学力来看，差别较大的是“非常不好”的回答，本科生要远高于研究生，说明在更为年青的大学生中对韩国人持有负面的态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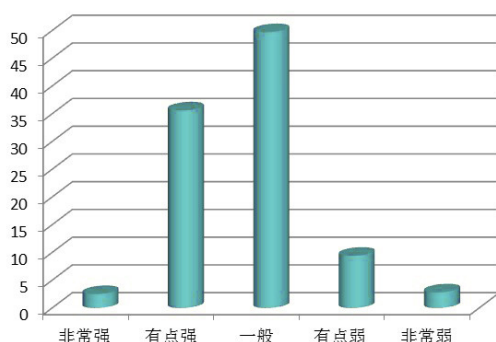


从地域来看，北京对韩国人的印象是最好的，上海和广州次之。值得注意的是，哈尔滨对于韩国人的印象却非常明显，对韩国人的恶感远高于其它城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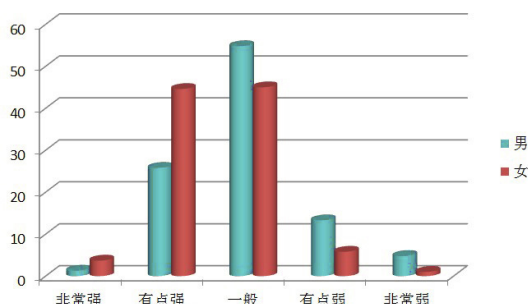


在上述基本认识中，还需要谈到一个事实，即回答“一般”者是数量上的绝对多数，即反映了中国青年中大多数并不关心朝鲜半岛事务的心理。应该说，这种不关心、对韩国的好印象、对朝鲜的恶感是中国青年对朝鲜半岛统一问题印象的基础。

4. 韓國的國力 (Q20, Q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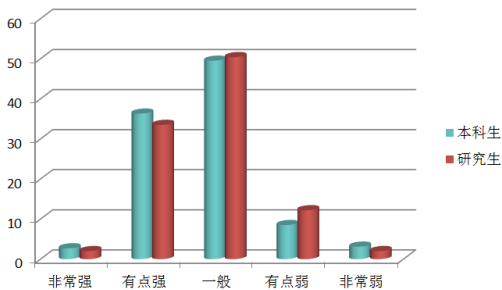


总体上看，中国青年还是比较认可韩国的国力，有超过38%的受访者表示韩国的国力较强，而只有约12%的人认为韩国国力处于弱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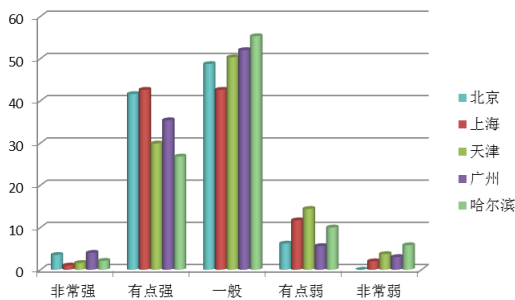


从性别来看，也反映了这种总体印象，但男性的印象并不如女性深刻，只有约27%的男性认为韩国国力处于较强地位，而超过48%的女性认可韩国

的国力。



学力方面的反映同样如此，本科生与研究生的答案相对均衡，都约有35-40%的本科生与研究生认可韩国的国力。相对而言，在认为韩国国力“有点弱”这一问题上，研究生更多一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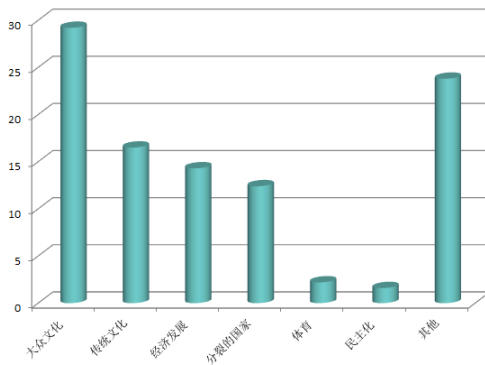


从地域来看，在基本认可韩国国力较强的基本上，由“非常弱”这一选项可以看出，哈尔滨地区的回答有些突出。同样，在回答较强的人群中，北京与上海的回答也相对突出。

(二) 朝鲜半岛统一问题

1. 統一問題所占重要性比較 (Q6)

首先，我们看一下统一问题在中国青年心目中的比重。Q6调查设问题目为“提到韩国最先想起来的是什么”，其中设置了7个选项，即大众文化、传统文化、经济发展、分裂的国家、体育、民主化、其他等。这些选项中，“分裂的国家”项只有12.4%，代表了中国青年对朝鲜半岛分裂现实的认识程度。



总体上看，中国青年对于韩国分裂现实的关注度并不高（12.4%，111人），远不及对于韩国文化与传统文化（29.2%，261人；16.5%，148人），与前面对韩国、韩国人、朝鲜印象的调查显示出高度的统一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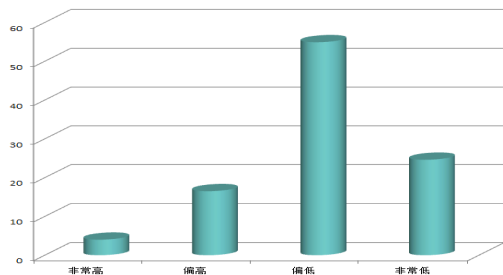
从性别来看，男性（74人，17.4%）更关注朝鲜半岛分裂的现实，多于女性（37人，7.9%）；从学力来看，本科生比例（76人，11.5%）少于研究生（35人，15.1%），显示出研究生有着更广泛的国际问题视角。然而，从家庭收入状况来看，这种区别就显得有些大，北京为13.8%（27人）、上海12.9%（24人）、天津16.9%（20人）、广州9.0%（15人）、哈尔滨9.2%（16人）。相对而言，北京、上海、天津等政治、经济中心与大都市对于朝鲜

半岛的关注程度相对较高，如果说广州由于地缘上离朝鲜半岛较远而显示出较低关注程度的话，哈尔滨的低比例有些令人意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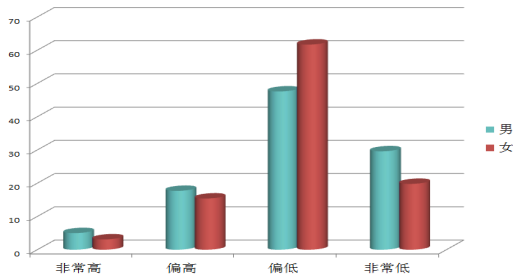
2. 統一的可能性（Q22）

本项调查设问题目为“对韩半岛统一的可能性看法”，主要调查对韩半岛统一可能性的视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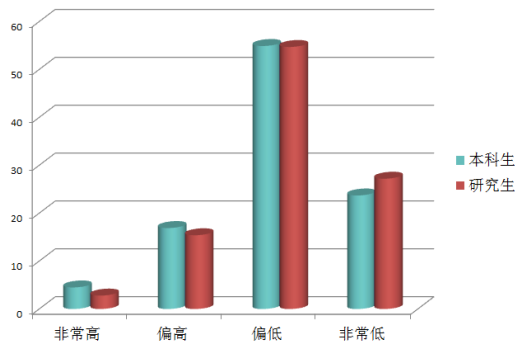
总体来看，中国青年对韩半岛统一可能性的认识处于较低水平，所有993名调查对象中，持肯定看法者（非常高4%，40人；偏高16.5%，164人）者远低于否定看法者（偏低54.9%，545人；非常低24.6%，244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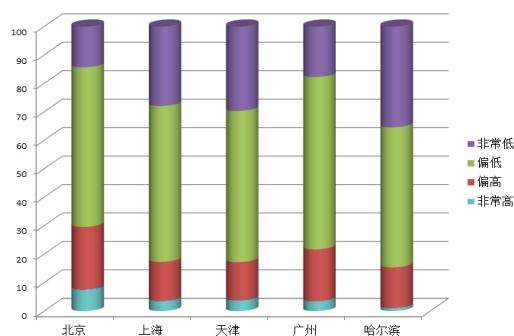
从性别来看，男性认为韩半岛统一可能性较高者（5.0%，17.7%）略高于女性（3.1%，15.4%），认为可能性较低者（47.6%，29.6%）略低于女性（61.7%，19.8%）。从性别角度讲，对于朝鲜半岛统一可能性的认知基本上是统一的，四种答案的分布也基本一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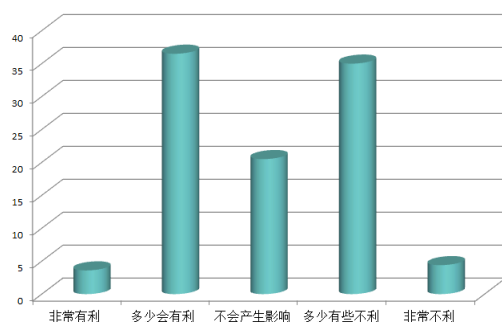
从学力来看，认为韩半岛统一可能性高者本科生（4.5%，16.9%）与研究生（2.8%，15.4%）差不多，回答“偏低”（54.9%，54.7%）与“非常低”（23.7%，27.2%）者也基本保持一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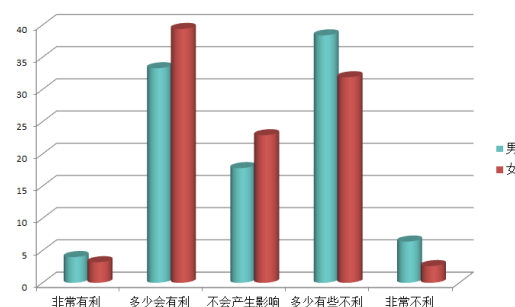
在地域分布上，各地的情况稍有不同。上海、天津、哈尔滨的回答大致相差不大，而北京与广州的数据令人关注。在认为韩半岛统一可能性较高的回答中，北京高达29.6%（7.6%+22%），远高于上海（17.3%）、天津（17.2%）、哈尔滨（15.4%）、广州（21.7%）。同时，在认为韩半岛统一可能性非常高的调查对象中北京（7.6%）与哈尔滨（1.1%）远远不同于上海（3.6%）、天津（3.8%）、广州（3.5%）。与之相对应，认为韩半岛统一可能性较低的调查对象除北京（70.4%）之外，其它几个城市都相差不大（上海：82.7%，天津：82.8%，广州：78.3%，哈尔滨：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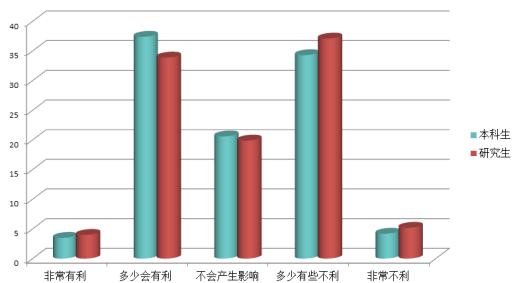
总体上看，调查结果比较有戏剧性，即认为“非常有利”（3.6%）和“非常不利”（4.4）差不多，而“多少会有利”（36.5%）与“多少会不利”（35.0%）基本相当，中间无所谓者为20.5%。



从性别来看，男性认为有利者约为37.3%，不利者为44.8%，无影响者为17.8%；女性认为有利者为42.6%，不利者为34.5%，无影响者为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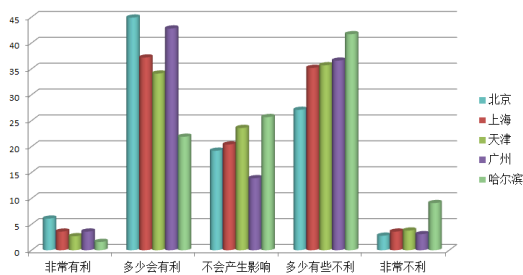


从学力来看，本科生认为有利者为40.9%，不利者为38.5%，无影响者为20.6%；研究生认为有利者为37.9%，不利者为42.3%，无影响者为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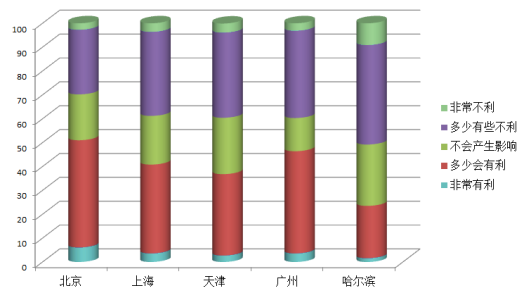
地域的区别再一次显现。北京认为有利者为51%，不利者为29.9%，无影响者为19.2%。而上海地区认为有利者为40.8%，不利者为38.8%，无影响者为20.4%。天津地区认为有利者为36.8%，不利者为39.5%，无影响者23.6%。广州地区认为有利者为46.4%，不利者为39.7%，无影响者为13.9%。哈尔滨地区认为有利者为23.5%，不利者为50.8%，无影响者25.7%。

在极端数据方面，认为非常有利者中，北京（6.1%）与哈尔滨（1.6%）形成了鲜明对比，而非常不利者中，北京（2.8%）与哈尔滨（9.1%）再次形成鲜明对比。



为更明确地显示各个地区对于韩半岛统一的认识程度，本文对上图做了一些改造，以各地对不同选项的认识度为纵轴，以地域为横轴，图示如

下。这样更为清楚地显示出，认为有利者的回答中，北京地区超过了50%，而哈尔滨地区只有23.5%，对比鲜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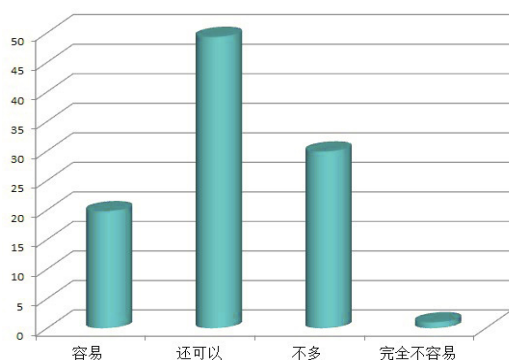


（三）韩中关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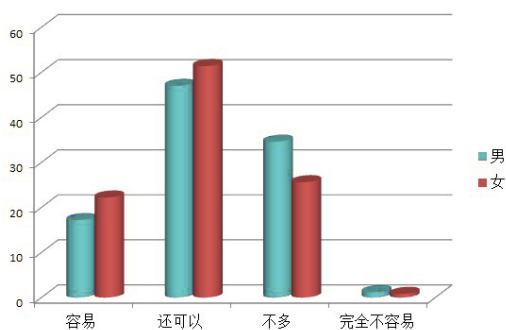
有关韩中关系的相关调查主要有对韩国的关心与理解程度、对韩国政府与韩国人的看法、反韩情绪的认知，以及韩中关系的变化与如何努力推动韩中关系发展等几个方面。

1. 對韓國的關心与理解程度 (Q8,Q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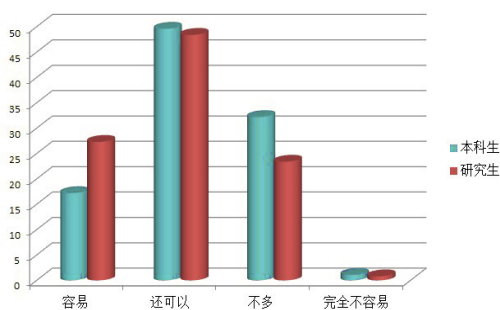
首先是有关韩国信息获取的难易程度。（Q8）总体上讲，韩国获取还是非常容易的，回答“容易”（19.8%）和“还可以”（49.3%）超过70%，回答“不多”者也有29.9%。说明，韩国相关信息在中国的传播还是较为广泛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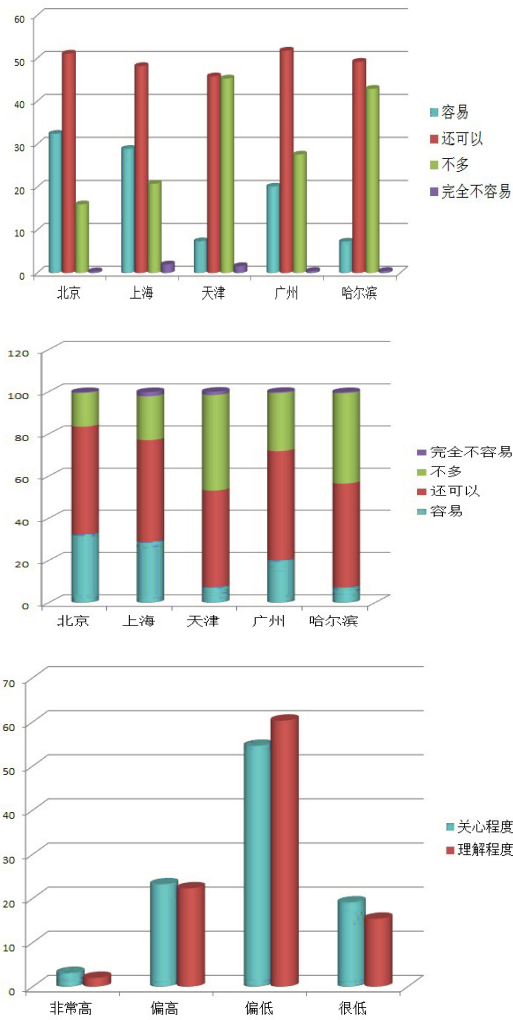
从性别来看，由下图可以看出，女性对于韩国信息的接受相对广泛。



由学力来看，研究生的接受程度与范围超过本科生，可能是与研究生的知识面有密切关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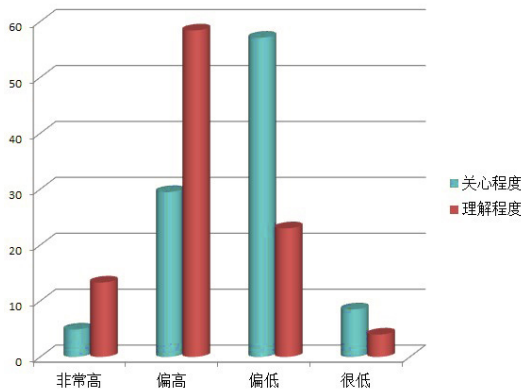
由地域来看，北京与上海地处中国的政治与经济中心，接触韩国相关信息较多，而天津与哈尔滨则表现出相反的结果，广州地区则相对对韩国关注较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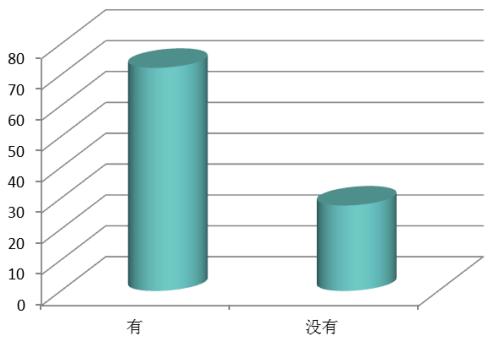
上表为关心程度（Q10-1）与理解程度（Q10-2）的总体对比。可以看出，在较高或很低的关心度下，理解程度并不同步。但在偏低的关心度层次

上，理解度反而更高一些。在分别对性别、学力层次上的对比也出现了相似的结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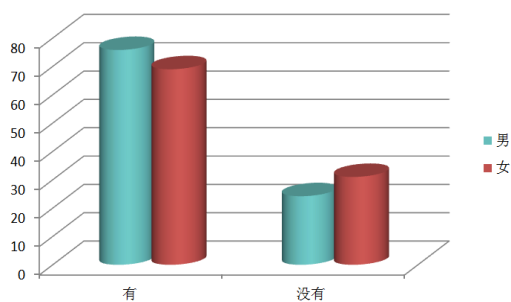
在地域层次上，北京地区表现得最为明显，即关心程度不高，但理解程度很高。其它地区与总体印象相似，不再重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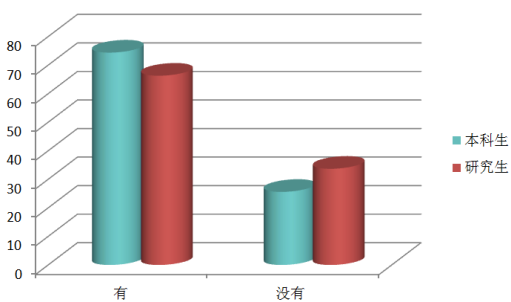
25 , Q26 , Q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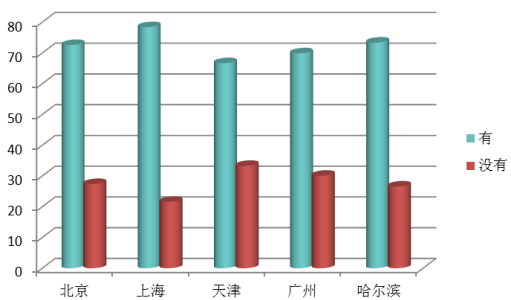
在反韩情绪的认知上，总体上绝大部分的被调查者认知都确认了反韩情绪的存在。



从性别来看，男性与女性认为存在着反韩情绪的比例相当，都有较大的比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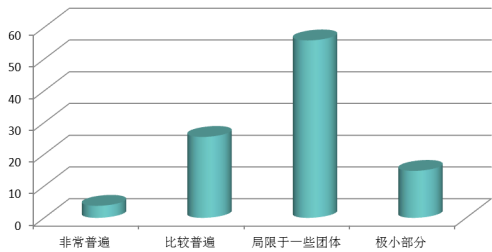
从学力来看，本科生认为存在反韩情绪者要多于研究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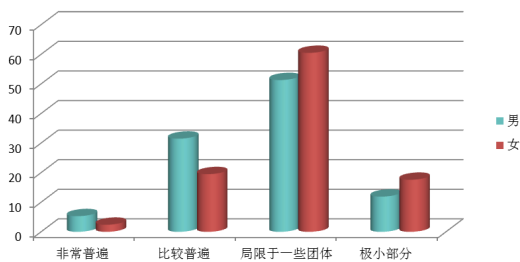
从地域来看，上海的调查结果令人惊异，认为存在着反韩情绪者相当

多，哈尔滨与北京的被调查者也有较高比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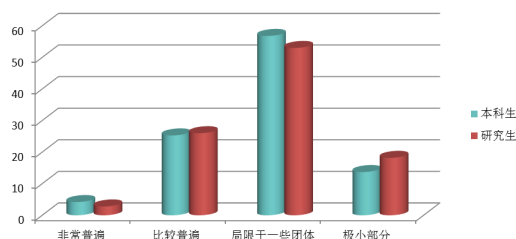
从对反韩情绪程度的调查显示，认为“局限于一些团体”者占了半数以上，而认为“比较普遍”者与“非常普遍”者也有相当大的比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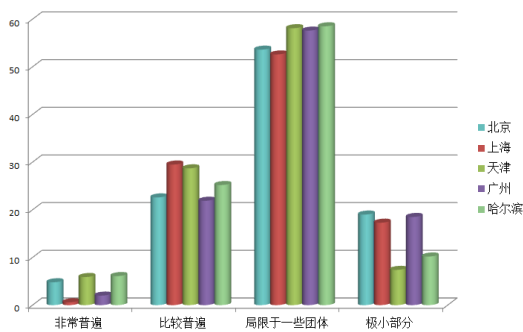
从性别来看，认为“非常普遍”和“比较普遍”者男性要多于女性，而“局限于一些团体”和“极小部分”者女性则多于男性。



从学力来看，认为“非常普遍”者本科生多于研究生，而“比较普遍”者本科生与研究生相差不大，认为“局限于一些团体”者本科生要多于研究生。相反，认为“极小部分”者本科生要少于研究生。



从地域来看，认为“非常普遍”者北京、天津、哈尔滨较多，而“比较普遍”者上海与天津较多，“局限于一些团体”者天津、广州、哈尔滨相对更高，认为“极小部分”者北京、上海、广州较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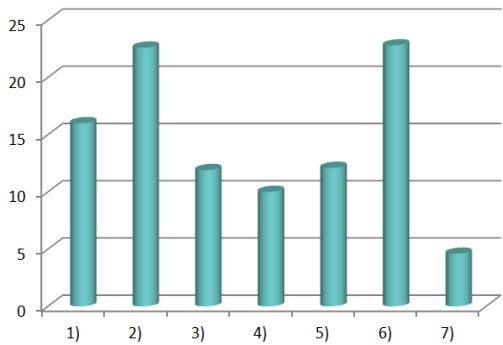


就反韩情绪的原因来看，问题共设置了7个答案，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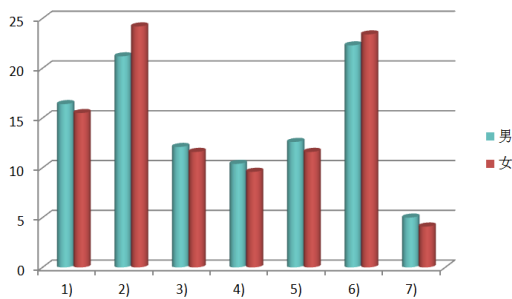
- ①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
- 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
- ③韩国人对中国变化的无知
- ④韩国网民非理性的诽谤
- ⑤韩国媒体夸张而不负责任的报道
- 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
- ⑦其他

总体上看，①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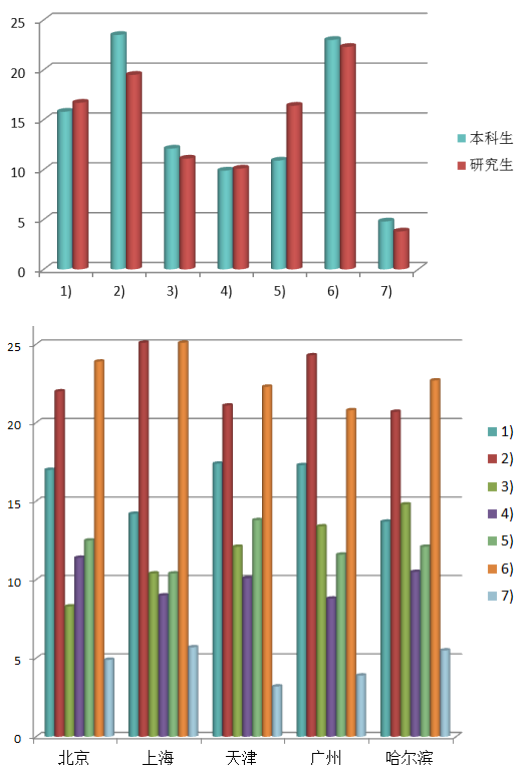
曲占据着较大比重，③韩国人对中国变化的无知、④韩国网民非理性的诽谤、⑤韩国媒体夸张而不负责任的报道次之。



从性别来看，与总体趋势基本保持一致的同时，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项女性明显高于男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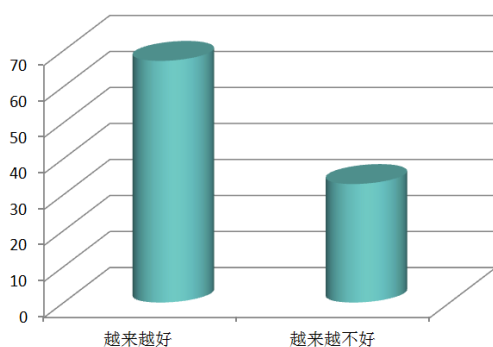
从学力来看，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③韩国人对中国变化的无知、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项本科生高于研究生。在⑤韩国媒体夸张而不负责任的报道项上，研究生比较明显地高于本科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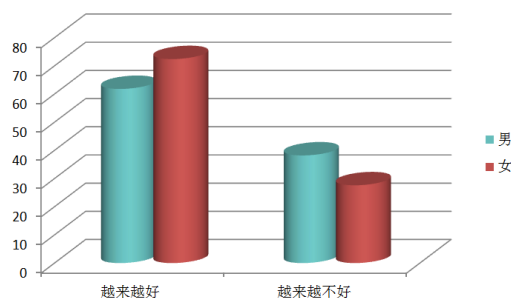
从地域来看，北京、天津地区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①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最为明显，而上海、哈尔滨地区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最为明显，广州地区②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⑥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①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最为明显。

3. 韓中關係的 變化 (Q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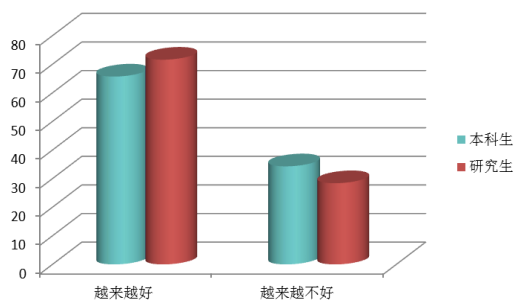
对于韩中关系变化方向的调查也印证了前述韩中关系的调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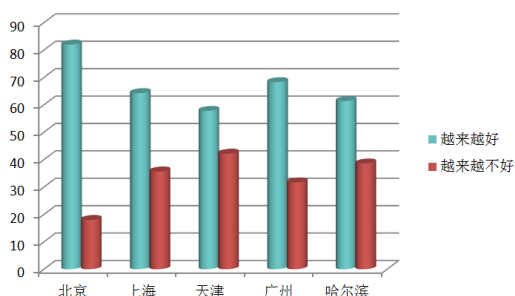
总体上，绝大多数的调查对象认为，韩中关系会“越来越好”，远高于认为“越来越不好”的回答。



从性别来看，女性更为乐观，认为“越来越好”者多于男性。相反，男性则相对悲观，回答“越来越不好”者多于女性。



对于学力的调查同性别一样，研究生更为乐观，而本科生则相对悲观一些。



从地域来看，北京最为乐观，广州与上海次之，哈尔滨与天津相对悲观一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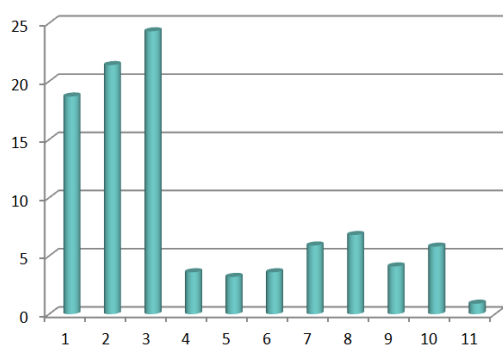
4. 韓中關係 中哪一領域需要做出努力 (Q28,Q29)

本项共有11个答案，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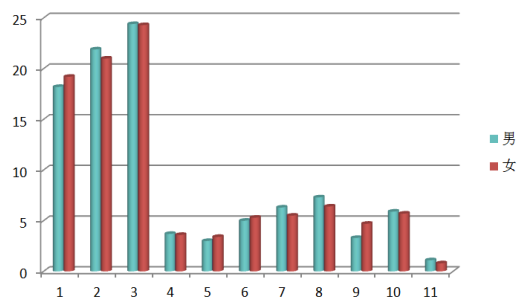
- ① 国民的文化素养
- ② 克制过度的民族主义
- ③ 客观地理解对方
- ④ 定期的首脑会谈或高层对话
- ⑤ 学术交流
- ⑥ 文化体育交流
- ⑦ 青少年交流
- ⑧ 协力应对被日本歪曲的历史
- ⑨ 解决历史领土问题
- ⑩ 对媒体负责
- ⑪ 其他

总体来看，这11个答案所占比例各有不同，前3项，即①国民的文化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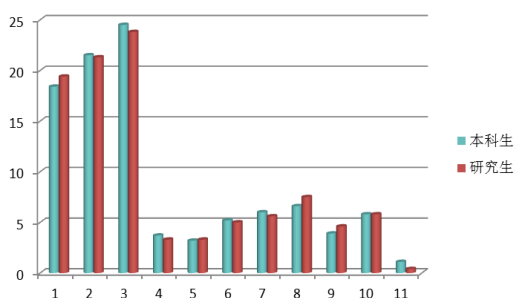
养、②克制过度的民族主义、③客观地理解对方占据了绝大部分。随后是⑧协力应对被日本歪曲的历史、⑦青少年交流、⑩对媒体负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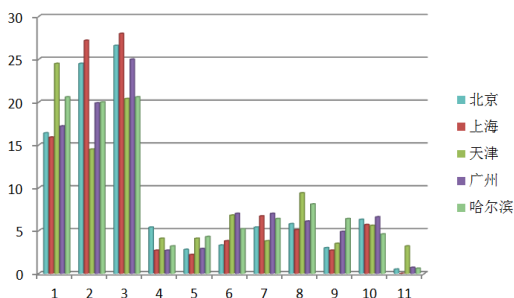
从性别来看，前三项内容，即①国民的文化素养、②克制过度的民族主义、③客观地理解对方所占比例仍然是最大的，而在之后的重要度顺序是8、7、10、6。在对历史领土（9）问题上，女性似乎表现出更大的关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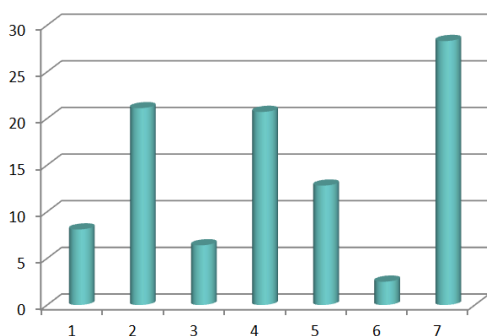
从学力来看，研究生相对更重视①国民的文化素养，而本科生则更重视③客观地理解对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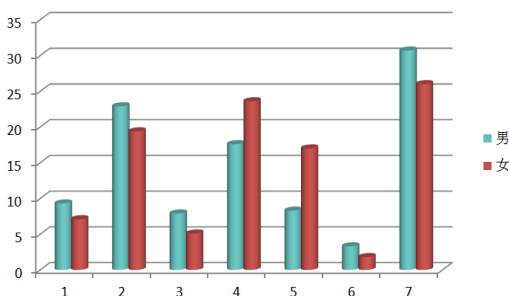
地域上的差别相对较大，①国民的文化素养项中，天津与哈尔滨更为重视，而②克制过渡的民族主义项的回答中，北京与上海则更为重视，在③客观地理解对方项中，上海、北京、广州更为重视。在其它几项中，天津对于⑧协力应对被日本歪曲的历史项的回答较为突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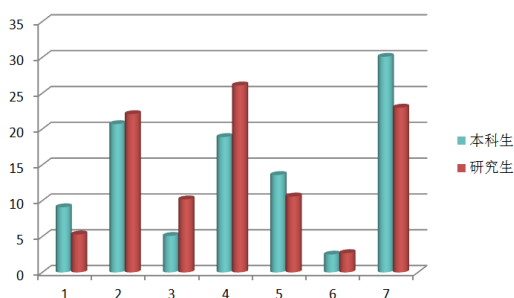
在Q29“往后如果您从事的是发展韩中两国关系事业，您觉得您能在哪个领域胜任？”的调查中，体现了中国青年对于韩中关系发展的期望。该调查共有七个选项：①政治外交领域的交流与合作、②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③关于东北亚历史等问题的学术交流、④文化体育交流、⑤青少年交流、⑥其他、⑦不想从事这份事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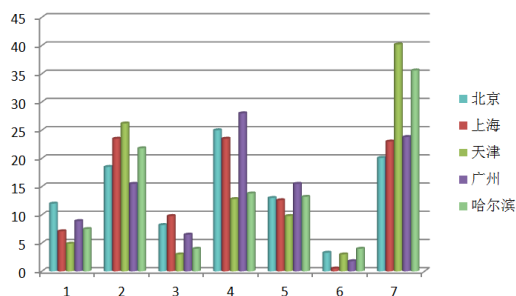
总体上，顺序依次是⑦、②、④、⑤、①、③、⑥。具体来讲，相当多的调查对象选择了⑦不想从事这份事业，表示出了对韩国的不关心，而⑥项是一个无关项，可以排除。相对而言，中国青年更重视韩中两国的经济与文化交流，青少年交流与政治外资则处于较后次序。



从性别来看，男性更重视①政治外交领域的交流与合作和②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④文化体育交流和⑦不愿意从事韩中交流事业的更多。女性更重视女性则更重视③关于东北亚历史等问题的学术交流和⑤青少年交流。



就学力来看，本科生更重视①政治外交领域的交流与合作、⑤青少年交流和⑦不愿意从事韩中交流事业的更多，而研究生则更重视②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③关于东北亚历史等问题的学术交流、④文化体育交流。女性更重视女性则更重视。



从地域来看，①政治外交领域的交流与合作者北京的调查对象更多地选择了肯定回答，而天津、上海、北京与哈尔滨的调查对象更关注②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③关于东北亚历史等问题的学术交流虽然比例都比较低，但北京与上海的回答者更多一些。④文化体育交流方面，北京、上海与广州的调查对象更为关注。⑤青少年交流者比较均衡，广州稍为突出。⑦不愿意从事韩中交流事业者中，天津与哈尔滨的调查对象比较突出

二、调查的几个基本结论

调查的主要结论我们可以分别从以下几个方面来予以总结，即：

- A：一般或中性回答回答的数量：显示出韩国相关信息在心目中的重要程度
- B：总体对比：总体结论
- C：性别对比
- D：学力对比
- E：地域对比：选出特别有参考价值的地域

	一般数量	总体对比	性别对比	学力对比	极端地域
对韩国印象	较多	正面	男>女	本>研	天津、哈尔滨
对朝鲜印象	较多	负面	男>女	研>本	北京、上海
韩国的国力	较多	正面	女>男	研>本	天津、哈尔滨
对韩国人的看法	较多	正面	女>男	本>研	哈尔滨
统一问题重要性	较多	负面	男>女	研>本	哈尔滨
统一可能性	较多	负面	男>女	相等	相差不大
统一对中国的影响	较少	正面 (差不多)	女>男	本>研	哈尔滨
韩国信息获取的难易程度	较多	正面	女>男	研>本	哈尔滨
关心与理解程度	北京：关心程度不高，但理解程度高				
对韩国政府的看法	较多	正面	女>男	研>本	天津
反韩情绪	-	负面	男>女	本>研	上海
反韩程度	人数较多，比较普遍，男女差不多，本科生多于研究生，北京、天津、哈尔滨较多				
反韩原因	韩国的民族主义行为、韩国对中国的偏见与优越感、文化摩擦、韩国人的无知、网民非理性、媒体不负责报道				
韩中关系方向		正面	女>男	研>本	哈尔滨、天津

韩中关系努力领域	国民文化素养 `克制民族主义 `客观理解对方 `协力应对日本 `青少年交流 `对媒体负责
愿意领域	不想从事的数量过多,经济与文化体育交流占了较大部分,青少年交流 `政治外交交流 `东北亚历史学术交流等 °

就对朝鲜半岛的总体印象而言,中国青年对于朝鲜半岛的关注程度仍然处于较低的水平,这可以从上述设问中回答“一般”、“还可以”等较模糊答案的数量来得以佐证。从中国的一般来讲,这种回答等同于“不关心”、“没兴趣”。这一点在你愿意从事何种韩中交流领域的调查中表现得最为明显。

应该说,从基本的认识来看,韩国在统一问题上的正面印象已经树立,在对国家形象的调查中,韩国超过了朝鲜,证明在青年心目中,朝鲜虽然作为中国传统的盟友,其地位已经远不如韩国。

同样,在对韩国政府和韩国人印象的调查中,正面回答也超过了负面回答。

基于以上一些对于朝鲜半岛的基本认识,对于朝鲜半岛统一,事实上是基于韩国为主的统一的调查中,虽然认为这种可能性尚小,正反两方的回答绝对数量也差不多,但在相对数量上,正面回答超过了负面回答,认为朝鲜半岛的统一有利于中国。由于这一调查从根本上排除上中国对于朝鲜半岛统一的不利看法,可以说是一个可喜的结论。

就反韩情绪与程度而言,认为存在反韩情绪者占较大比例,人数较多,比较普遍,男女差不多,本科生多于研究生,北京、天津、哈尔滨较多。其中,韩国的民族主义行为、韩国对中国的偏见与优越感、文化摩擦、韩国人的无知、网民非理性、媒体不负责报道是最主要的推动因素。

对于韩中关系的未来发展,中国调查对象多数持正面态度,认为韩中双方应在国民文化素养、克制民族主义、客观理解对方、协力应对日本、青少年交流、对媒体负责等方面做出更多的努力。

就性别来讲,女性普遍更愿意从正面角度解读韩国政府与韩国人、统一问题,而男性则更多关注政治方面,韩中关系重要性、统一可能性、政治外交交流、反韩情绪等。

就学力来讲，本科生的回答多集中于对韩稍不利的领域，如对韩国印象、反韩情绪、统一对中国的影响等，而研究生则更多地将视野置于更为宏观的统一与政治问题、韩中关系发展等，显示出知识面的增加对于韩中关系的影响。

就地域来看，无论是朝鲜半岛统一还是韩中关系，北京都是一个重要的正面地域，对于韩国的视角明显正面，这可能与北京、上海作为中国的政治、文化与经济中心有较大关系。本次调查中有两个需要特别关注的地域，即哈尔滨与天津。尤其是哈尔滨地区，对于韩国的视角持负面的更多，其形成原因值得关注。

三、建议与政策方向

(一) 调查的改进

本次调查中，更多地将重点置于青年学生，即本科生与研究生这两个群体，并细分了男女性别、学力、地域等。本文认为，未来如有可能，则可更进一步细化，并进行对比，则可能得出更为精确的观察与结论。如对一些特殊团体，如学术团体、反韩群体、知韩群体等，进行有针对性的调查。

(二) 两种议题与体感的差异及其原因

对于本次调查的基本结论，一个最深刻的印象就是与中国学者层，尤其是朝鲜半岛研究者群体的观察稍有距离。如对统一的想法上，至少在学者与政治决策者层面，所进行的印象调查与该结论不同，绝大多数的被调查者都对朝鲜半岛统一持有疑虑，认为不仅统一可能性很小。同样，对于朝鲜印象的调查也是如此，大多数普通人，包括网民，对于韩国政府、韩国

人、韩国企业的印象相对负面，然而，本次调查的结论却与此出入较大。如何调和这两种不同的结论与观点，需要进一步的观察与实证。

（三）努力的方向

1. 加大對韓國的宣傳

虽然本次调查的结论正面较多，但一个不可忽视的现实是，对韩国漠不关心的绝对数量很大，整体关心度不够。对于韩国在，青年学生虽然有所了解，但达到理解的程度仍在相当差距。需要通过综合的手段，加大对以青年学生为对象的宣传，以提高对韩国的关心度，从根本上提升韩国的形象。

2. 普及度与深入度

就学力而言，应该说，对于韩国、韩中关系、统一问题的认知相关不是太大，应以本科生为对象做普及韩国相关知识的推广，而以研究生为对象，进行相关研究工作的深入，做到普及度与深入度两个方面的并重。

3. 地域的平衡

毋庸置疑，北京、上海等地是韩国进军中国的桥头堡，这些地区对于韩国的认知度已经达到相当水平，然而却存在着信息泛滥的危险，即认识度的深入并不能带来理解的增加。如何解决这一问题值得思考。

同样，对于广州、天津、哈尔滨等“边缘”地区的宣传也是个重要问题。尤其是哈尔滨地区，在中国人的一般印象中，哈尔滨地处中国东北，与韩国、朝鲜比较接近，更能认识和理解朝鲜半岛，尤其是韩中关系和朝鲜半岛统一问题。然而，调查的结论令人惊讶，尤其是哈尔滨地区，对于韩国的印象非常负面。未来如何平衡这些大城市，也是一个重要的课题。

지정토론

이 희 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 정계영 교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로써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청년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객관적 논의결과는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미래세대의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장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호적이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한국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우호적인 반면 반한정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주로 한국의 민족주의 경향 등에서 찾았다.

○ 일반적으로 현재 “한중관계가 나쁘다”는 인식과는 달리 청년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중관계가 나쁘다”는 인식 자체가 경험적 근거가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과 일반대중의 인식구조가 다르다는 것인지를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37.3%)는 다른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때, 좀 더 명확한 의미를 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 기법상,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중국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조사결과 천진과 하얼빈 등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인지? 아니면 한국기업이나 체한 중국노동자들

의 경험이 반영된 것인지, 한중경제관계와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이 조사결과에서 누락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청년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다. 즉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한반도 통일, 한류, 한중관계,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 우선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된 질문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립노선이나 한미동맹의 조정은 미국의 반발로 인해 안보위협이 급증할 수 있고, 동맹만으로는 현재의 미중관계의 복잡성에서 오는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중국정부와 중국인(중국청년)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 경로는 무엇인가, 중국은 국경을 인접한 한반도가 중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민감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체제에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움직이면서 국경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설정하여 힘의 공백을 흡수하거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질서를 원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통일도 분열도 아닌(不通不亂)’, ‘뜨겁지도 차갑지도(不熱不冷)’ 않은 상태, 즉 사실상 평화로운 분단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접근하고나 현상타파를 힘을 통해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세력변화가 반드시 중국의 이익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적어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반도의 미래상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결국 한중관계 발전의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부

- 중국의 험한정서 실태 및 대 한국 호감도 증진방안
尹海洁/하얼빈공과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조문영/연세대 교수
-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강화방안
박승준/인천대학교교수
- 지정토론
송진호/한국 YMCA 기획실장

중국의 험한정서 실태 및 대 한국 호감도 증진방안

윤 해 길

하얼빈공과대학교 교수

청년층의 이웃국가에 대한 태도는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성 있는 민간교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중국 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조사는 중한관계의 양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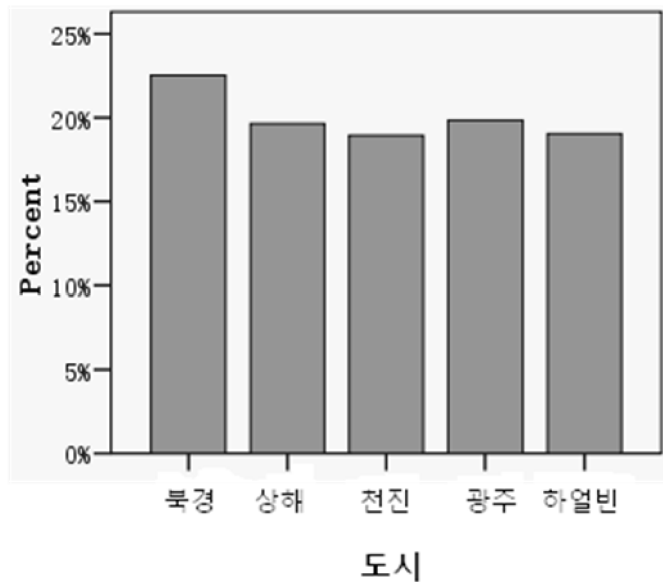
I. 표본구성

이번 조사는 중국의 북경, 상해, 천진, 광주, 하얼빈 5개 도시 대학생 1,00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 483명 여학생 520명으로, 각각 48.2%와 51.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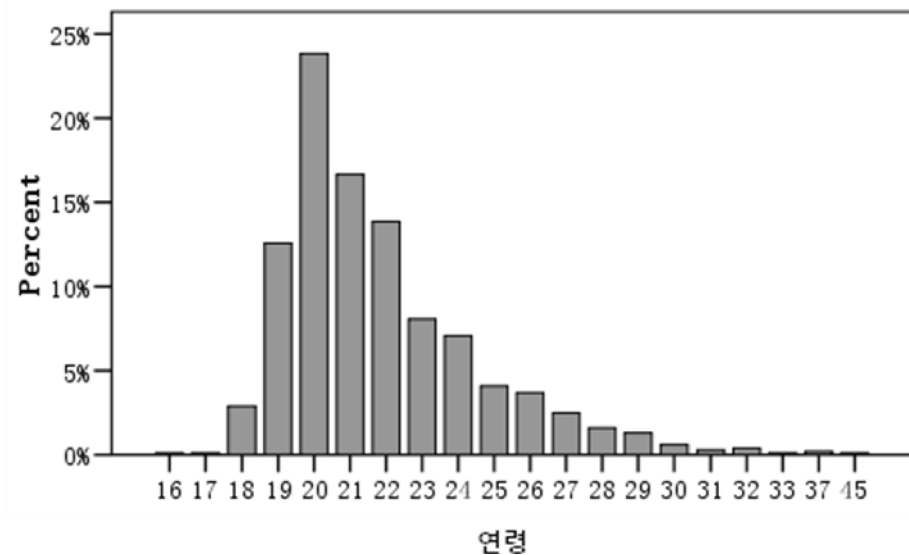
학사생이 746명 석사생이 257명으로, 각각 74.4%와 25.6%를 차지하였다.

가계소득을 상, 중, 하 세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8% 69.9% 27.3%이다.



<그림-1 조사대상의 거주지분포>

조사 대상의 연령분포는 <그림-2>와 같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세이고, 평균연령은 21.84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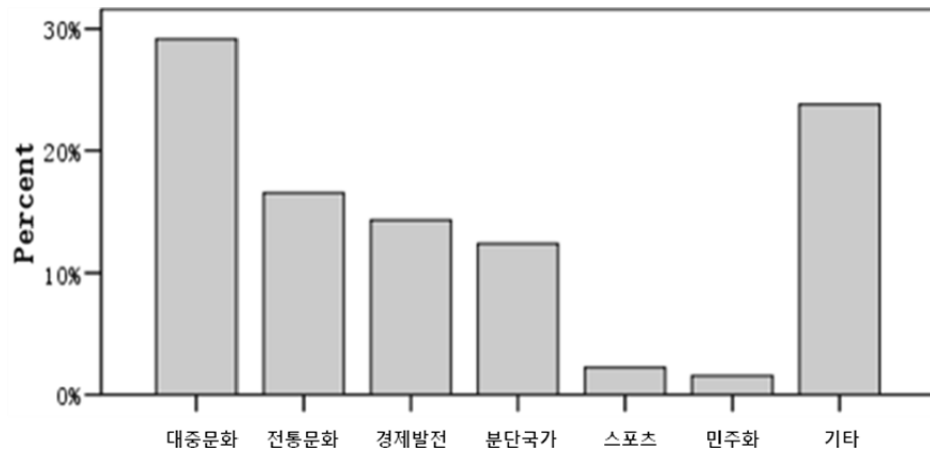
<그림-2 조사대상의 연령분포>

II. 중국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1.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

‘한국을 언급했을 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3>과 같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대학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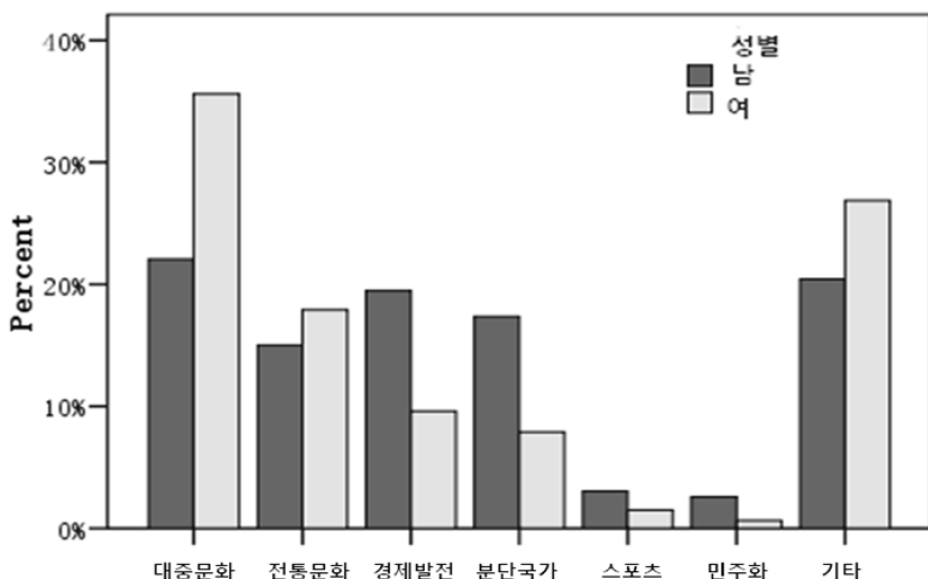


<그림-3 한국에 대한 첫 인상 >

남녀 성별과 이 문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58.3%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 이었다.

남녀 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 차이는 명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그림-4>와 같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했고, ‘경제발전, 분단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했다.



<그림-4 대학생 성별에 따른 한국에 대한 첫 인상>

신분과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11.1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87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사생과 석사생 간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의 차이는 컸다.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학사생이 석사생 보다 강했으며, ‘경제발전’과 ‘분단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석사생이 학사생 보다 강했다.

학생의 거주지와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47.2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3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도시별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의 차이는 컸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북경, 상해지역 학생이 타 지역 학생보다 강했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타 지역 학생이 북경, 상해지역 학생보다 강했다.

하얼빈과 상해지역의 대학생은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분단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하얼빈과 광주지역 학생이 타 지역보다 약했다.

학생의 가계소득 상황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28.6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4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별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는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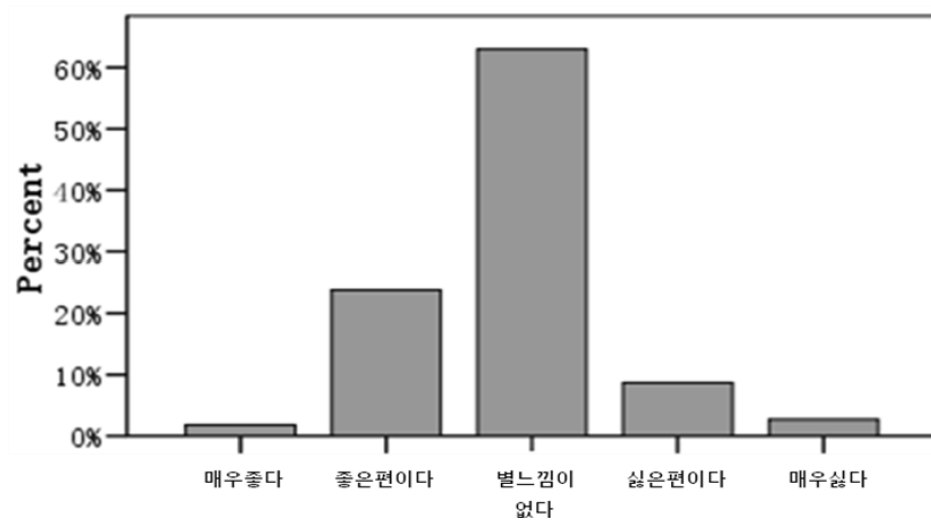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는 중간소득 학생층에서 이미지가 강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은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이미지가 강했다.

연령대와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연령대와 응답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

중국 대학생의 한국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그림-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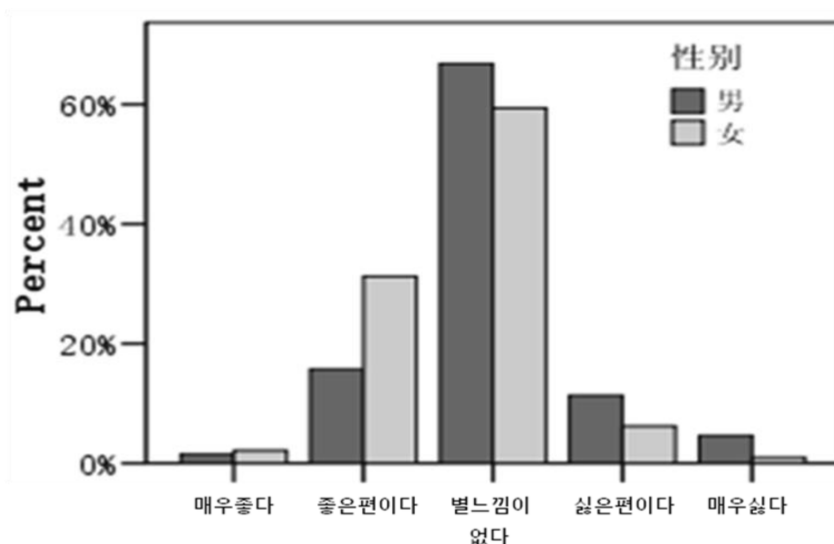
‘좋다’라는 응답이 ‘싫다’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그림-5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

성별과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44.099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이었다.

남녀 대학생의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호감도가 남학생보다 현저히 높았다. 분석결과는 <그림-6>과 같다.



<그림-6 대학생 성별에 따른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

학생의 거주지와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47.2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3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도시마다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북경, 상해, 광주 지역의 학생이 타 지역 학생보다 한국 상품을 더 좋아했다.

학생의 가계소득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교차분석 하였을 때, 카이스퀘어의 값은 16.163이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3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계 소득 별로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한국 상품을 더 좋아하였다.

나이와 학생의 신분은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한국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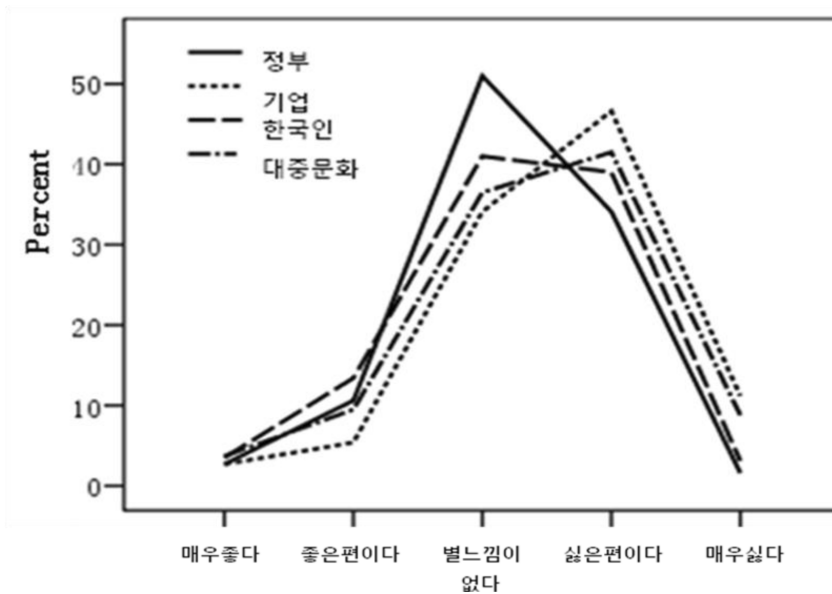
중국 대학생의 한국 정부, 기업, 한국인,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7>과 같다.

전반적으로 중국 대학생의 한국 정부, 기업, 한국인,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주 나쁨’이라는 응답이 3%로, 가장 적었고, 응답자 대부분은 ‘보통,’ ‘괜찮다’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견해가 가장 좋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가 그다음으로 좋았다.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대한 견해는 다소 나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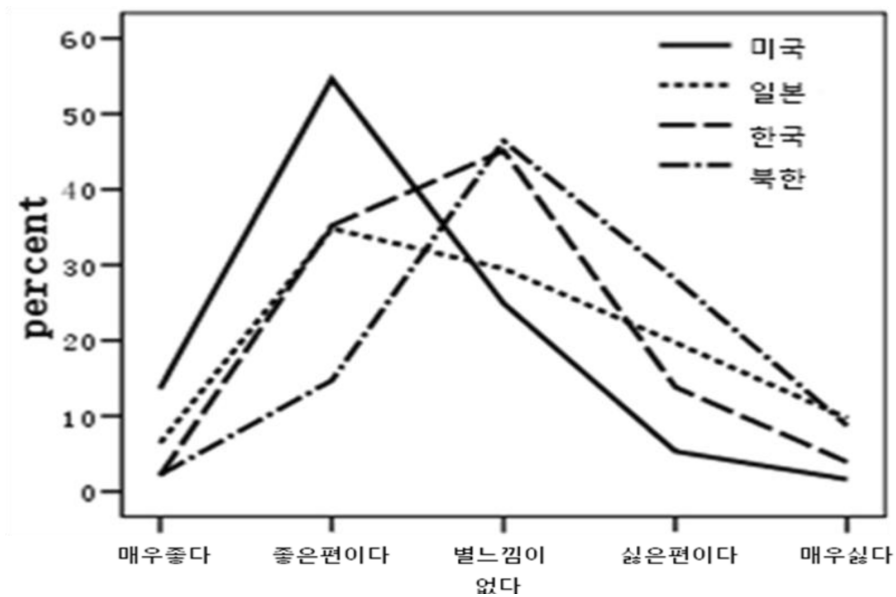


<그림-7 중국 대학생의 한국 정부, 기업, 한국인,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

4. 미국, 일본, 한국, 북한에 대한 견해 비교

미국, 일본, 한국, 북한에 대한 견해 조사 결과는 <그림-8>과 같다.

이미지가 가장 좋은 국가는 미국과 한국 순 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나빴다.



<그림-8 미국, 일본, 한국, 북한에 대한 견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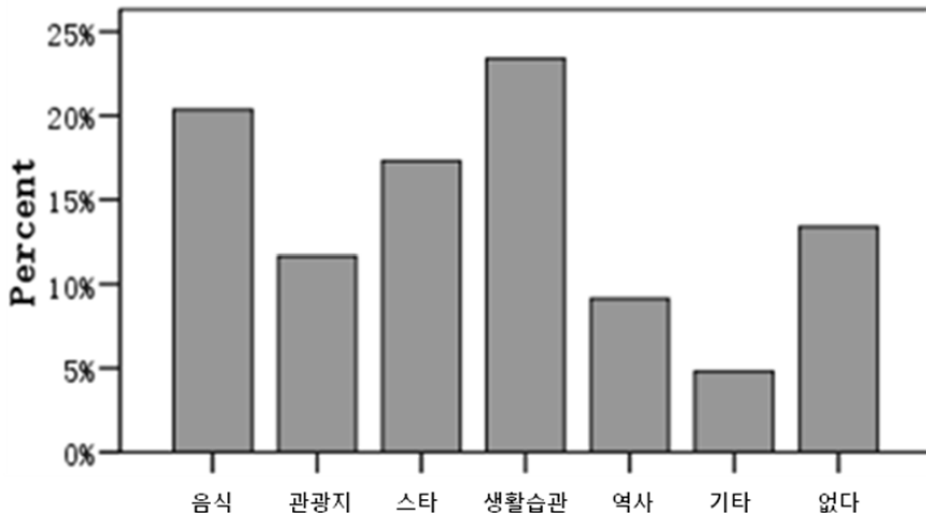
III. 중국 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관심분야

1. 최고관심사

중국 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최고 관심사는 ‘한국인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9>와 같다.

한국의 음식과 생활습관은 중국 대학생에게 최고 관심사이며, 그다음은 한국 스타였다.



<그림-9 한국인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것>

2.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중국 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은 <표-1>과 같다.

26.4%의 학생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며, 24.3%의 학생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 70% 이상의 학생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3. 한국 국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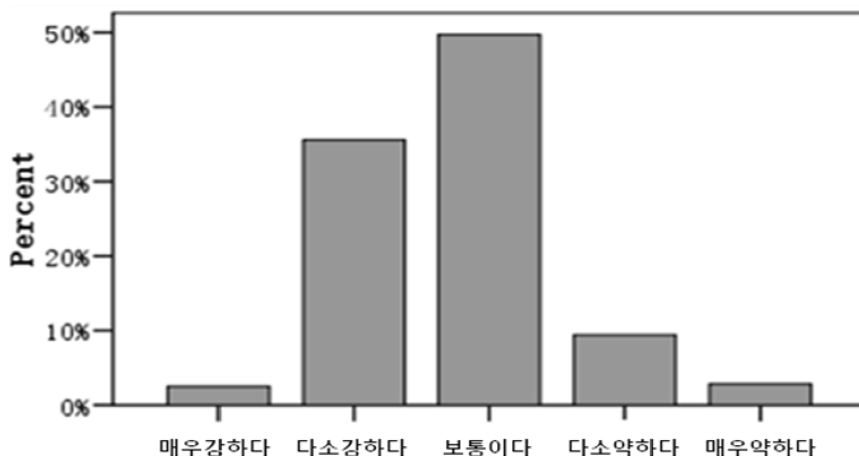
중국 대학생의 한국 국력을 평가한 응답결과는 <그림-10>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다수 학생의 응답은 ‘다소 강하다,’ ‘보통이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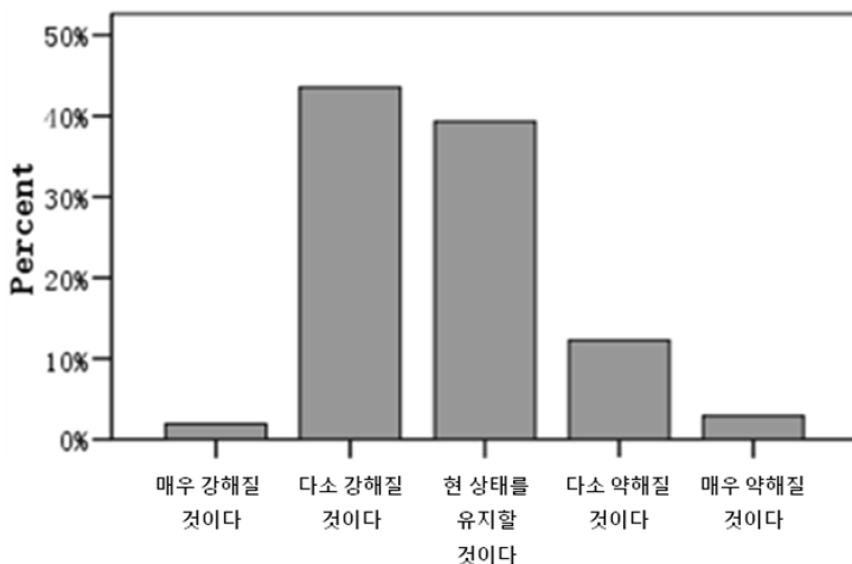
한국 국력 발전에 대해 중국 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5.5%

의 학생이 한국의 국력이 증강할 것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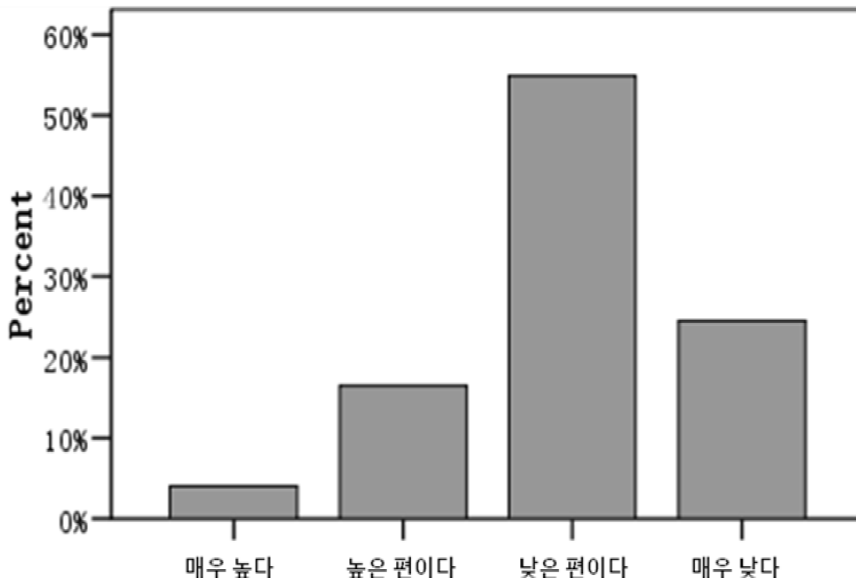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견해는 비교적 비관적이었다.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라고 답했다.



<그림-10 한국 국력에 대한 평가>



<그림-11 한국 국력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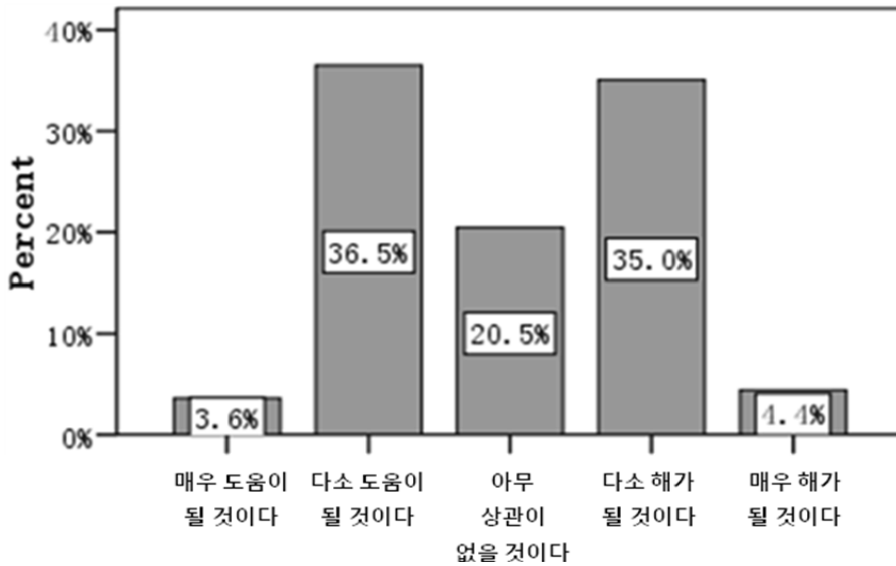
<그림-12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전망>

IV. 중국 대학생의 중한관계에 대한 견해

1. 중한관계

응답자의 67.1%가 중한관계가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결과는 두 분류로 나누어졌다. 통계결과는 <그림-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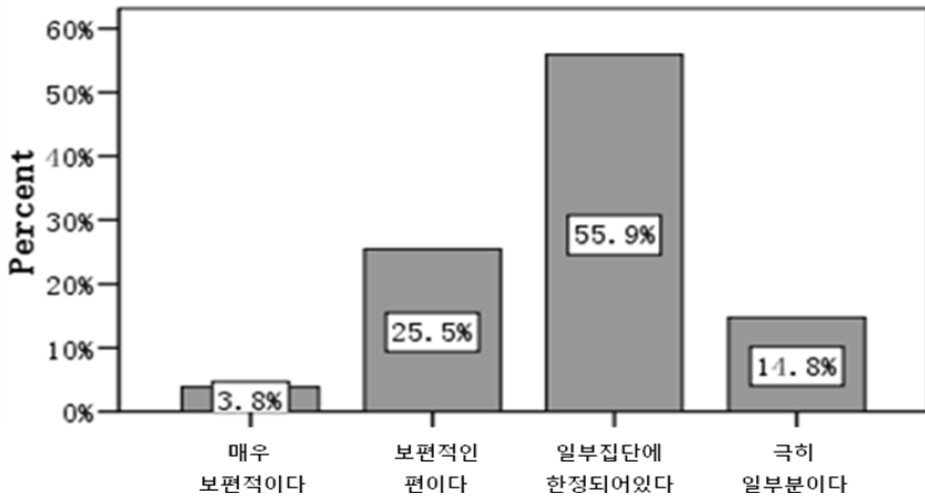


<그림-13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2. 비 우호 정서

67.7%가 ‘비 우호 정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비 우호 정서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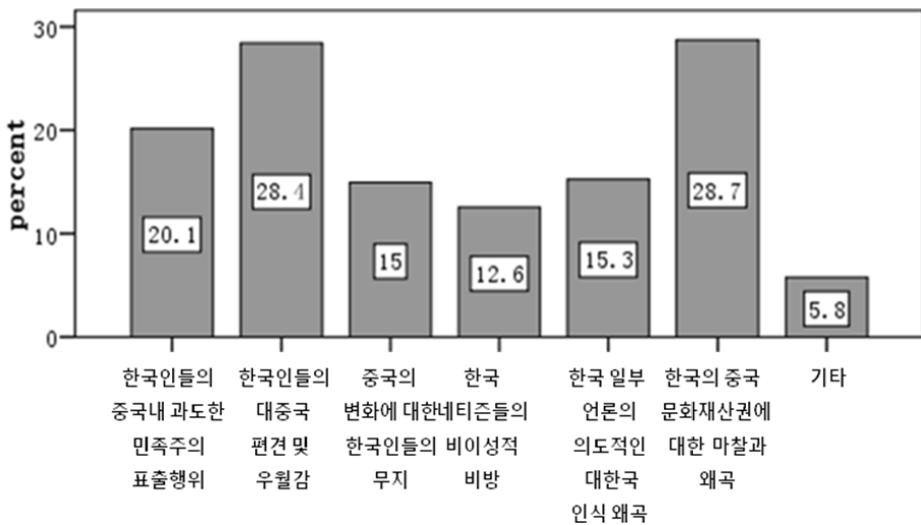
응답자 다수는 비 우호 정서가 ‘극히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29.3%는 비 우호 정서가 ‘보편적인 편이다’라고 답했다.



<그림-14 비 우호 정서의 실재 평가>

비 우호 정서 원인에 대한 중국학생의 응답 결과는 <그림-15>와 같다.

중국 대학생은 ‘한국인들의 대중국 편견 및 우월감’, ‘한국의 중국 문화재산권에 대한 마찰과 왜곡’이 중국인에게 비 우호 정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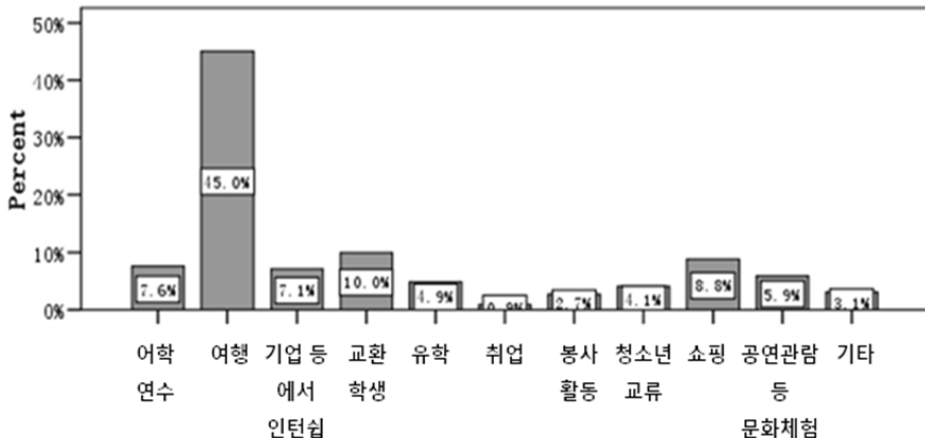
<그림-15 비 우호 정서 생성 원인>

V. 중국 대학생과 한국의 교류 및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1. 중국 대학생과 한국의 교류상황과 교류의향

5.2%의 응답자가 한국으로 여행을 간 경험이 있으며, 1%는 유학과 취업의 이유로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

중국 대학생의 한국과 교류에 대한 의향은 ‘만약 한국으로 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경험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그림-16>과 같다.



<그림-16 중국 대학생의 한국과 교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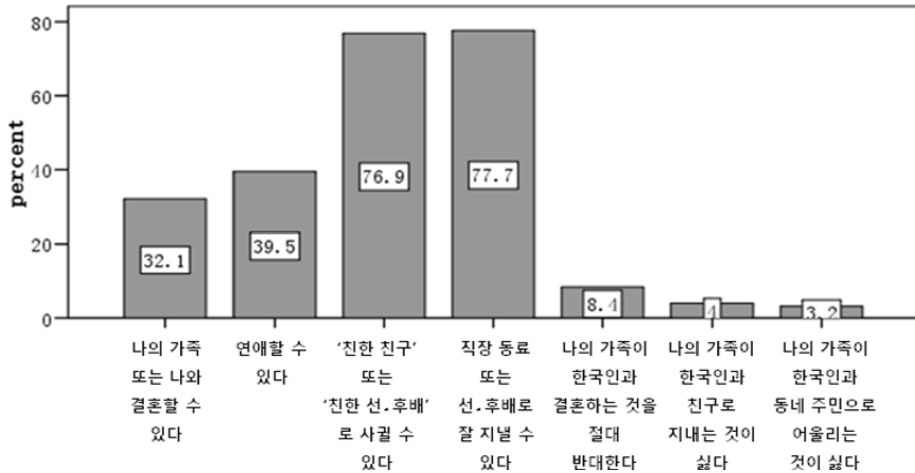
2. 중국 대학생과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중국 대학생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그림-17>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의 가족 또는 나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32.1%였으며, ‘연해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39.5%였다. ‘친한 친구 또는 친한 선후배로 사귄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77%를 넘었으며, 한국인과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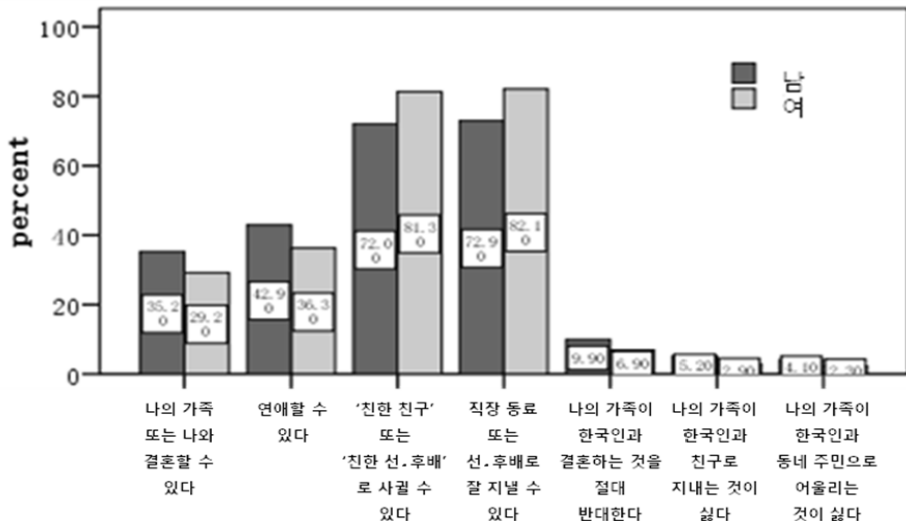
이를 미루어 보아 중국 대학생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7 중국 대학생의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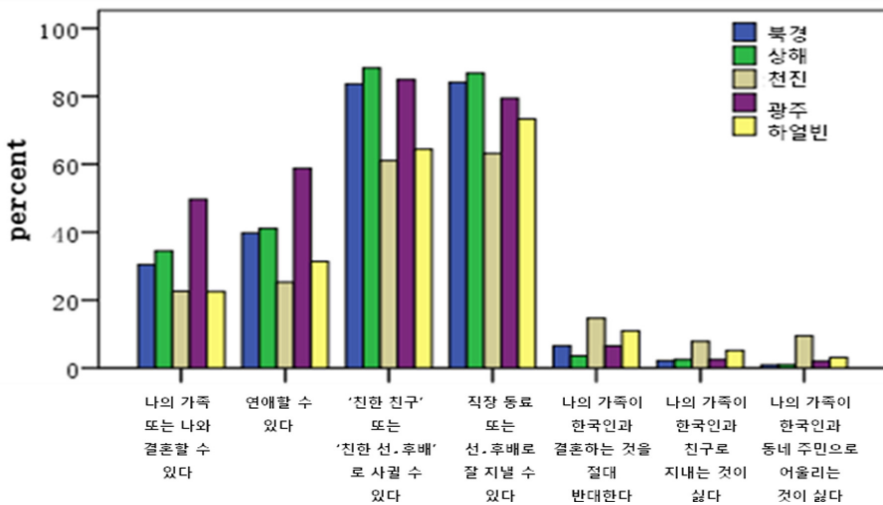
성별과 사회적 거리에 대한 변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남녀 간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 결과는 <그림-18>과 같다.

결혼과 연애 항목에서는 남성의 선택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동료의 항목에서는 여성의 선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통계의 유의도는 0.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18 대학생 성별에 따른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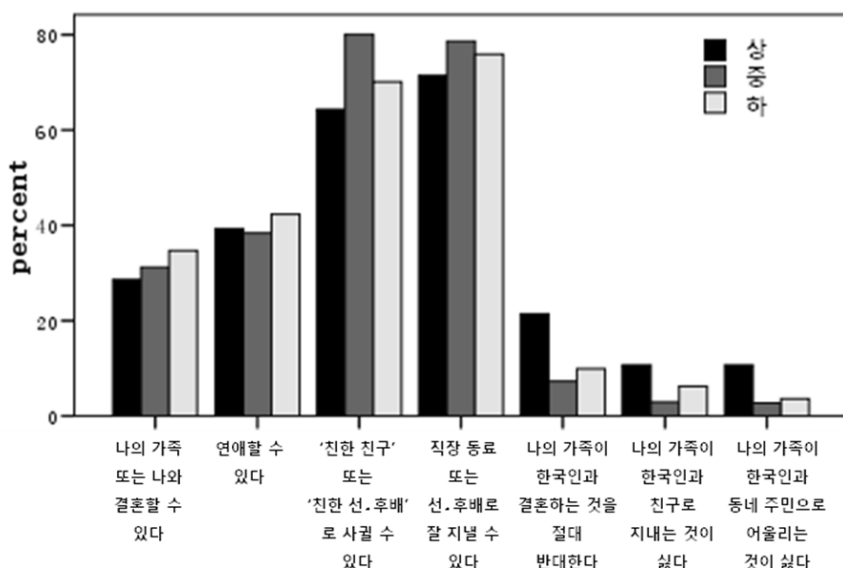
학생의 거주지와 사회적 거리의 변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광주 지역의 학생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웠으며, 상해와 북경지역의 학생도 광주지역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얼빈과 천진 지역의 학생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비교적 멀었다. 이에 대한 통계결과는 <그림-19>와 같다.



<그림-19 도시별 중국 대학생의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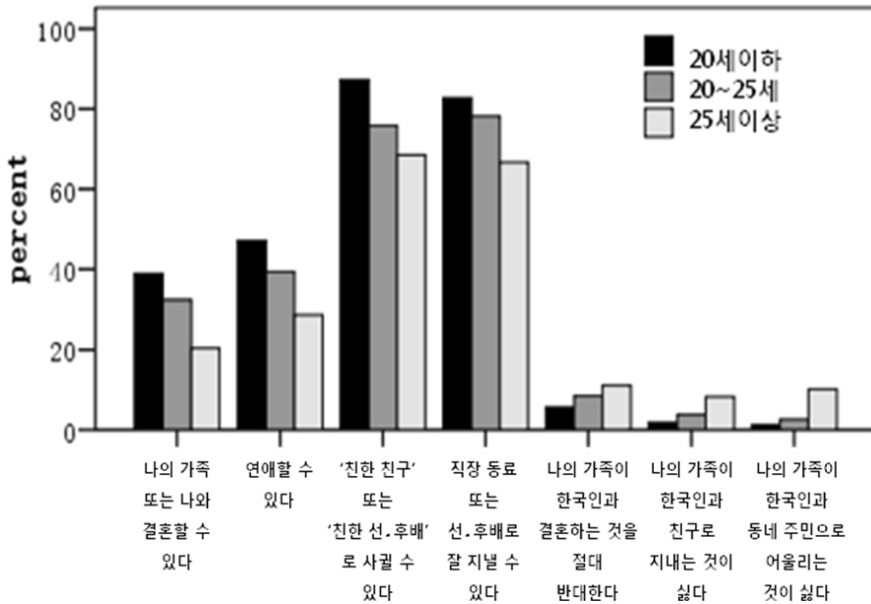
학생의 가계수입과 사회적 거리의 변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결혼과 연애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중간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한국인과 친구 혹은 동료가 되는 것에 찬성했으며, 고소득 가정 학생들의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가 중저소득 가정의 학생보다 컸다. 이를 통계 결과는 <그림-20>과 같다.



<그림-20 가정 소득별 중국 대학생의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

학생의 연령대와 사회적 거리의 변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나이가 높을수록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가 멀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인과의 사회적 거리는 가까웠다. 이에 대한 통계결과는 <그림-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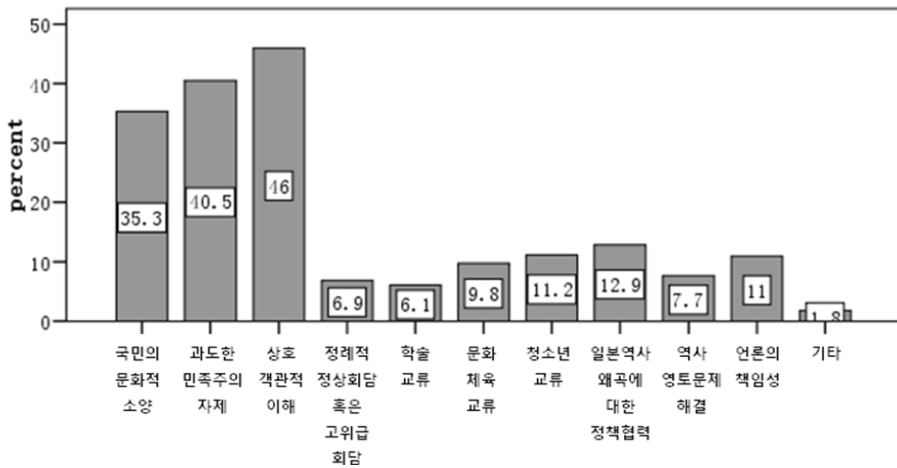
<그림-21 연령별 중국 대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VI. 중한관계 발전의 대책 및 행위

1. 중한관계 발전 방안

‘앞으로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중국학생들의 응답결과는 <그림-22>와 같다.

‘상호 객관적 이해’,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 ‘국민의 문화소양’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선택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정책협력’, ‘청소년 교류’, ‘문화체육 교류’와 같은 항목들 또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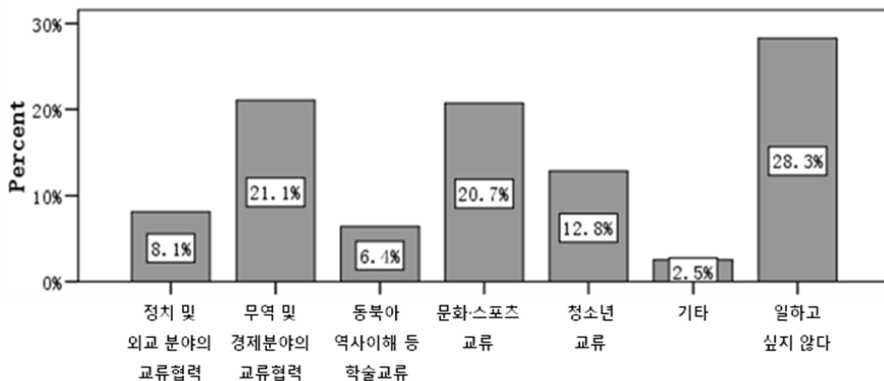
<그림-22 향후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2. 중한관계 발전을 위한 개인행위 방향

‘귀하가 앞으로 중한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23>과 같다.

이와 관련된 분야에 일하기 싫다는 응답은 28.3%밖에 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21.1%와 20.7%는 각각 ‘무역 및 경제분야의 교류협력’, ‘문화·스포츠 교류’분야 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2.8%는 ‘청소년 교류’ 분야 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림-23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 일 하고 싶은 분야>

VII. 결 론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 대학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중국 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미국보다 약하였으며, 그 이유는 일본과 북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은 한국의 음식과 독특한 생활습관에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비교적 많은 학생들 한국의 국력을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생 대다수는 중한관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비우호 정서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중국 대학생과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는 매우 가까웠으며, 응답자 다수가 한국인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에 찬성했다.

중한관계 발전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경제영역과 문화체육 교류 방면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결론은, 청년 대학 층이 중한관계 발전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中国大学生的对韩态度及增进友好的方案

尹海洁
哈尔滨工科大 教授

青年一代对鄰国的態度对两国關係的健康發展和持續性的民間交流会產生比較深遠的影響。由韓國青少年政策研究院進行的中國大學生對韓國態度的調查對中韓關係的良好持續發展具有重要的意義。

一、样本构成

本次調查在中国的北京、上海、天津、广州和哈爾濱五个城市中共抽取了1003名大学生。樣本中男性為483人，占48.2%。女性為520人，占51.8%。本科生為746人，占74.4%。研究生為257人，占25.6%。将家庭收入分為上、中、下三个層次，各層次的学生所占比例分別為2.8%、69.9%、27.3%。学生在五个城市的分布图1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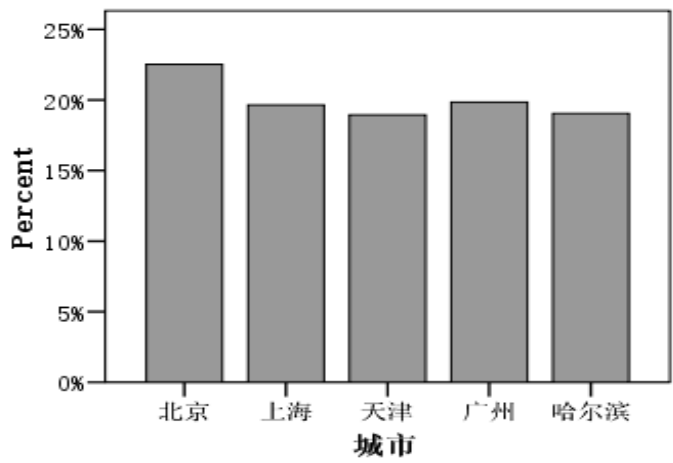


图1 调查对象的居住地分布

調查對象的年齡分布分別如圖2所示。年齡分布的峰值為20歲。平均年齡為21.84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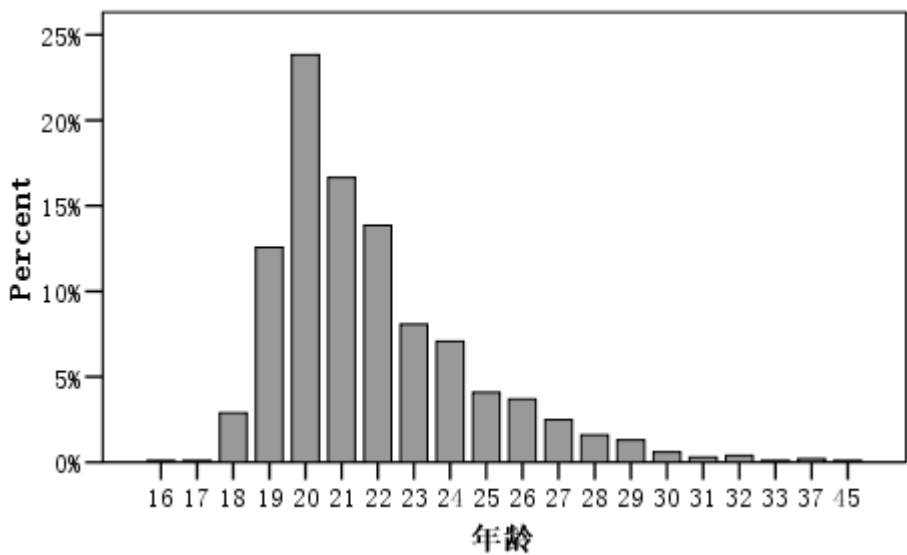


圖2 調查對象的年齡分布

二、中國大學生成對韓國的印象

（一）提起韓國的第一感覺

對於“提到‘韓國’最先想起來的是什麼？”這一問題的回答結果如圖3所示。可見，韓國的大眾文化在中國大學生的心中印象最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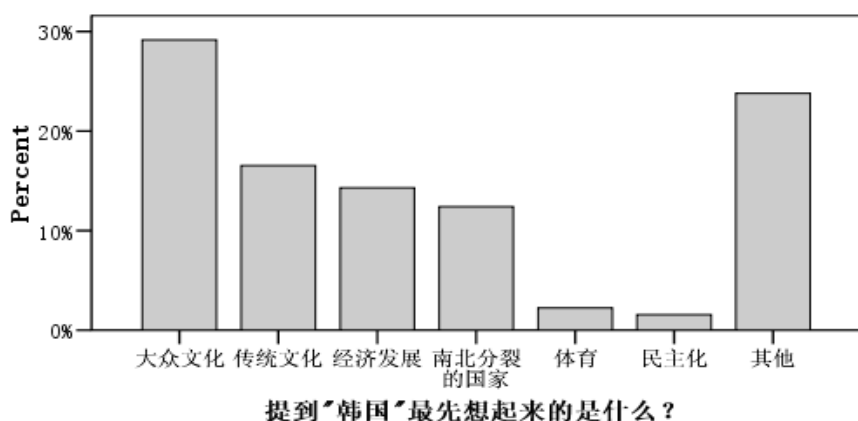


图3 提起韩国的第一感觉

将性别与这一问题回答结果进行交叉分析，计算的 χ^2 值为58.3，检验的显著性水平为0.00。可以说明男女两性大学生对韩国的第一感觉有显著差异。分析结果如图4所示。“大众文化”在女性大学生心中的印象远远强于男性，而“经济发展”、“南北分裂的国家”在男性心中要强于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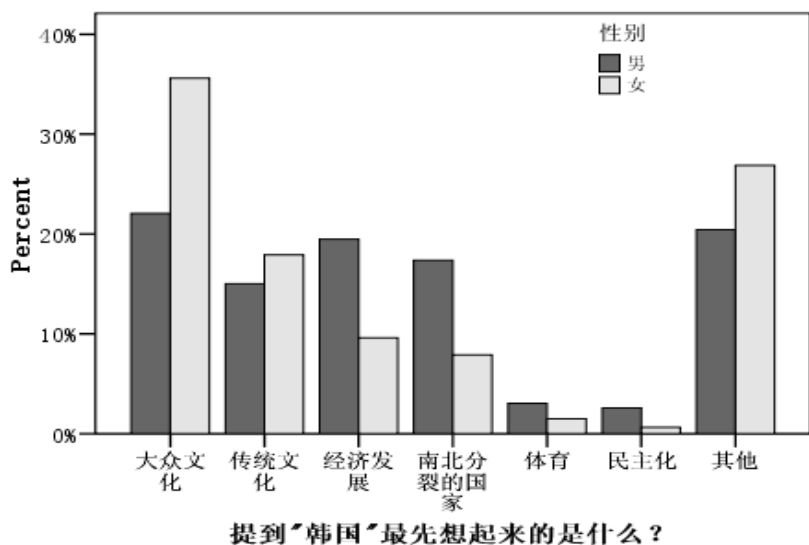


图4 不同性别大学生提起韩国的第一感觉

将身份与這一問題的回答結果進行交叉分析，計算的 χ^2 值為11.1，檢驗的顯著性水平為0.087。可以說明本科生和研究生对韓國的第一感觉有顯著差异。“大衆文化”和“傳統文化”在本科生心中的印象強于研究生，而“經濟發展”、“南北分裂的国家”在研究生心中要強于本科生。

将学生的居住地与這一問題的回答結果進行交叉分析，計算的 χ^2 值為47.2，檢驗的顯著性水平為0.003。可以說明不同城市的学生对韓國的第一感觉有顯著差异。“大衆文化”对北京、上海的学生影響大于其他城市，而“傳統文化”在其他城市中的影響大于北京、上海。哈爾濱和上海的大学生对韓國的經濟發展印象更深。“南北分裂的国家”哈爾濱和广州学生心中的印象要弱于其他城市。

将学生的家庭收入情况与這一問題的回答結果進行交叉分析，計算的 χ^2 值為28.6，檢驗的顯著性水平為0.004。可以說明不同家庭收入的学生对韓國的第一感觉有顯著差异。“大衆文化”、“傳統文化”对中等收入的学生影響較大。低收入的学生对韓國的經濟發展印象更深。“南北分裂的国家”在高收入的学生心中印象更深。

将年齡段与這一問題的回答結果進行交叉分析發現不同年齡段的学生回答結果没有顯著差异。

(二) 对韩国产品的喜好

中国大学生对韓國產品的喜好如图5所示。喜歡的人数為25.6%，要高于不喜歡的人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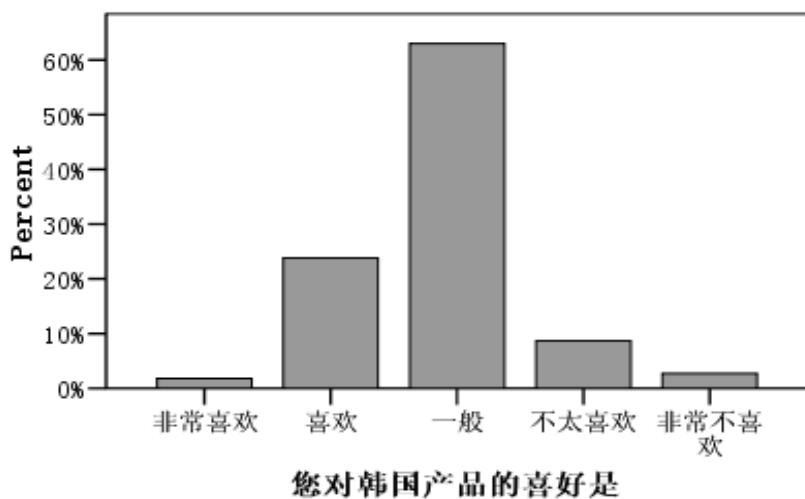


图5 对韩国产品的喜好

将性别与这一问题的回答结果进行交叉分析，计算的 χ^2 值为44.099，检验的显著性水平为0.00。可以说明男女两性大学生对韩国产品的喜欢程度有显著差异。女性的喜欢程度明显优于男性。分析结果如图6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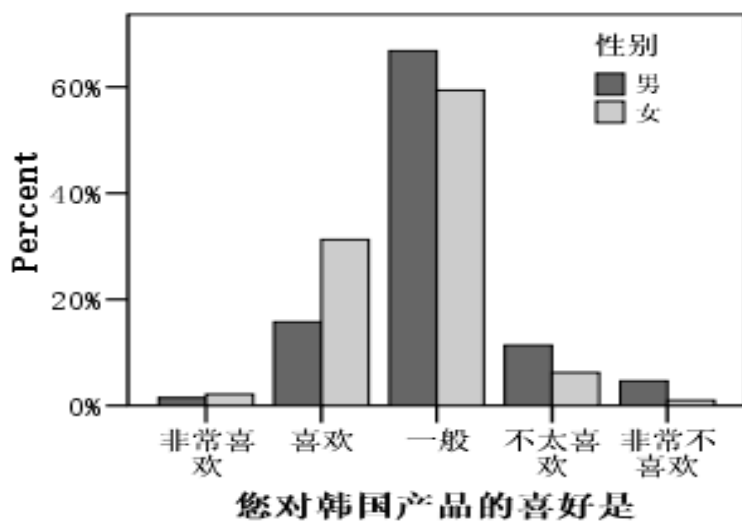


图6 不同性别大学生对韩国产品的喜好

将学生的居住地与這一問題的回答結果進行交叉分析，計算的 χ^2 值為47.2，檢驗的顯著性水平為0.003。可以說明不同城市的学生对韓國產品的喜歡程度有顯著差异。北京、上海、广州的学生更喜歡韓國產品。

将学生的家庭收入情况与這一問題的回答結果進行交叉分析，計算的 χ^2 值為16.163，檢驗的顯著性水平為0.003。可以說明不同家庭收入的学生对韓國產品的喜好有顯著差异。家庭收入越高的学生越喜歡韓國的產品。

年齡和学生的身份不影響他們对韓國產品的喜好

(三) 对韩国的看法

中国大学生对韓國政府、企業、韓國人和韓國的大眾文化的看法如图7所示。總的看来中国大学生对韓國政府、企業、韓國人和韓國的大眾文化看法差异不是太大。看法“非常不好”的人是极少的，這部分人占3%左右。大部分人的看法是“一般”或者“還好”。相比之下，对韓國的企業看法最好，其次是大眾文化。对韓國人和韓國政府的看法要稍差一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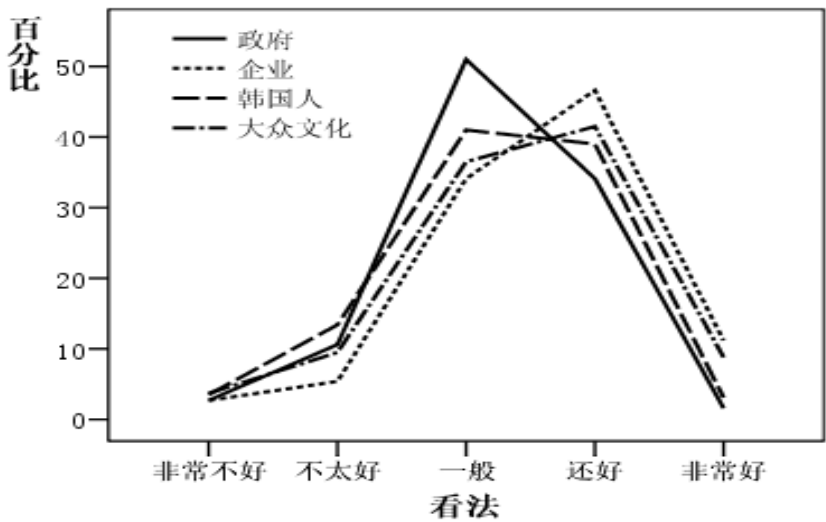


图7 中国大学生对韩国政府、企业、韩国人和韩国的大众文化的看法

（四）对美国、日本、韩国、北韩看法的比较

中国大学生对美国、日本、韩国、北韩看法的比较如图8所示。印象最好的是美国，其次是韩国，印象最差的是北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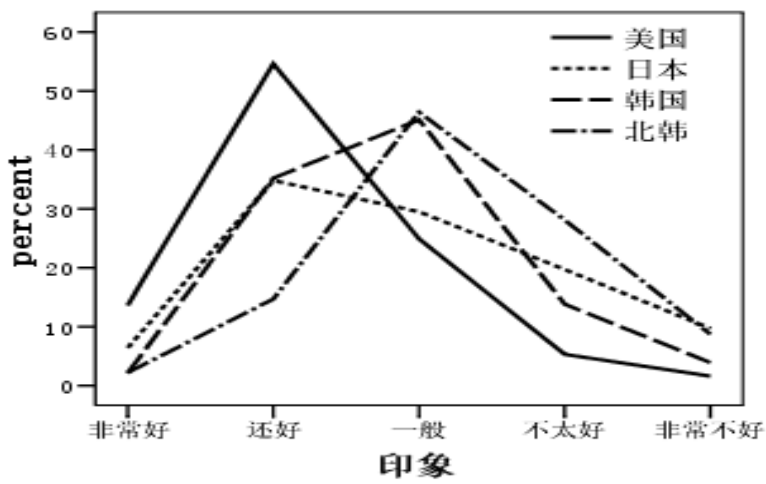


图8 中国大学生对美国、日本、韩国、北韩看法的比较

三、中国大学生对韩国的关注

（一）关注点

中国大学生对韩国的关注点可以通过“见到韩国人之后想问的问题是什么？”来反映。对这一问题的回答结果见图9。可见韩国的饮食和生活习惯是中国大学生最关注的。其次是韩国的明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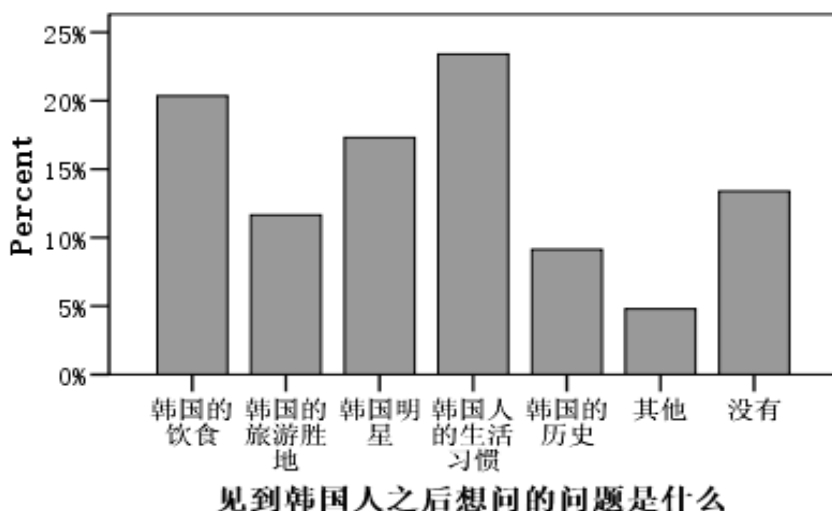


图9 见到韩国人之后想问的问题

(二) 对韩国的关注和理解

中国大学生对韩国的关注程度和理解程度见表-1。有26.4%的学生对韩国有较高的关注，24.3%的学生对韩国有较高的理解程度。70%多的学生对韩国不太关注。

表-1 中国大学生对韩国的关注程度和理解程度

	非常高	偏高	偏低	很低
关注	3.1%	23.2%	54.6%	19.1%
理解	2.0%	22.3%	60.3%	15.4%

(三) 对韩国国力的评价

中国大学生对韩国综合实力的评价见图10，大多数学生的评价是“比较强”和“一般”。对于韩国综合实力的发展，中国大学生给出了非常积极的评价。

价。45.5%的学生認為韓国的实力会增強。对于韓國半島是否能够統一，中国大学生的看法比較悲觀。近80%的学生認為統計的可能性 “偏低”或“非常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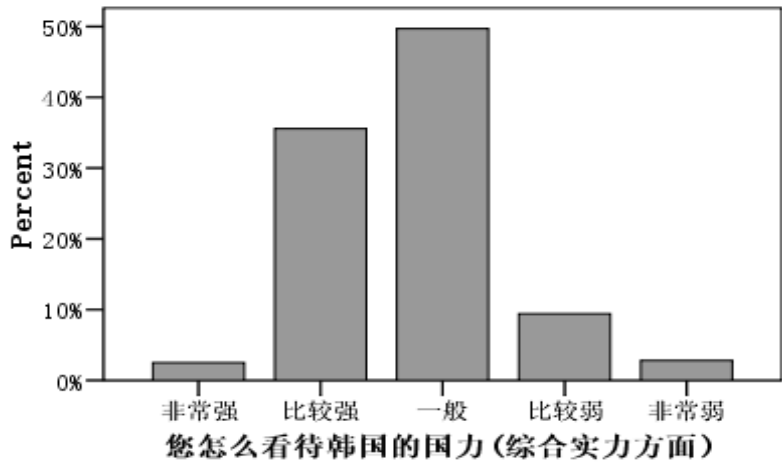


图10 对韩国综合实力的评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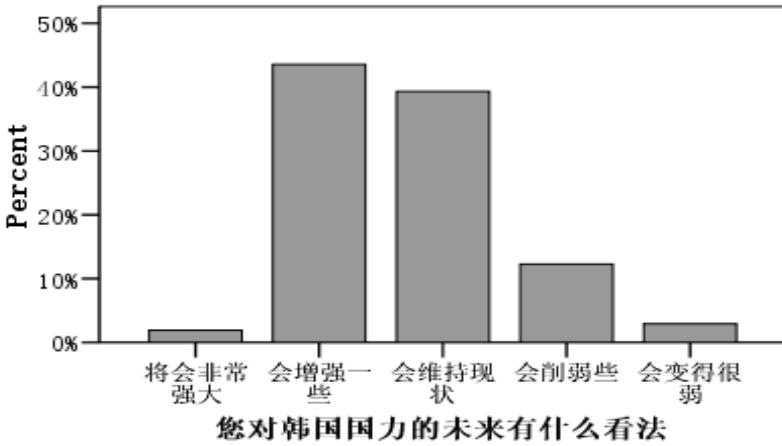


图11 韩国综合实力的发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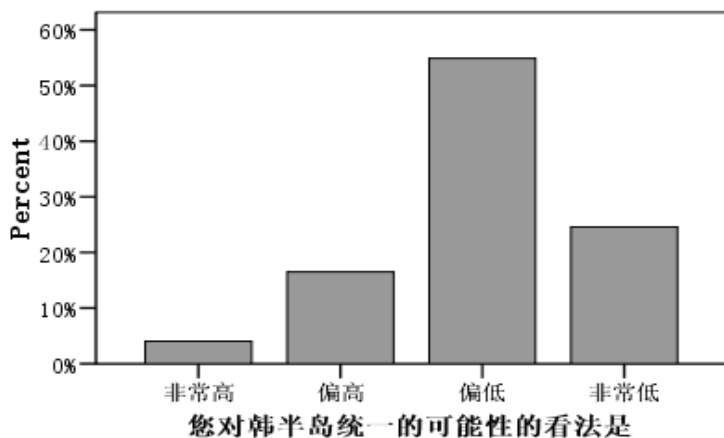


图12 韩半岛统一的可能性

四、中国大学生对中韩关系的看法

(一) 关于中韩关系

中国大学生中有67.1%人認為中韓關係会“越来越好”。当問及韓半島統一對中国的影響時，学生的回答出現了兩極分化。統計結果如图13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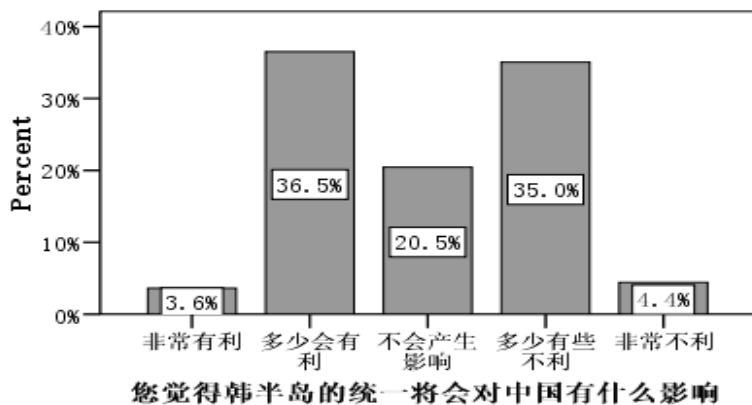


图13 韩半岛统一对中国的影响

(二) 关于反韩情绪

在中国学生中有69.7%的人听说过“反韩情绪”。但是当问及反韩情绪达到了什么程度时，学生的回答如图14所示。绝大多数人认为反韩情绪仅存在于极小部分人或一些小团体中。但不可忽视的是有29.3的人认为反韩情绪普遍存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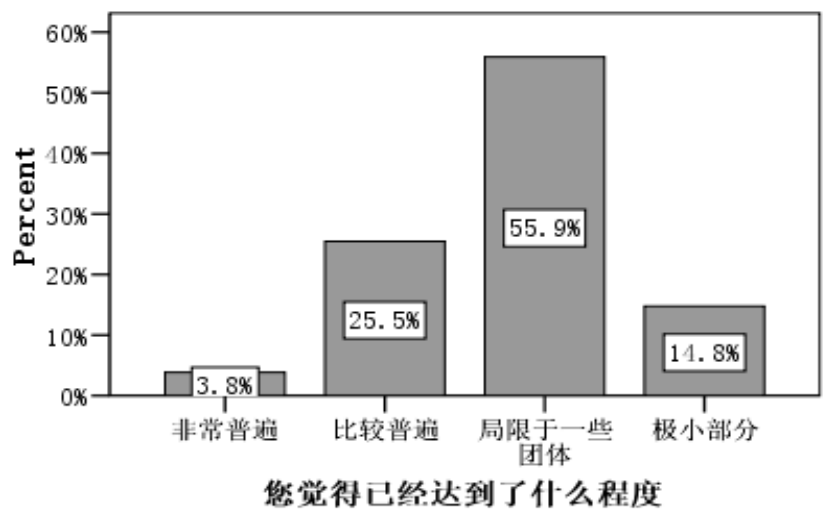


图14 反韩情绪达到了什么程度

对于反韩情绪存在的原因，中国学生的回答如图15所示。在中国大学生看来，“您韩国人对中国的偏见以及自身的优越感”、“韩国与中国文化产权的摩擦以及对此的歪曲”是引起中国人反韩情绪的最重要原因。“韩国人在中国表现出的过度的民族主义行为”也是比较重要的原因。而“韩国人对中国变化的无知”、“韩国网民非理性的诽谤”和“韩国媒体夸张而不负责任的报道”都不同程度地起到了强化反韩情绪的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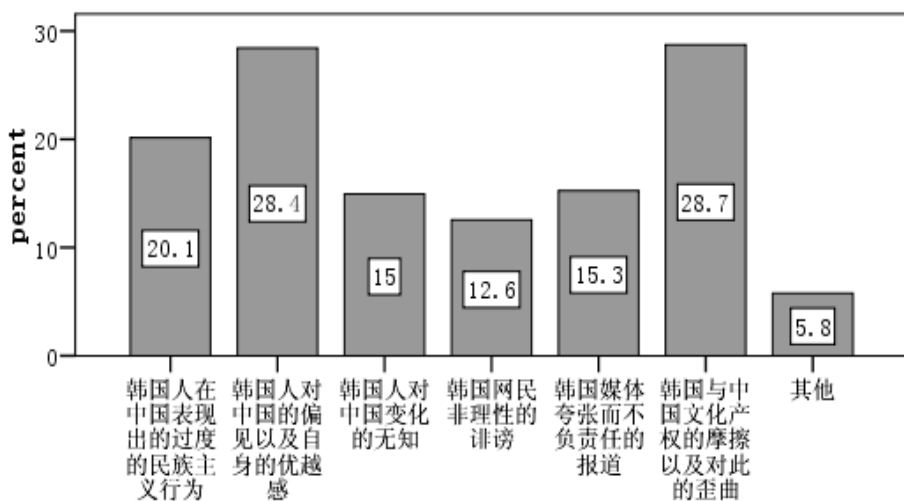


图15 反韩情绪存在的原因

五、中国大学生与韩国的交流及对韩国人的社会距离

(一) 中国大学生与韩国的交流状况与交流意向

在中国大学生中有5.2%的人到过韩国旅游，有1%的人因留学、就业的原因曾在韩国住过。中国大学生与韩国进行交流的行为意向可以通过“如果有机会您能去韩国您最想做什么”这一问题的回答结果来表明。如图16。有45%的学生选择了去韩国旅游，其他项目的选择人数都在10%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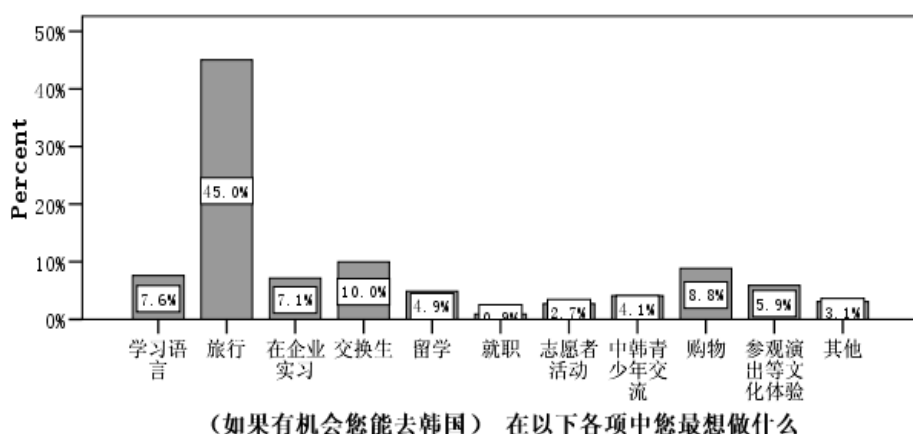


图16 中国大学生与韩国进行交流的行为意向

(二) 中国大学生与韩国人的社会距离

中国大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可以通过图17明显看出。有32.1%的人愿意与韩国人结婚，有39.5%的人可以和韩国人谈恋爱，愿意与韩国人成为好友的人高达77%，不愿意与韩国人交往人数微乎其微。说明中国大学生与韩国人的社会距离是很近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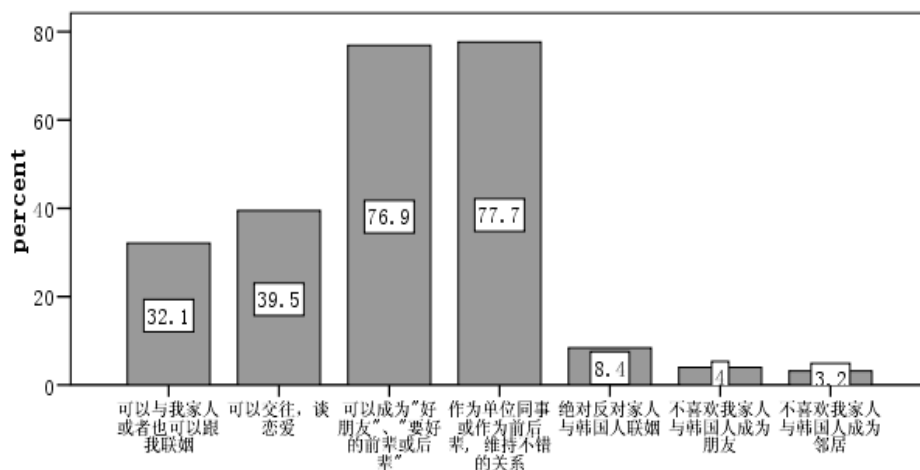


图17 中国大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

将性别与社会距离的变量进行交叉分析可以发现，男女两性略有差异。统计结果如图18所示。在结婚、谈恋爱两个选项上女性均低于男性，在做朋友、做同事的选项上女性均高于男性。差异的显著性均达到0.05的水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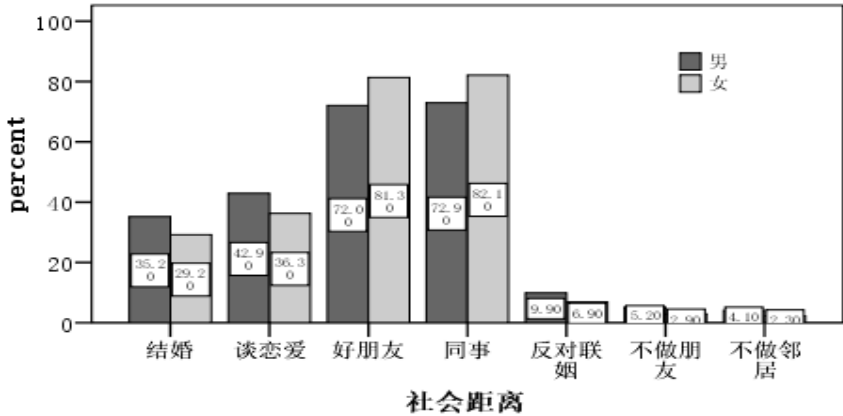


图18 不同性别大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

将学生居住的城市与社会距离的变量进行交叉分析可以发现，广州的学生与韩国人的社会距离最近，上海北京无显著差异，哈尔滨与天津的学生与韩国人的社会距离较远。具体统计结果见图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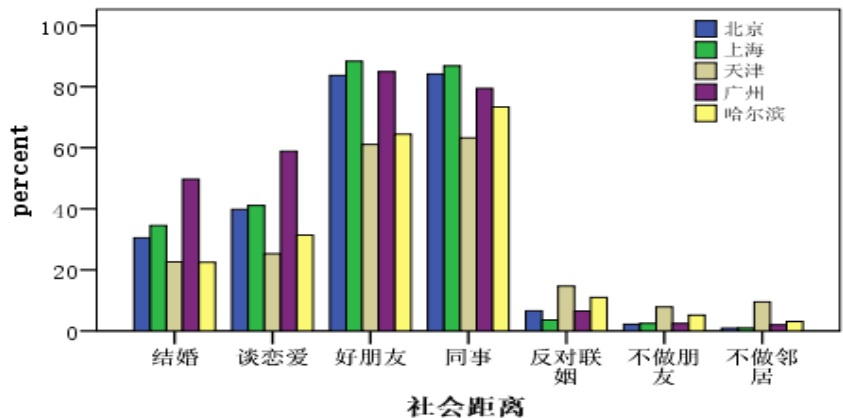


图19 不同城市大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

将学生的家庭收入与社会距离的变量进行交叉分析可以发现，在结婚、谈恋爱的选项上，不同收入的学生无显著差异。中等收入家庭的学生更愿意与韩国人做朋友或同事，高收入家庭的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要大于中低收入家庭的学生。具体统计结果见图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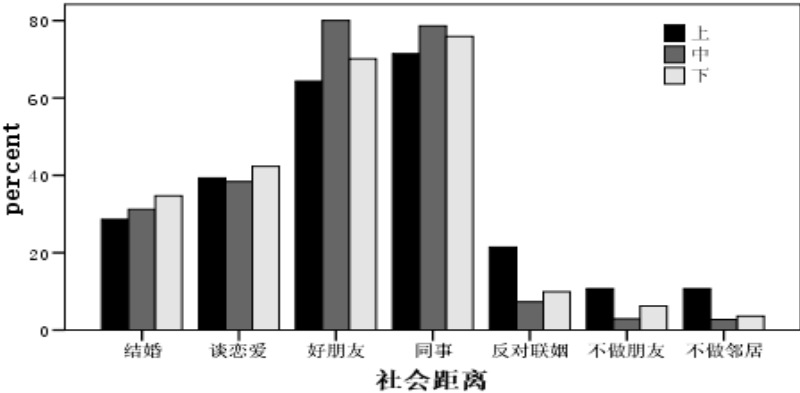


图20 不同家庭收入大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

将学生的年龄段与社会距离的变量进行交叉分析可以发现，年龄越大的人与韩国人的社会距离越远，越年轻的人与韩国人的社会距离越近。具体统计结果见图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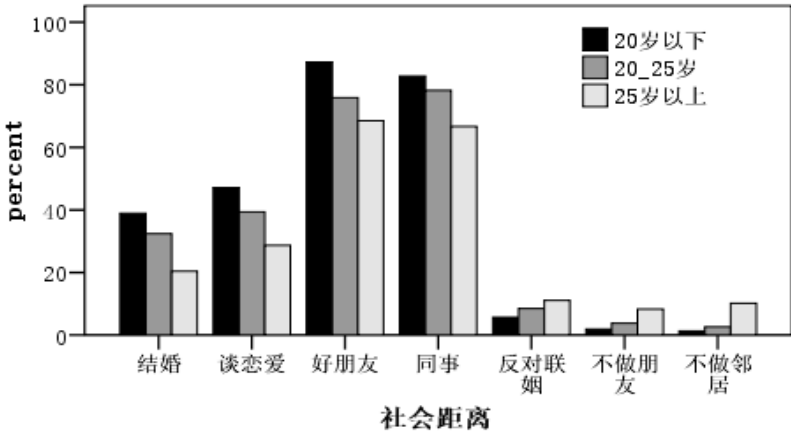


图21 不同年龄大学生对韩国人的社会距离

六、发展中韩关系的对策及行为意向

(一) 发展中韩关系的对策

对于未来发展中韩关系首先应该做出什么样的努力，中国大学生的选择结果如图22所示。“客观地理解对方”、“克制过度的民族主义”和“提高国民的文化素养”这三个选项的选择人数明显地高于其它选项。“协力应对被日本歪曲的历史”、“青少年交流”和“文化体育交流”也是促进两国关系的重要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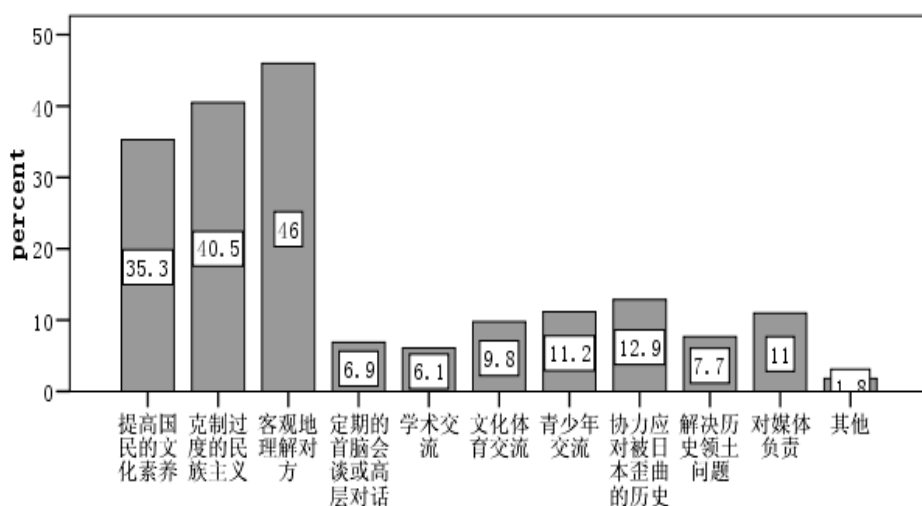


图22 未来发展中韩关系首先应该做出什么样的努力

(二) 为发展中韩关系的个人行为取向

为发展中韩关系个人胜任哪个领域，中国大学生的回答结果如图23所示。不想从事这份事业的人只有28.3%。分别有21.1%和20.7%的人认为自己能够胜任“经济领域的交流与合作”或“文化体育交流”。另有12.8%的人认为

能够胜任两国的“青少年交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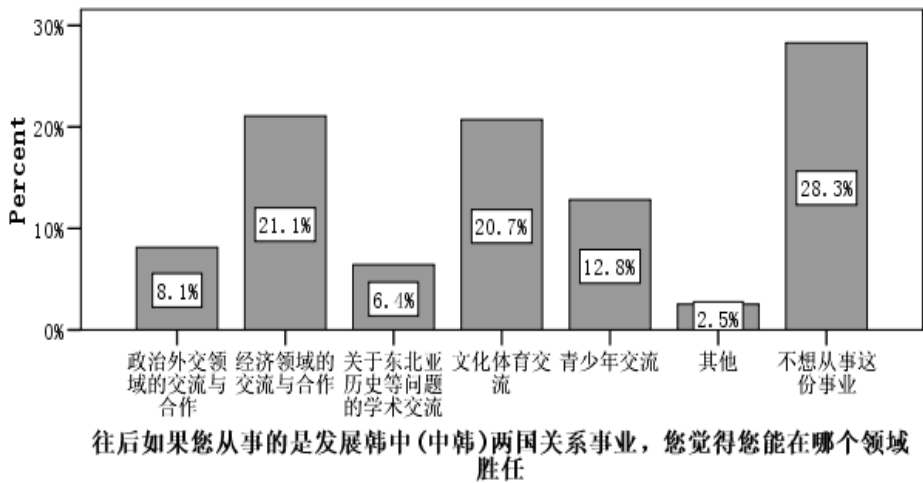


图23 为发展中韩关系个人胜任领域

结 论

調查表明，韓國的大眾文化給中國大學生留下的印象深刻。中國大學生對韓國的整體印象弱於美國，由於日本和北韓。他們關注韓國的飲食和獨特的生活習慣，但對韓國的關注度並不高。相當多的學生認為韓國有較強的國力，而且以後的國力會進一步加強。絕大多數學生認為中韓關係會越來越好，他們認為反韓情緒僅是在一小部分人中存在。中國大學生與韓國人的社會距離很近，絕大多數人願意與韓國人成為好友。對於進一步發展中韓關係相當多的人願意在經濟領域和文化體育交流方面作出努力。總之，在青年大學生那里，中韓關係發展前景是美好的。

개별 국가의 구획을 넘어 ‘청년’의 문제를 함께 사유하기

최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의 ‘협한’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 역시 ‘협한’ 정서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그 동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세대는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는 젊은이들이야말로 향후 양국관계의 미래를 책임질 선도 집단이라는 단순한 국가/세대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볼 수 없다.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쓰는 인터넷 덕분에 ‘한중관계’는 양국 지도층의 외교 테이블을 한참 벗어나 공공의 연행(performance)이 되어가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이라는 세계를 각각 단일한 실체로 구획 짓고, 제반 사회현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슈화하고,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전쟁과 화해, 시비와 친교의 장이 인터넷을 통해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이슈는 동북공정, 이어도 영토 분쟁과 같은 외교안보상의 쟁점에서부터 환경, 식품안전, 이주와 유학, 심지어 한중 스타들 간의 연애에 이르기까지 실로 각양각색이다.

尹海吉 교수의 연구 결과는 ‘한중관계’ 담론의 생산자이자 유포자로서 청년 세대가 갖는 비중과 역할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북경, 상해, 천진, 광주, 하얼빈의 천 여 명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며 본 토론자가 특히

흥미를 느꼈던 것은 첫째, 이들 대학생들이 주로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을 상상한다는 점, 둘째, 이들 중 실제 한국 사회를 접해 본 학생들의 비중은 (조사 대상지가 대도시임에도) 극히 적다는 점이다. 5퍼센트 정도만이 한국을 여행해봤고, 단지 1퍼센트 정도만이 유학이나 취업을 통해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상당수 중국의 대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상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커피프린스 1호점>, <폴하우스> 같은 트렌디 드라마에 빠져 ‘세련된’ 나라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젊은이도 있고, <주몽>, <대조영>에서 그려진 요동의 ‘왜곡된’ 역사에 격분해서 반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젊은이도 있다. 미디어가 단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대성과 민족주의, 각종 정치적, 역사적 쟁점을 두고 한중 청년들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실체’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중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는 계몽주의적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가요, 드라마, 영화를 만들자는 근대적 발상은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실천되었으니 말이다. 尹海吉 교수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중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노력’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꼽은 제안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과도한 민족주의를 자제하기’, ‘국민의 문화소질을 제고하기’였다는 것 또한 이러한 계몽주의적 시각에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좋은’ 드라마인지,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인지와 같은 물음들에 명료한 대답이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문화소질’이라는 단어 역시 국민을 서열화하는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또한 공감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자인 본 토론자가 尹海吉 교수의 연구에서 갖게 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는 가치 경합적인 담론들을 중립적인

변수로 치환하고, 이를 한중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가치로 위계화 하는 방식에 있다. 왜 설문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다른 수많은 항목들 중에서도 한국의 ‘국력’에 대해, 한국 ‘상품’에 대해 평가하기를 요구받는가? ‘대중문화’가 한국을 이해하는 주된 통로로 여겨지는데도 왜 사랑과 이별, 혹은 경쟁위주 사회에 대한 공포가 아닌 ‘한반도 통일’이나 ‘민족주의’가 한중청년을 이해하는 핵심 변수가 되어야 하는가?

물론 본 토론자는 尹海吉 교수의 연구에서 제기된 질문들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지는 ‘한국’과 ‘중국’을 고정된 실체로, 비교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 자칫 매스미디어에 의해 심심찮게 증폭되는 ‘한국’ 대 ‘중국’의 편 가르기 작업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디아스포라(diaspora)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현대 사회에서 이주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행과 연수, 유학, 인터넷 채팅, 이주노동, 이주결혼 등 다양한 이주의 흐름을 나와 나의 가족, 친지, 친구들 사이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십 여 년 간 중국 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한국 국적의 학생이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라는 여권상의 국적을 뛰어넘어 초국가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게 얼마나 유효한지 되묻고 싶다. 또 그들에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겠다는 열망으로 각종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박제화된 ‘한국문화’, ‘중국문화’를 선보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한중청년의 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문제로 구획 짓기보다는, ‘청년’이라는 공통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처한 공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본 토론자는 올해 여름 중국의 ‘80후’, ‘90후’ 청년들의 사회적 고통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얼빈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삼십 여 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

다. 면접을 통해 느낀 것은 이들의 고민이 토론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 대학 학생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 청년들의 고민은 각 나라의 역사성과 접목되면서, 개개인의 가정환경 및 성(性), 출신지역, 대학의 차이와 결부되면서 다층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쟁과 ‘스펙 쌓기’를 부추기는 대학에서의 생존투쟁,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기 힘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이들의 열정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었다. 면접에 응한 중국의 대학생들은 ‘无奈’란 단어로 종종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는데, 이 단어의 번역어인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이야말로 본 토론자가 한국의 학생들에게서 심심찮게 듣던 표현이었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규정하고 부풀릴 때가 아니라 서로의 공통성을 더 많이 발견하고, 국가 간 대립을 넘어 다른 비판의 지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물론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비수를 들이대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되묻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강화방안

박 승 준

인천대학교교수

I. 서 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에 수교한 이래 내년 2012년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한국이 NIES의 일원인 신흥 산업국으로 활발하게 경제발전을 추진 중이던 시기에 이뤄졌으며,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은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해서 2010년 GDP규모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위상과 의식은 1992년 수교한 이래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가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지난 19년 동안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제대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양국 국민간, 청소년층간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어떤 형태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구조와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일부에서 진행되어 양국 국민들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이제 갖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이번에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에 대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II. 한·중 대학생 국제관계 인식

1.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Global Times)는 2010년 12월 10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충칭(重慶) 등 중국내 5대 도시의 15세 이상 1,488 명(신뢰도 95%±3%)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⁷⁾

이 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국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10개국’이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독일의 순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3.9%가 선택해서 9위에 올랐다. 이 수치는 환구시보가 2009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1.4%보다 2.5%포인트 상승한 것이었다. 한국은 2010년 조사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를 묻는 질문에서도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에 이어 9위에 올랐다. 같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국인들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국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북한에 이어 다섯 번 째로 중요한 양국 관계로 꼽았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양국 관계인 것으로 조사 대상 중국인들은 답했다.

이 조사에서 ‘중국이 세계의 강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 중국인들의 52.8%는 ‘아직 불완전하다’고 대답했고, 34.1%는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12.4% 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환구시보의 여론 조사보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고려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EAI)에 위촉해서 2010년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成都), 우한, 선양(瀋陽), 톈진(天津), 충칭, 난징(南京), 시안(西安) 등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중국내 10대 도시의 일반인 1,012 명(신

7) 環球時報, 2010년 12월31일자.

되도 95%±3.1%)과 여론주도층 150명을 상대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⁸⁾ 이 조사에서 이동률을 비롯한 6명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책적 영향력이 큰 여론주도층과 일반대중간 여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대체로 여론주도층이 한국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과의 개인적인 동질감, 문화적 동질감이 호감도의 주요 원천이 되는 반면, 여론 주도층의 경우 문화적 요인과 함께 한국 기업 및 한국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계층별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집단, 지역별, 직업별 대 한국 호감도 편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대별, 학력 수준별로는 한국 호감도에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젊은 2030세대가 4050 이상 세대에 비해,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일수록 한국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했다. 분단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나, 친미 편중외교에 대한 불만, 중국에 대한 무시와 우월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에 비해 한국의 민주화나 한중관계 개선 등의 정치적 요인이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며, 경제발전의 성취와 함께 중국인이 체감하는 한국의 최대 매력요인이 되고 있다. 한류문화 뿐 아니라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문화 확산에 호응하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인의 국민성, 문화 및 역사분쟁 요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통이 심각하며, 한국인들이 과거에 일본을 도와 중국을 침략했다든가, 중국 문화를 도용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 중국 공공외교 강화 방안’, 『2010 중국 종합연구 총서』, pp. 158-161. <http://www.nrcs.re.kr>, 2011. 9.3.

2.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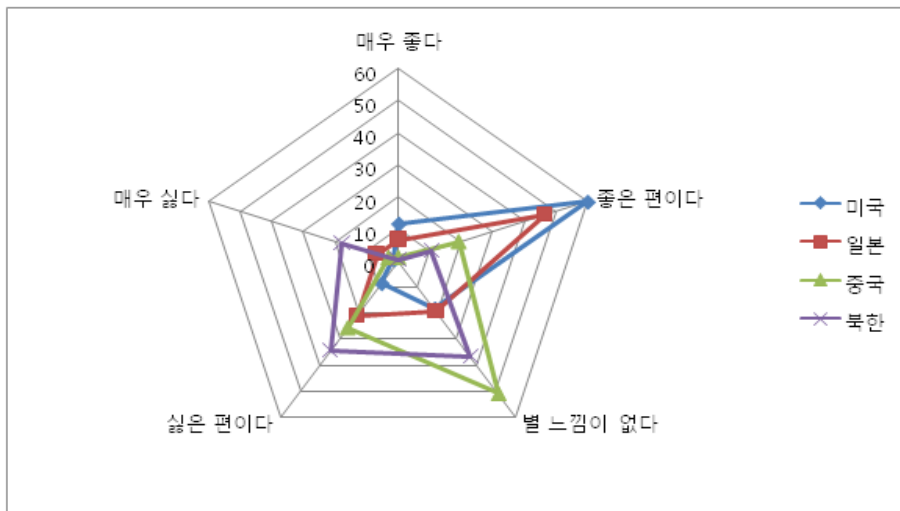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한국의 5개 대도시와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하얼빈 등 중국내 5개 대도시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한국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1,013 명과 중국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1,003 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 나타난 한국과 중국 청년층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과 중국 청년층은 서로 뚜렷하게 대조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과 <그림2>의 방사형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중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 상대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비우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했으며, 미국과 일본 가운데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보다 더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중국 청년층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G2로 불리는 미국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경쟁적인 정치선동이나, 전통적으로 난징(南京) 대학살과 동중국해의 다오위다오(釣魚島)와 해저유전을 둘러싼 영토 및 영해 분쟁과 상관없이 호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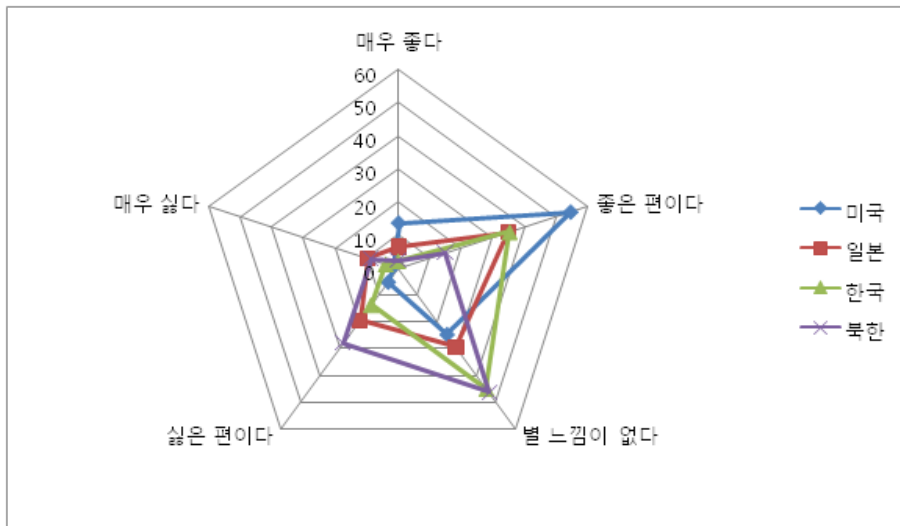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 조사대상자들이 보여준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 조사대상자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비우호감의 정도가 중국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비우호감의 정도보다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중국의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대해서보다 더 강한 비우호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 조사대상자들이 북한에 대해 비우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한과 중국간의 국제관계 흐름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중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중국 측 조사대상자들이 여론 조사의

주체가 한국 측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반응을 보인 결과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남녀 대학생, 대학원생들 가운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호감도를 표현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양대 중심 도시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톈진, 광저우, 하얼빈 등 상대적으로 지방도시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보다 한국에 대해 더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비우호감을 표시했으며, 북한에 대한 비우호감에서 거주 도시들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 대학생들의 미·중·일·북한에 대한 호감도



<그림 2> 중국 대학생들의 미·일·한·북한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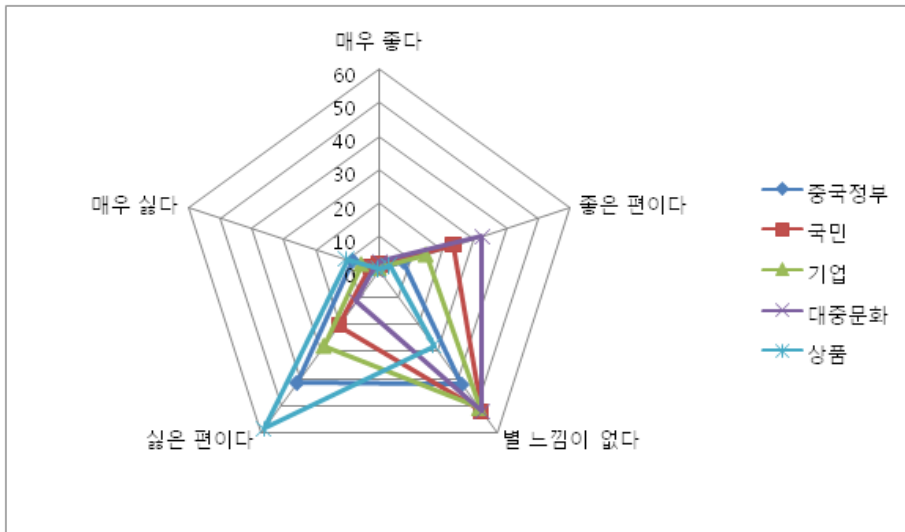
Ⅲ. 한·중 관계 발전 전망

1. 상대국 정부, 국민, 기업,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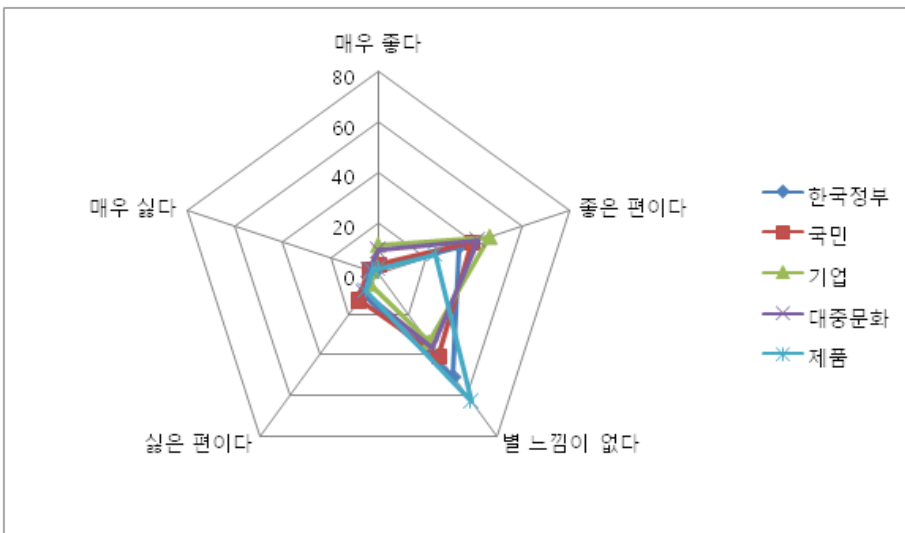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상대국의 정부와 국민, 기업과 제품,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서로 다른 패턴, 특히 한국 측 조사대상자들의 중국 각 부문에 대해 강한 비우호감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 측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의 정부를 비롯한 각 부문에 대해 각각 비슷한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 조사대상자들은 특히 중국 상품과 제품에 대해 극도의 비우호감을 표현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 강한 비우호감을 갖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우호감을 갖고 있고, 중국 국민과 문화에 대해서는 낮은 비우호감과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측 조사대상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 기업, 제품, 대중문화에 대해 비

슷한 패턴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3>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 각 부문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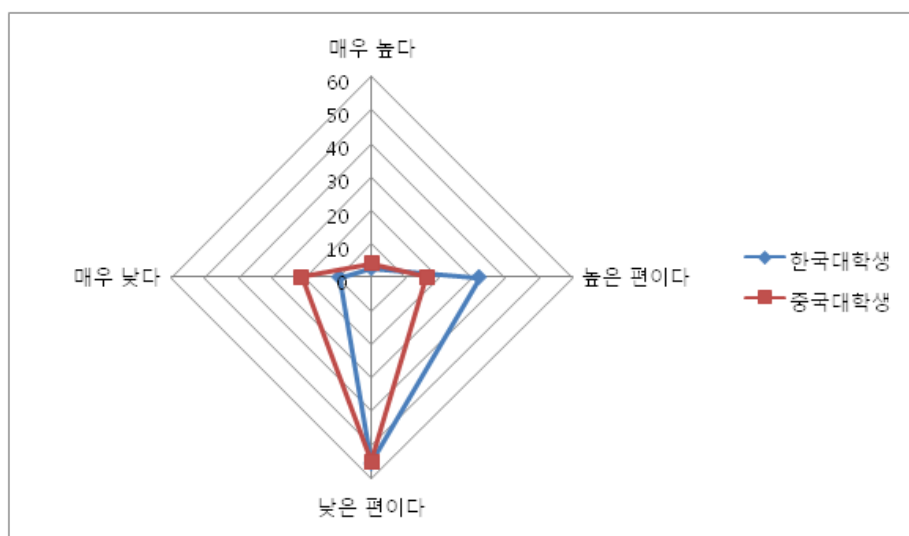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 각 부문에 대한 호감도

2. 한반도 통일 전망과 중국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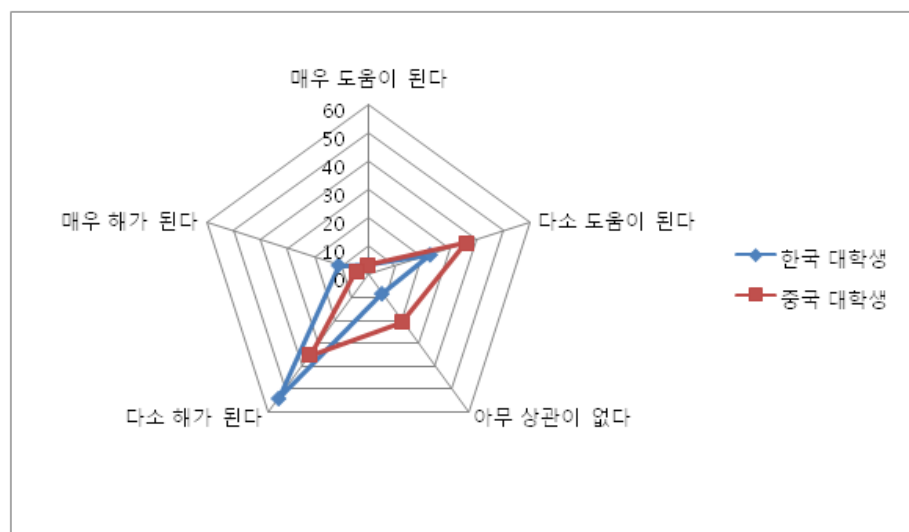
한반도의 통일 전망과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비슷한 패턴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조사대상자들 양쪽 모두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중국 조사대상자들이 한국 조사대상자들보다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대학생들이 모두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견해와 ‘다소 해가 된다’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 사이에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 측 조사대상자들이 한국 측 조사대상자들보다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조금 더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국 측 조사대상자들은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견해보다는 ‘다소 해가 된다’는 견해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가 한반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반도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며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 당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 등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우선 달성한다”는 북방정책에 따라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양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양국 정부의 캠페인과는 관계없이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갖지 못하고, 혼란스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그림 5> 한·중 대학생들의 한반도 통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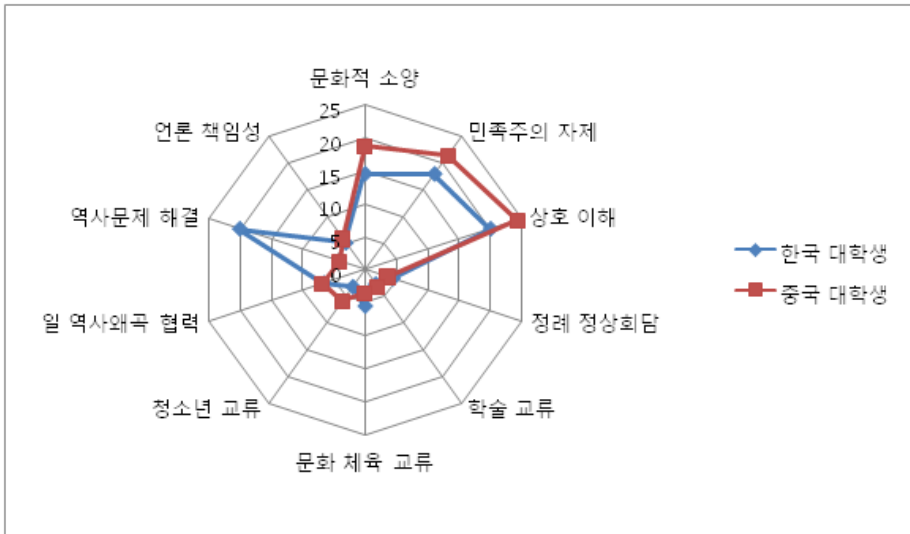


<그림 6>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

3.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견해

앞으로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공통적으로 양국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야 하고, 과도한 민족주의를 자제해야 하며, 상호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세 가지 견해를 가장 지지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양국의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계층이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층인 것으로 인식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청소년층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성숙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다만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한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이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준 반면, 중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역사와 영토 문제의 해결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로서 우선 순위가 낮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로서 역사와 영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의 차이가 한·중 양국 대학생, 대학원생들간의 가장 두드러진 견해차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양국 청소년층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진단된다.



<그림 7>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IV. 청년층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선택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0년 7월 27일부터 8월2일까지 실시한 ‘중국인의 한국 인식과 한국의 대 중국 공공외교 강화 방안’ 여론조사는 한국의 국민성, 문화 및 역사 분쟁 요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통, 한국인들이 과거에 일본을 도와 중국을 침략했다든가, 중국 문화를 도용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젊은 2030세대가 4050 시상 세대에 비해, 대학 재학생 이상의 고학력층일수록 한국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공공외교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정책 건의에서 ①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 대중과 여론 주도층을 분리해서 공공외교를 펼 것 ②우리 정부도 정부주도형과 시민단체와 NGO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추진할 것 ③중국인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중문화를 적극 활용할 것 ④중국인들이 주로 정보를 획득하는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⑤한국의 미국 일변도 외교에 대한 중국 측의 비우호감을 감안해서 한·중 FTA의 조기 타결 등 대중 대응외교를 강화할 것 ⑥한·중 동질감의 근원인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를 통한 동질감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 등을 건의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2011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몇 가지 추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첫째, 한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비우호감이 중국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비우호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 한·중 양국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견해와 해가 된다는 견해 사이에서 양국단적인 혼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할 분야로 두 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공통적으로 양국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 확대,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 상호 객관적 이해의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역사와 영토 문제의 해결에 대해 한국 청소년층은 크게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층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네 가지 흐름을 해소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외 공공외교에 한국 대학생 청소년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외교당국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관해 중국 정부와 외교당국이 보다 분명한 태도로 한반도의 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뜻을 새롭게 강조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외교를 추진한다.

넷째, 역사와 영토문제의 해결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 발전을 언제든 가로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 해당 부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한국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중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상대국에 대한 여행과 체류 경험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좋은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해서 한·중 양국 정부가 청소년 교류를 현행보다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1992년에 시작된 한·중 관계는 19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흐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양국 국민들과 청소년들 사이의 상대국에 대한 상호 인식과 태도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중국에서는 1950~1960년대 생 부모들과는 성장환경이 크게 달라 이른바 ‘바링허우(八零後)’, ‘주링허우(九零後)’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세대 간 사고의 격차도 나타났다. 양국 국민들과 청소년들은 또한 사회와 국제관계를 인식하는 정보획득 수단 역시 기존의 신문과 방송보다는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흐름을 주로 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한·중 관계에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양국 관계를 주도할 세대로 현재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얼마 안가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한·중 관계의 흐름과 교류를 주도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두 나라 관계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중국에 관한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의 흐름에 대비하는 것은 한·중 양국 관계의 어떤 측면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점 한국청소년 연구회가 이번 실시한 한·중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대한 양국 관계 설문조사를 관련 정부 부처와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적극 전달되어 앞으로의 한·중 관계 발전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토론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박 승준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먼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인식구조와 국가 이미지에 대한 본 조사연구가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한중 양국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 데에 동의한다.

아울러 고려대 동아시아연구원(2010년 7월), 중국의 환구시보(2010년 12월) 및 2011년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양국 국민과 청년, 청소년들 간의 역사인식, 선호도, 호감도 등 상호관계성 인식의 동질성과 차별성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각각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과제가 필요함에 동의한다.

1) 선호도, 호감도, 비우호감에 대한 인식차이의 시사점들

- 중국인의 한국 선호도(좋아하는 나라/가보고 싶은 나라) 세계 9위 통계 결과 (환구시보)
-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영향력이 필리핀보다 앞섰다는 통계는 긍정적 선호일까? 부정적 싸인일까? (환구시보)
- 중국 여론 주도층이 일반대중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욱 우호적인 통계수

치 (고려대)

- 호감도의 원천: 일반대중: 주로 한국민과의 개인적인 동질감, 문화적인 동질감

여론주도층: 문화적 요인 및 한국 기업 평가, 한국 정부 평가가 큰 영향

- 상대적으로 중국의 2030세대(청년세대)와 고학력층의 한국에 대한 냉담한 평가 (고려대)

안보위기, 친미편중외교, 중국에 대한 무시와 우월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반면 한국의 민주화나 한중관계 개선 등 정치적 요인이 긍정적 평가요인이었음

- 중국인이 체감하는 한국의 최대의 매력요인: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경제발전 성취 (고려대)

- 한류문화의 확산 못지않게 중국의 유교문화 확산에 호응하는 문화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전적인 공감 (고려대)

- 심각한 왜곡된 정보의 유통문제: 한국민의 국민성, 문화감, 역사분쟁의 요인 등한국민이 일본을 도와 중국을 침략했다. 중국문화를 도용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한의학, 강릉단오제, 한자의 기원) (고려대)

- 한국 청년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감이 중국 청년의 한국에 대한 비우호감 보다 크다는 설문조사의 시사점 심각.

한국 청년: 중국 정부 국민 기업 제품 대중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강한 비우호감 나타냄, 특히 중국 상품 제품에 대한 극도의 비우호감

(비우호감: 중국 상품 제품 > 정부 > 기업 > 국민 문화)

- 중국 청년들이 G2 논쟁의 미국이나 난징대학살과 동중국해 다오위다오 영토영해분쟁의 당사자인 일본에 대하여 정부의 경쟁적 정치선동에 상관없이 호감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 필요

- 중국 청년들이 한국보다 북한에 비우호감이 더 크다는 설문 결과에 주목(의외의 결과)

중국청년 호감도: 미국 > 일본 > 한국 > 북한 순으로 나타남

중국 청년: 한국정부 국민 기업 제품 대중문화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호감도 나타냄

2) 한반도 통일 전망과 중국에 미칠 영향 인식과 중국의 역할 인식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 양국 청년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 양국 정부의 입장과는 매우 상이한 양국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문제
- 한반도 통일 실현가능성: 중국 청년이 더 낮은 것으로 전망
-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영향: 상반된 견해(다소 도움 vs 다소 해) 사이에서 판단이 되지 않는 극도의 혼란스런 인식 보유 (중국 청년은 ‘다소 도움된다’ 반면에 한국 청년들은 ‘다소 해가된다’로 응답함)

3) 역사문제 및 영토 영해 문제

- 한국 청년: 역사 및 영토영해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반면
중국 청년: 역사 영토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위한 노력의 우선순위에서 낮게 나타남
- 가장 두드러진 견해 차이를 보인 부분으로 양국 청년층의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예견한 것에 주목하여야 함

4) 청년층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선택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

- 대상: 일반대중과 여론 주도층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공공외교정책
- 주체: 정부주도형과 시민사회/NGO 활용한 공공외교
- 대중문화를 적극 활용한 공공외교정책
- 중국인의 주요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활용한 대응
- 미국일본도 외교 비호감에 대한 대응외교 강화(한중FTA 조기 타결 등)
- 유교문화 한자문화 등 문화 동질감 확대 방안 추진

- ②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4대 영역 및 정책선택
- 한국 청년의 중국 정부에 대한 강한 비우호감
 - ⇒ 정책선택: 중국정부의 대외공공외교에 우리 청년들의 이해도 증진 위한 외교당국의 노력 강화
 - 한반도 통일관련 양극단의 혼란한 인식 차이
 - ⇒ 정책선택: 중국정부(외교당국)가 더욱 분명하게 한반도 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뜻을 새롭게 강조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외교 추진
 - 양국 공동 노력: 문화적 소양 확대, 과도한 민족주의 자제, 상호 객관적 이해 증진
 - 역사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 차이 극복과제
 - ⇒ 정책선택: 한국정부의 역사 영토영해문제 이해도 증진 및 중국 정부에 분명한 입장, 전달하는 외교 추진
 - ⇒ 기타 정책선택: 낮은 상대국 체류여행 경험 비율 문제 및 부정적 경험이 많은 해결을 위한 한중 정부간 청소년 교류 강화과제

- ③ 특별한 강조가 필요한 한중 청소년 교류 강화과제
- **Rationale:** 수교 19년 동안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의 폭이 엄청나며 양국 국민 및 청소년 상호 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엄청난 변화의 과정 목도 / 바리케이트 주렁허우 등 세대 간 인식의 차이 목도 / 인터넷 등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소통방식의 변화도 목도
 - 가장 중요: 미래세대인 양국 청소년 청년들의 교류협력의 긍정적 분위기 형성 및 실제적 교육을 통한 상대국의 많은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2. 중국의 실체; 중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 대한 이해 필요성

1) 중국의 실체

- ① 정치적 민족주의
- ② 외교적 공세주의
- ③ 세계적 공장에서 세계적 시장으로 변하는 중국 경제(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 ④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
- ⑤ 개도국과 선진국이 동시에 공존
- ⑥ 동북아 역내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강대국
- ⑦ 정부 통제형 시민사회 (NGO=Near Government Organization, 중국식 삼자교회)

2) 중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 ① 중국 위협론: 중국이 성장하면 주변국이 피곤하다. 중국이 성장하면 세계가 피곤하다. (기존의 서방(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유지 논리)
 - ② 중국 붕괴론: 중국식은 안 돼! 중국은 망할 거다! 북경올림픽 상해 엑스포 이후에 중국은 붕괴할 것이다 (BRICS논리 / emerging donor country 논리)
(천안문사태--북경올림픽--상해엑스포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침투되어 붕괴할 것이다??)
 - ③ 중국 기회론: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서의 중국
 - ④ 중국 책임론: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구원투수로서의 중국의 책임
 - ⑤ 중국 리더론: G2
- ⇒ 중국의 인권 민주주의 환경 문제 제기 등 서구의 논리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문제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세계 제2의 무역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중국의 경제적 실체 중국의 경제위상과 그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당나라에서 청나라

까지 세계 GDP의 30% 이상을 생산해 온 원래 강대국인 중국이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문화혁명 혼돈기 동안 잠시 벽에 막혔다가 2001년 WTO 가입 이후 새로운 부흥과 국제무대의 등장, 매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외환보유고 3조 450억 달러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현재진형형 외형적 성장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의 위협의 실체는 경제적 위상과 경제력의 무기화 못지않게 폐쇄적 민족주의 군사적 확장주의에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맞고 틀리고’의 논리가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 글로벌 스탠다드 vs. 차이나 스탠다드
- PAX AMERICANA vs. PAX SINICA

(중국 주도의 세계평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유도, 새로운 중화의 시대 도래 논리에 주목해야 한다.)

3) 상호 관계성 강화에 앞선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자기학습 및 인식과 태도 변화과제

- ① 중국에 대한 막연한 신비감 탈출 및 중국의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과제
- ②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중국식 시장 매커니즘 학습 과제
- ③ 서구의 시각으로 중국 바라보기에서 탈피한 독자적 중국관 정립 필요
- ④ 도전과 기회로서의 중국 이해
- ⑤ 중국의 빠른 변화 따라잡기 필요 (20년 전 / 10년 전 / 5년 전 중국과 현재의 중국)
- ⑥ 한중수교 이후 빠른 사회주의 발전 모델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 존재감의 위기감과 근거 없는 시기와 반목 문제, 조선족과 중국

관광객 유학생을 무시하는 태도 개선 과제 (중국 관광객, 조선족, 유학생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 조정과제)

⑦ 한민족인 동시에 중국 국민으로서의 조선족을 바라보는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 이해부족과 시각결여 문제 개선과제 (연변 공청단의 박XX주석의 코멘트)

⑧ ‘경제공동체’에 앞선 ‘문화공동체’ 가능성 모색;

- 동일한 유교(유가)문화의 형제지방(형제국가)로서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인정 과제

- ‘한류’와 ‘반한’ ‘혐한’ ‘혐한류’ 공존 문제의 근원 이해 및 시급한 대책마련 과제

⑨ ‘동북아 안보 레짐’에서 ‘동북아 평화레짐’으로; 공동의 역사대화와 평화교육의 실천과제; 양국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강조과제

3. 중국인의 이유 있는 반한 혐한, 근거 없는 반한 혐한 양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 ‘한류’의 부정적 측면; 일방적 문화수출의 문제 및 정부 개입(주도)형 문화정책에 대한 경계 (환구시보 및 르몽드지)

- 중국인의 전통명절이라 믿고 있는 단오절을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 혼천의 시계는 우리나라 발명품이나 그 부속인 혼천의는 중국의 발명품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만원짜리 지폐에 혼천의만 일부 실리면서 중국인 분개; ‘한국인은 모든 것을 자기것이라고 우긴다’

- 한의학(漢醫學)을 한의학(韓醫學)으로 개명 주장

- WHO 침구 표준화 과정에 한국의 이론이 도입된 것일 뿐 침구 자체가 중국이 아닌 한국의 것이라고 WHO가 인정한 것은 아님

- 반대로 김치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주장

- 2008년 북경올림픽 때 SBS 개회식 리허설 사전누출 보도로 인한 자국 한국팀 경기에 야유 보내는 중국민

- 중국 한자의 기원은 우리나라라는 주장
- 2008년 8월 1일 중국의 TV가 보도한 ‘손중산과 야오밍은 한국혈통이라고 성균관대 모교수가 주장하였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성균관대의 그런 교수도 그 런 논문도 없는 근거없는 루머라는 것이 확인됨. 이를 시정요구하는 sohu.com의 글도 바로 삭제당함. 즉 포털 사이트조차 왜곡에 동참??
- 박진영(2011년 9월) : 한류열풍 못지 않게 혐한류 분위기가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일방적인 문화 수출 때문’이라고 비판함이어서 박진영은 예를 들면서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인사를 해주는 것은 성의 있다고 여기면서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나라 가수가 가서 그 나라 의상을 입으면 비난하는 이중적인 면은 사라져야 한다”며 거침없는 소신을 전달했다.
- 중국판 위키피디아 ‘바이두 백과사전’은 반한 정서의 원인을 박탈감으로 요약한다.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등 문화 ‘침탈’과 급격한 경제성장에 바탕한 우월 의식 등, 문화유산과 자존심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 이렇게 촉발된 반한 정서는 민족주의 감정에 기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재생산된다. ‘쑨원 한국 기원설’ 기사는 지난해 ‘석가모니 한국 기원설’ 오보의 재탕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균관대학의 한 교수가 …라고 발표했다”는 기사 형태나 “제주도 지역 의 조선인”을 거론한 내용마저 똑같았다. 언론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성급히 기사를 썼고, 누리꾼들은 이를 사방에 ‘퍼다 날랏’다.
- 중국 쪽은 특히 2005년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때부터 한층 경계감을 보여 왔다. 중국 정부는 전통명절인 청명절·단오절·중추절 등을 올해부터 공휴일로 선포했다. 누리꾼들은 한국이 명대 약학자 이시진의 <본초강목>이나 천문관측기구 혼천의, 인쇄술과 한자 등을 노린다면 눈을 부라린다. 중국 언론은 ‘한국, ○○ 세계문화 유산 신청 움직임’식의 기사도 쏟아낸다.

- 이미 2007년 12월 중국 누리꾼들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웃나라’를 질문한 한 조사에서 한국(40.1%)은 일본(30.2%)을 제친 1위였다.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 <대장금>이 한때 ‘가장 싫어하는 연속극’ 선상에 오른 것도, 한의학이 중의학을 앞선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박탈감 우려 탓으로 풀이된다. 한류 스타들을 따르는 ‘하한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동북아역사재단 박경석 연구위원이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등 학계의 공동 연구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중국 소식을 다루는 한국 언론도 민족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감정적 반응에 치우치는 누리꾼들의 태도 탓에 진정한 상호 이해는 멀게만 보인다.

(한겨레신문 2008-08-05)

4. ‘상속된 시민적 책임성(herited civic responsibility)’으로서 한중(한중일) 공통의 역사 인식과 역사화해를 위한 역사대화와 실천 모색과제; 동북아 평화레짐 구축과제

1) 제국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팽창주의 극복의 과제

지역 내 청소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상생을 가로막는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역사적 갈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산물로 남겨진 침략적 유산들과 전쟁의 기억들이 많은 경우 역내 화해와 평화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민사회 사이에 오랫동안 진전된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든 탑’도 돌출하는 역사 갈등 앞에서는 그 추진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도 여러 번 반복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자국 중심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가 발동되기도 하고, 미디어와 집권

정치인들이 ‘조작’과 ‘망언’을 통하여 역사 갈등을 부추기거나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역내 정부는 역사현안의 근본적 문제해결보다는 휴화산처럼 제반 역사문제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예견되지 못하는 국수주의적인 ‘언론’ 보도나 정치인, 학자들의 ‘망언’ 한마디에 국민정서와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해 민족주의 의식의 과도한 투영을 절제하기 위하여 방어적 민족주의 뿐 아니라 과거의 제국주의, 현재의 팽창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공격적 민족주의에 대하여서도 함께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국가 중심의 전쟁의 기억 극복 과제

전쟁은 국가의 형성과 민족국가의 정체성 등 역사적 실체와 아울러 민족 국가 구성원의 역사의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전쟁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사람 개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전쟁의 기억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와 정당성, 정체성과 안전을 제공한다. 즉 전쟁을 기억하는 행위는 선택적이며 해석적이며 정치적이다. 그 기억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

‘전쟁’은 국가가 행위에 정당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행위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전쟁 기억은 전쟁과 국가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파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협소한 집단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교육적 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단위의 전쟁 기억은 그 속의 인간 개개인의 고통과 희생을 상실한 채, 대부분 자국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며 ‘타인’에 대한 가해를 경시하여왔다. 국가중심의 전쟁 기억에서 강요되는 국가-사회, 군인-민간인, 남성-여성, 선-악, 정상-비정상, 적군-아군, 가해자-피해자 등의 역사적인 관계망은 인위적인 이분법적 구분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 중심의 역사인식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현상’의 하나인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 과제는 물론이고, 분노나 분개심, 일방적인 찬미나 집단적 환희와 같은 수직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폭력 앞에서 비슷해지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함양하는 인간중심의 역사인식과 인간중심의 화해모색과 전쟁에 대한 새로운 기억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쟁과 폭력적인 갈등상황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소극적 주체, 주변부, 여성, 평화주의자 등 이름 없는 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3) 상생에 기반한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체 건설과 평화교육, 역사교육의 과제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 of history)’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역사적 해석은 제반 정치적, 사회적 의도와 이유들에 의하여 편향적으로 해석되어져 왔으며 왜곡되어 왔다.

“역사교육이란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미래를 예견하는 학습이다.” (History education is a study of social prophecy looking backward.) 라는 말처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상생과 평화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중심적 민족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식민주의와 전쟁의 기억은 편향적 역사해석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논거들로 인해 왜곡된 역사인식과 국가별로 엇갈린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목도되고 있다.

동아시아 근대사를 통하여 우리는 식민주의, 전쟁과 폭력, 빈곤과 차별, 인권침해의 역사적 상처들에 관한 역사교육이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공존과 상생을 교육하기보다는 ‘분노를 가르치고 조직하는 역사교육’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협력과 상생에 기반한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위하여 청소년 역사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을 강화하여 보편적 평화와 상생의 시민사회 가치와 평화문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Concept Paper on ‘The 2nd International NGOs Conference on Peace and History, 2008)

4) 국가 중심적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 논의의 극복과 시민사회의 개입 과제

최근 20여 년간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공동체” “동북아 공동체”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가지는 공통의 결론은, 동북아시아 역내 ‘정부’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하향식’ 공동체 건설 논의는 반드시 역내 시민사회들에 의한 ‘상향식’ 참여의 제도화 과제와 직면할 것이 예견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초국적 시민 참여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의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이래로 전지구적으로 목도되고 있는 사실이다. (전제성, 2007)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지역내 협력과 정책결정 과정들이 국가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던 타성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포함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개입과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5. 동북아 역사화해와 평화건설을 위한 한-중(한-중-일) YMCA 공동 노력 사례 공유

1) 한중일YMCA 지도자 평화포럼

- 2004년부터 격년으로 돌아가며 한-중-일 YMCA 평화포럼 개최

(2004; 제주평화포럼, 2006; 구마모도 평화포럼, 2008; 광주우 평화포럼, 2010; 인천 평화포럼, 2012; 히로시마 평화포럼(예정))

- 각국 YMCA 지도자, 청소년지도자, 교사,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모임
- 공동 역사교육, 평화교육, 지구시민교육 과제모색
(공동 평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합동 청소년 평화교육, 역사교실, 지구시민교육 워크숍 개최, 청소년 평화캠프, 대학생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과제 개발 및 실천)

2) 한중일YMCA 청소년 공동평화행동

- 한중 청소년 합동 식목캠프; 중국 나이멍구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합동 워크캠프
- 한중일 대학생 평화 워크숍
- 동북아 대학생 평화와 역사체험 발표대회
- 한중일 청소년 공동 역사교실
- 역사NGO 세계대회

6. 나가는 말; ‘관계성’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용성과 ‘중국의 재발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동서도 다르고 남북도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아시아’라는 명칭 및 ‘한-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계성을 띤 말이다. 최근 들어 아시아가 부상하면서 아시아 담론이 넘쳐흐르듯이 우리 안에는 ‘중국’ 담론이 넘쳐난다.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 담론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부재’했으며, 우리 안의 ‘중국’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으나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무지’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 ‘실체적 중국’은 ‘부재’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류를 통하여 일류국가를 꿈꾼다.

우리는 아시아인으로 살면서도 아시아를 대상화하는 서구 제국의 시선을

내재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제국의 시선으로 우리와 중국을 해석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내 안에 있는 타자이며 부재의 존재다. 우리는 훼손되지 않은 본질적인 중국을 재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의 역사와 이야기가 만나는, ‘삶으로서의 중국’을 재발견해 나가야 한다.

한·중 국제세미나 11-S32

**한·중관계의 미래 :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인 쇄 2011년 9월 21일

발 행 2011년 9월 2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자료실)